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柳 珍 玉

2018 年 8 月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指導教授 許 南 春

柳 珍 玉

이 論文을 國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8 年 6 月

柳珍玉의 國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 (인)

委 員 ----- (인)

委 員 ----- (인)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8 年 6 月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the Transmission of
Ancestral God Faith Mythology in Jeju Island

Jin-Ok RYU
(Supervised by professor Nam-Chun He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8.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Nam-Chun Heo, Prof. of Literature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1. 제주도 조상신 개관	1
1.1. 조상신 개념	1
1.2. 조상신 제의	3
2. 선행 연구 검토	7
3. 연구 자료 검토	16
4. 연구 방향	25
II.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유형 분류	26
1. 분류 기준 개관	26
2. 조상신 특성에 따른 분류	27
2.1. 비인격신	27
2.2. 인격신	32
3. 조상신 좌정 동인(動因)에 따른 분류	34
3.1. 실패(失敗) 유형	35
3.2. 성취(成就) 유형	42
III.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55
1. 자연 신앙적 관념	58
2. 무속 신앙적 관념	62
2.1. 조상 숭배 관념으로서의 인격신	63
2.2. 한반도와의 교류	69
2.3. 의례의 다양화	73
3. 역사적 사실 관념	77
IV. 결론	82

<참고 문헌>87
<Abstract>91

▶ 표 차례

[표 1.] 조상신본풀이 자료 목록20
[표 2.] 조상신 관련 당신본풀이 자료 목록72

I. 서론

1. 제주도 조상신 개관

1.1. 조상신 개념

이 논문은 제주도 무속 신앙 중 ‘조상신’의 내력을 풀어낸 ‘조상신본풀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제주도 무속 신앙에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 신(神)의 층위가 있다. 인간 세상 전반의 원리를 관장하는 ‘일반신’, 마을 공동체를 주관하는 ‘당신(堂神)’, 그리고 한 집안을 보살피는 가문의 수호신인 ‘조상신’이 그 셋이다. 그리고 각각의 층위에 속한 신들의 내력을 담고있는 본풀이가 있다. 이 역시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로 칭한다.¹⁾

제주도 무속 연구사(研究史)에서 ‘조상신’에 대한 개념은 현용준이 처음 제시하였다. 현용준은 조상신의 성격을 일반적인 조령 숭배 사상의 연장선에서 파악하였다. 그러나 혈연 조상으로만 제한을 두지 않고 나타나는 제주도 조상신 신앙의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그 결과 ‘실제의 혈연 조상 중 걸출한 선조, 원혼의 성격을 가진 조령(祖靈), 특수한 직업을 시작한 선조’를 ‘조상’이라 관념하면서 집안의 수호신으로 모시는 경우를 ‘조상신 신앙’으로 정리한 바 있다. 현용준에 이어 김현선은 조상신본풀이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조상신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김현선 또한 ‘조상 가운데 높은 벼슬을 한 인물이나, 비혈연 조상인 경우에 태운 조상이거나 혈연 조상과 관계가 있어 특별하게 그 집안에서 모시고 있는 존재’로 조상신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본고는 위의 연구를 이어 조상신의 개념을 ‘혈연 조상과 비혈연 조상을 모두 포괄하는 한 집안의 수호신’으로 삼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는 일반적인 조상의 개념과는 다른 제주도 무속 신앙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관념이다. 혈연 조상의 경우

1)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도서출판 각, 2007, 752쪽. 일반신본풀이는 전도적인 차원으로 전승되는 본풀이이다. 당신본풀이는 각 마을의 분향당, 일렛당, 여드렛당, 개당 등마다 전승하는 본풀이이다. 조상신본풀이는 특정 수호신을 모시는 집안에서 전승하는 본풀이이다.

는 생전에 걸출한 위업을 통해 집안을 일으킨 조상이거나 그 집안에 전승되는 특정 생업을 처음 시작한 조상인 경우가 많다. 비혈연 조상의 경우는 혈연 조상과 특별한 사연으로 관계된 원혼(冤魂)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외 비인격적인 성격을 갖는 대상도 ‘조상’으로 칭하며 모시는 경우가 있다. 그 대상은 사신(蛇神), 돌, 해골 등의 자연물에서부터 생활도구인 솔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조상신의 직능은 ‘집안의 수호신’으로 재물과 자손의 번성, 출세 등 인격과 비인격, 혈연과 비혈연 등 조상신의 특성과 관계 없이 동일하다.

조상신은 제주곳에서 모시는 신들의 위계 중 세 번째 영역에 속한다. 현용준의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 소개된 초감제의 하위 제차 중 ‘젯드리얏혀 살려옴’을 보면 신들을 위계에 따라 구분하여 청신하는 것을 볼 수 있다.²⁾

첫 번째, 천지 자연에 대한 신이다. 하늘 차지 옥황상제 대명왕, 땅 차지 지부 사천대왕으로부터, 산, 바다, 절 차지 신이 이 영역에 속한다.

두 번째, 인간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다. 생명을 점지하는 불도맹진국할마님으로부터 질병신의 대표격인 별금상마누라, 날궁전, 달궁전이라 불리는 일월신(日月神), 그 뒤를 이어 초공, 이공, 삼공, 시왕과 차사에 이르는 신이 이 영역에 포함된다.

세 번째, 멩감으로부터 세경, 일월조상에 대한 신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과 생업을 모두 아우르며 액을 막고 생업을 수호하는 신이 여기에 해당한다. 곡신(穀神)이자 풍농신(豐農神)을 의미하는 세경신이 여기에서는 조상신을 의미하는 ‘일월(日月)’로 칭해진다. “즈부일월 상세경 살려옴서. … 양반의 집인 즈부일월 상세경, 심방의 집인 직부일월 상세경 연당 알로 살려옴서.”로 구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 농업이 주된 생업이었던 시기에 농업의 신인 ‘세경신’을 총체적인 직업의 수호신으로 관념하고 있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여기서의 ‘일월’은 보편적인 직업수호신이라는 관념에서 제기되는 것이며, 일반신의 차원에서 갖는 조상신 관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집안의 조상신과는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 대목에 이어 계속되는 ‘일월’에 대한 말명은 좀더 개별적인 생업의 영역으로 세분화해 간다.

2)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58쪽.

3)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62쪽.

일월(日月)도 제석(帝釋)입고 제석도 일월입네다. 양반(兩班)의 집인 스당일월(祠堂日月), 중인(中人)의 집인 중당일월(中堂日月), 하인(下人)의 집인 하당일월(下堂日月), 배(船) 부리는 집인 선왕일월(船王日月), 책(冊) 보는 집 책불일월, 삼승할망집 불두일월(佛道日月), 심방집(神房家) 당주일월, 일월제석(日月帝釋) 녁신몸주 제왕제석(帝王帝釋)님도 살려옵서.⁴⁾

위의 말명에서 보여지듯 계층과 생업을 아우르는 수호신으로서의 ‘일월’이 일반신적인 차원으로 존재하며, 특정 집안에서는 이 중 그 집안에 해당하는 일월을 특정 조상신으로 모시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제주도 조상신은 특정 집안에서 모시는 집안의 수호신이다. 혈연 조상과 비혈연 조상을 모두 포괄하며, 그 집안과의 특별한 인연을 매개로 그 집안에 조상신으로 좌정한다. 그 수호신을 모시는 집안에 대하여 자손과 생업의 번성으로 보답하는 신으로 제주곳에서 모시는 신의 위계로 따지면 일반적인 직업수호신의 하위신으로 정리할 수 있다.

1.2. 조상신 제의

제주도 조상신에 대한 제의는 민간 신앙 의례인 가신제(家神祭)와 무속 신앙 의례인 굿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또한 유교적 의례인 기일 제사와 명절제에서도 모셔지고 있다.

삼명질(三名日) 기일 제스(忌日祭祀) 때에도 연양상고팡(靈筵上庫房)으로 상(床) 훈상을 바찌곡 큰곳엔 열두석시 족은 곳엔 9숫석시 앓인제 삼석, 헤 넘는 철갈이로 풍악(風樂)으로 나 간장(肝腸)을 풀려도라.⁵⁾

위 말명은 <구실할망본>의 뒷부분이다. 이는 대부분의 조상신본풀이 말미에 구연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가장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일 제사와 명절제이다. 집안에 따라서 제사 때마다 안창고에 따로 작은 상을 하나 차리는 집도 있고, 문전상과 같이 제사상 옆

4)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62쪽.

5)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687쪽.

에 상을 차리는 집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다음은 정월 신과세의 의미로 모시는 ‘철갈이’나 ‘멩감제’ 등에서 단독으로 모셔지는 경우이다.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은 굿을 통한 방식이다. 제주굿 의례 중에 주로 석살림 제차에서 이루어진다. 석살림은 제주굿에서 오신(娛神)의 성격을 갖는 대표적인 제차이다. 신을 흥겹게 할 뿐 아니라 굿을 청한 본주의 가족들, 굿을 구경 온 지인들까지도 모두 어울려 신명나게 한판 노는 장이다. ‘석살림’이라는 말 그대로 굿의 단계 단계를 의미하는 ‘석’을 살려내는 제차이다. 강정식은 『제주굿 이해의 길잡이』에서 석살림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제주굿에서 석살림은 매우 중요한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석살림은 모든 굿에서 필수적인 절차로 간주된다. 굿의 규모에 따라서는 여러 차례 거듭 연행하기도 한다.⁶⁾

위와 같이 조상신을 모시는 제차인 ‘석살림’은 제주굿 의례에서는 반드시 연행되는 것이고, 여러 차례 거듭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

큰굿에는 열두석시, 중당클엔 으삿석시 앓인제 삼석시 일천간장을 풀리웁고, 큰굿 흐민 큰밭 나습고 죽은굿 흐민 죽은밭 나수와 고데강실 높은 집 남단복답 너른 밧 유기제문 천하거부 나수와 주던 조상입네다.⁷⁾

위의 말명은 조상신본풀이를 구연하는 굿 제차의 말미에서 대부분 구연되는 관용구이다. 조상신에 대한 의례적 보답이라 할 수 있으며, 조상신의 직능을 설명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석살림이 여러 차례 거듭 연행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연행되는 것은 아니다. 큰굿의 제차 중 석살림이 처음 명시된 순서는 추물공연을 마치고 난 다음이다. 먼저, 청신(淸神) 의례인 초감제와 초신맛이, 초상계를 통해 거듭하여 신을 제장(祭場)으로 청한다. 그 후, 정성으로 준비한 제물을 바치는 추물공연을 올린다. 그 다음의

6) 강정식, 『제주굿 이해의 길잡이』, 민속원, 2015, 105쪽.

7)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681쪽.

차례가 석살림이다.

석살림 제차는 ‘말미-날과국섬김-연유담음-신메움-놀판(수작-덕담-담불-서우제소리)-비념-산밭아 분부-주잔념김-제차념김’으로 정리된다.⁸⁾ 이 중 놀판으로 정리된 대목이 이 제차의 주된 내용이다. 놀판의 하위 제차인 ‘덕담과 담불’에서 조상신의례가 행해지며, ‘군웅본판과 조상신본풀이’를 구연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주굿에서 여러 번 거듭되는 석살림 중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것을 ‘군웅만판’이라 한다. 대부분의 의례를 마치고 ‘신을 돌려보내기’[送神] 전에 마지막으로 ‘신을 놀리는’[娛神] 제차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석살림, 군웅만판이 제주굿의 초반과 후반에 자리하여 조상신을 모시는 제차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밝혔듯이 조상신에 대한 의례는 굿의 규모에 따라 여러 번 거듭 연행된다.

본고에서 자료로 선정한 서적 중 하나인 『동북 정병춘택 시왕맛이』를 보면 실제 제주굿에서 조상신이 얼마나 다양한 제차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모셔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⁹⁾

제주도 조상신의 특성은 굿의 제장을 마련하는 방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 큰굿 중 가장 큰 규모인 사당클굿은 제장의 사방 위쪽에 네 개의 당클(선반)을 걸게 된다. 그 당클을 신의 공간으로 관념한다.

네 개의 당클은 이승을 주관하는 신을 모시는 삼천전제석궁 당클, 저승을 주관하는 신인 시왕 당클, 가옥의 수호신인 문전신과 마을의 수호신인 본향신을 위한 문전·본향 당클,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 오랜 조상을 모시는 마을영신 당클로 구성된다. 불도할마님은 구들 벽장에 모셔지고 세경신을 위한 세경채룡은 삼천전제석궁 당클 아래로 달아맨다. 그 외 가옥 곳곳에 그 공간을 주관하는 가옥신을 위한 - 즉 조왕상, 칠성상 등- 상이 차려진다. 그리고 제장의 중앙에는 구들탁상이 배치된다.

8) 강정식, 『제주굿 이해의 길잡이』, 110~111쪽 참고.

9) 강정식·강소전·송정희, 『동북 정병춘택 시왕맛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21~22쪽.
“<광청할망본풀이>는 연유담음, 젓드리, 신청괘, 신메움, 석살림, 군웅만판 등 다양한 제차에서 불리기도 한다. … 조상신본풀이는 대개 소미들의 북, 장구 반주에 맞추어 선 채로 덕담창으로 구연한다. … <광청할망본풀이>는 앉아서 장구 반주로 구연하기도 하고 서우제소리로 부르기도 하고 반주 없이 보통 말명을 하듯이 구연하기도 한다.”

제장의 중앙에 놓여지는 구들탁상은 다른 명칭으로 ‘군웅상’이라 칭하기도 한다. 구들탁상 위에는 ‘군웅시리’라는 군웅신에게 올리는 큰 시루떡이 놓인다. 제주도에 서 군웅신은 조상신의 대표 격으로 관념하는 신이다.

상위의 신들은 제장의 상단에 기메로 가려진 채 모셔진다. 그런데 조상신을 모시는 의미인 군웅상은 제장의 중앙에 모셔진다.

이와 유사한 양상에 대하여 서대석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 있다.

무속의 신들은 위계나 배분(配分)이 명확하지 않으며 위계가 높다고 해서 숭앙감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과 친근감이 있고 기능이 분명한 신이 극진한 제향을 받는다. 인세 전체를 관장하는 창세신에 대한 굿거리는 적은 반면 성주나 조상과 같은 가정을 관장하는 신들이 지극한 정성을 받는다.¹⁰⁾

즉 한반도 무속 신앙에서 위계가 높은 신보다 기능이 분명한 신을 더욱 극진하게 모시는 양상을 서술한 것이다. 필자는 군웅상이 놓이는 위치가 이러한 의미와 동일하다고 해석한다. 또한 이러한 신앙 관념은 제주도의 당신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의 일상적인 무속 신앙 의례는 각 지역마다 존재하는 당(堂)과 관계된다. 각 지역의 당(堂)은 본향당과 일렛당 또는 여드렛당 등으로 구분되어 그 기능과 의례 방식이 명확히 나뉘어있다. 본향신을 위하는 의례는 많게는 일년에 네 번, 적게는 일년에 한번 행해진다.¹¹⁾ 그런데 일렛당 의례는 매월 7일, 17일, 27일 등이다. 본향당과 비교할 때 일년에 정해져있는 제일(祭日)의 수가 현격히 많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당들은 신앙민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서 치성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이다. 정해진 제일(祭日)에만 찾을 수 있는 본향당과는 다르다. 이러한 차이가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그 기능의 차이에서 온다. 본향당은 그 지역 전체를 아우르며 지역민의 생사와 지역의 번성을 책임지는 공동체 일반의 수호신을 모시는 당이다. 그러나 일렛당의 경우는 산육, 육아, 치병 등의 기능을 갖는다. 즉 보다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기원을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향당에 비하여

10) 서대석, 『무가문학의 세계』, 집문당, 2011, 78쪽.

11) 정월 신과세, 영등굿, 마불림제, 시만곡대제가 사대제일(四大祭日)에 속한다.

더 잦은 정성을 받는 당으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다. 당에 가는 의례 양상이 상대적으로 더욱 일상적이라면, ‘굿’은 상대적으로 더욱 특별한 의례에 속한다. 무엇보다도 신앙민이 부담해야 할 금전적인 면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당신앙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큰 정성을 올리는 것이 ‘굿’이다. 결국 무속 의례의 관념이 총화되어 있는 장을 ‘굿’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굿의 제장 설립에 위에서 제기했던 관념이 그대로 구현되고 있는 것을 ‘군웅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즉 ‘격절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기능신’을 대표하는 신이 조상신이며, ‘군웅탁상’을 통해 그러한 의미가 굿의 제장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¹²⁾

조상신을 모시는 의례에 대하여 제주굿에서는 ‘조상을 놀린다’ 혹은 ‘조상의 멧힌 간장을 푼다’라는 말로 표현한다. 간장이 썩고 살이 썩어들어가는 원한을 가진 조상신의 애타는 한을 최대한 드러내어 스스로 녹아내리게 하는 것, 위풍당당한 조상신을 더 위풍당당하게 모시어 그 위용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그들의 ‘사연’인 본풀이를 최대한 많이 풀어내는 것으로 의례화하였다. 즉 제주굿에서 조상신본풀이를 거듭 연행하는 이유가 이러한 의례를 통하여 조상신의 직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인 것이다. 결국 조상신의 직능을 최대한 강화하여 더 많은 가호를 받기 위한 조상신 의례의 목적과 여러 번 거듭 반복하여 본풀이를 구연하는 조상신 의례의 방식은 굿을 통해 정확히 조우하고 있다.

2. 선행 연구 검토

제주도 조상신 신앙에 대한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조상신의 개념을 정립한 것이다. 둘째, 보고된 조상신본풀이의 각편에 대한

12) Mircea Eliade, 이은봉 역, 『종교형태론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한길사, 2012, 106쪽. 엘리아데는 “신화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신이지만 신앙 행위에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신”을 발견하고 ‘격절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

개별적인 연구이다.

첫째 조상신 개념 정립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제일 먼저 제주도 조상신의 개념을 제시하고 정리한 자료는 현용준의 『제주도무속자료사전』이다. 이 자료는 제주 무속과 관련한 다양한 양상을 개념화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곳 현장의 자료를 사전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제주 무속과 관련한 최초의 연구 자료이자, 아직까지 이렇게 총괄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출간된 자료는 없다는 면에서 유일무이한 의미를 가진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이 자료 후반부에 수록된 「사향해설」에서 ‘조상본풀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한 집안 내지 한 씨족氏族의 수호신의 내력을 설명한 신화. 조상이라 하면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혈연조상血緣祖上을 이르기도 하나, 무속巫俗에서는 이런 혈연조상이 아니라 그 집안 또는 한 씨족을 수호하는 신을 조상이라 일컫고 있다. 이 조상신은 집안 또는 씨족에 따라 다르고 또 그 집안의 혈연조상들의 직업에 따라서도 또한 다르다.¹³⁾

조상신은 한 집안이나 씨족의 수호신이며, 혈연 조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제주도 무속자료사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용준은 위 책을 발간하고 2년 후에 발표한 「제주도 무신巫神의 형성」에서 ‘혈연 조상이 아니라는’ 의미에 대하여 재정리를 하고 있다.¹⁴⁾ ‘조상신’의 특성을 대략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조령적 성격, 생업 수호신적 성격, 재앙신적 성격이다. 이 중 첫 번째로 구분한 ‘조령적(祖靈的) 성격’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實際의 血緣祖上 중에서 官職 또는 富의 면에서 傑出한 先祖를 守護神으로 모시는 경우다. … 둘째는 祖靈으로서의 性格은 다름이 없지만, 그 祖靈이 冤魂이라는 점이다. 그 중에도 處女의 死靈을 모신다는 傳承이 많다. … 셋째는 특수한 職業을 시작한 先祖를 <조상>이라 하여 守護神으로 모시는 경우다.

13)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772쪽.

14) 현용준, 「濟州島 巫神의 形成」, 『탐라문화』 창간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2.

즉 제주도 조상신의 성격을 일반적인 ‘조령 숭배 사상’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 「제주도 무신의 형성」은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 수록된 다양한 본풀이를 근거로 하여 일반신, 당신, 조상신의 형성 과정과 상호 관계를 정리하였다.

주요한 것은 당신과 조상신이 조령적 성격, 생업 수호신적 성격, 재앙신적 성격으로 그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조상신에서 당신으로 확대·전화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신의 경우는 이와 동일한 전화의 과정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으나 제한적이며, 대부분은 외래신적인 성격을 갖고 형성되었다고 정리하였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재앙신적 성격은 무속 신앙의 신이 갖는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령적인 성격에 있어서는 한계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당신과 조상신이 혼재된 전승 양상을 보이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공통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두 신의 공통점으로 특정하기에는 당신이 갖는 광범위한 양상을 포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조상신에서 당신으로 확대·전화했다는 설명에 있어서 그 반대의 방향도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당신을 그 지역의 상단골이 집안의 조상신으로 모시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호신적인 성격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는 동일하게 발견된다. 단순히 ‘수호신’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할 수 있으나, 마을 공동체의 수호신이 포괄하는 영역과 집안의 수호신이 포괄하는 영역을 보았을 때 좀더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조상신이 ‘한 집안이나 씨족의 수호신이며, 혈연 조상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조령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의미있는 연구였다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것으로 조상신본풀이만을 중점적으로 다룬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가 있다.¹⁵⁾ 이 자료에서는 조상신본풀이에 대하여 처음으로 유형별 분류를 시도하였다. 김현선은 이 책에서 조상신본풀이를 다음과 같이 6개의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가) 남녀 이합·애정담 유형 : 광청아기, 구슬할망, 우렁이신씨, 우렁이김씨, 고전적따
님애기

15) 김현선·현용준·강정식, 『제주도조상신본풀이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 (나) 강신·원사 유형 : 양씨아미, 고전적따님애기
- (다) 과거급제·벼슬살이·직업 유형 : 윤대장, 이만경, 흥부일월, 책불일월, 산신일월, 피쟁이
- (라) 부군철성 유형 : 나주기민창, 안판관·고대정본, 우렁이신씨
- (마) 아기장수전설 유형 : 부대각본
- (바) 영감(도채비) 유형 : 영감본풀이¹⁶⁾

위와 같이 조상신본풀이가 담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구분하여 처음으로 유형화한 것은 의미있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유형화할 때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다양한 성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각각의 조상신본풀이를 너무 단순한 성격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나)의 기준인 ‘강신·원사’를 하나의 유형으로 묶는 것은 무리가 있다. ‘원사(冤死)’의 기준을 ‘강신(降神)’의 경우에만 한정하는 것은 문제이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조상신본풀이의 주요한 특성을 구분해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의 <광청아기본풀이>의 경우 대표적인 ‘원사(冤死)’ 유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 남녀 이합·애정담 유형’의 경우에도 조상신의 성격을 기준으로 유형화한다고 할 때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 <구실할망본>의 경우,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수록본은 ‘허정승 따님애기’가 성장한 후 김동지영감과 혼인을 이루는 결말을 보이고는 있다. 그러나 구실할망이 조상신으로 좌정한 동인(動因)이 남녀 이합·애정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본풀이가 갖는 서사적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진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에 수록된 <구실할망본>의 이본은 이 경우에 전혀 합당하지 않다. 여기서 구실할망과 김동지영감은 수양딸과 아버지의 관계로 그려진다. 그러므로 (가)의 경우와 같이 <광청아기본풀이>와 <구실할망본>은 동일한 기준의 남녀이합·애정담의 유형으로 묶일 수 없다.

조상신의 개념에 대하여 김헌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서술상으로만 본다면 다소 혼재되어 보이지만 조상신의 비혈연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6) 김헌선, 『제주도조상신본풀이연구』, 137쪽.

조상신본풀이는 특정 집안에서 전하는 특별한 본풀이로 주로 집안의 조상 가운데 각별하게 기억되는 조상을 기리는 본풀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조상 가운데 높은 벼슬을 했던 인물의 내력을 구연하거나 어떤 조상이 다른 조상인 이른바 ‘태운 조상’을 섬기게 된 내력을 말하는 것이 이 본풀이의 주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혈연적인 조상의 뜻도 있으며, 동시에 비혈연적인 조상의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주도의 조상신본풀이의 의미라고 보아도 무방하다.¹⁷⁾

조상신본풀이는 한 집안의 수호신으로 ‘태운조상’을 뜻한다. 혈족에 의해서 전승이 되지만 집안의 창시자인 조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런 뜻에서 문헌이나 구전으로 전하는 조상신화와 차이가 있다. 한 집안의 성씨 시조 신화에서는 어떻게 성씨나 가문의 시조가 되었는가를 밝히지만, 조상신본풀이에서는 한 집안에서 섬기는 특정한 조상과 관련되는 님이거나 신의 경우에 해당한다. 조상이기는 해도 조상의 구체적 인물과 원한을 가지고 죽은 인물의 혼신과 관련된다.¹⁸⁾

위 서술에서 보이듯이 김헌선은 전술한 내용에서는 ‘조상신’에 대하여 혈연 조상과 비혈연 조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전제하고 논의를 시작한다. 그러나 후술한 내용에 의하면 마치 혈연 조상은 아니고, 단지 혈연 조상과 관련이 있는 인물의 혼신 등 ‘태운 조상’으로만 ‘조상신’을 개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문헌이나 구전으로 전하는 조상신화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구비 전승으로서의 조상신본풀이의 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용준과 김헌선 모두 균일한 개념 정립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제주도 조상신 신앙에 대한 학계의 입장이 어떻게 정립되어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논의가 진행되면서 차후에 혈연 조상을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시킨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조상신의 개념은 ‘비혈연 조상이면서 한 집안의 수호신’에서 ‘혈연 조상과 비혈연 조상을 포괄하는 한 집안의 수호신’으로 변화한 것이다. 다양한 곳 현장을 수고로이 다니며 채록해왔던 선학들의 노고가 양질의 자료를 구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인식의 보완이 형성되는 과정이었을 것이다.

둘째 본풀이 각편에 대하여 진행된 연구이다. 대표적인 논의를 선정하여 정리해보

17) 김헌선, 『제주도조상신본풀이연구』, 28쪽. 밑줄은 본고의 필자가 표시하였다.

18) 김헌선, 『제주도조상신본풀이연구』, 34쪽. 밑줄은 본고의 필자가 표시하였다.

도록 하겠다.

제일 먼저 현용준·현승환 공저의 「濟州島 뱀神話와 信仰 研究」가 있다.¹⁹⁾ 제주도 뱀신앙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뱀신화를 일반신, 당신, 조상신의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중 조상신으로서의 본풀이는 <나주 기민창조상>, <옹포리 진도할망조상>, <선흘리 안판관 제주판관본>을 예로 들었다. 이 논문에서 정리한 조상신으로서의 사신(蛇神)의 성격은 곡신(穀神)이면서 부신(富神)이다. 신의 형체는 “큰뱀 또는 주걱 같은 귀 달린 뱀”이며, 이 뱀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인격화된다고 하였다. 모시는 장소는 안칠성처럼 고팡에 모시거나 밧칠성처럼 뒤꼍에 모시는 형으로 두 가지가 있으며 제의 방법은 유교식과 무교식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 논문에서 의미있는 것은 실제 사신(蛇神)을 모시는 신앙민의 당시 신앙 전승 상황을 함께 밝힌 점이다. 또한 일반신, 당신, 조상신으로 구분되어 전승되는 사신 신앙 사이에 공통되는 특성을 본풀이 분석을 통하여 정리한 점이다. 그러나 각 층위의 사신 신앙이 형성된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혼재된 정리가 보인다. 가장 먼저 수입된 것이 일반신으로서의 사신 칠성이며, 당신이나 조상신으로서의 사신신앙이 조선조 때 한국 본토 남부지방과의 교류에서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제기하였다가, 다시 사신 신앙이 처음에는 조상신으로 숭배가 시작되어 그 신앙민이 확산되자 당신으로, 다시 일반신으로 가는 길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동시에 제시되고 있는 점이다.²⁰⁾

본고는 이에 대하여 뱀을 신으로 관념하는 사신 신앙의 역사와 그에 대한 본풀이가 형성되어온 역사는 동일한 과정을 겪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즉 전도적(全島的)인 차원에서 일반적인 관념의 사신 신앙이 먼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일반신본풀이인 칠성본풀이가 사신의 성격을 갖는 당신본풀이나 조상신본풀이에 앞서서 형성되었다는 근거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조상신과 당신의 영향은 조상신에서 당신으로 진행되는 일방향의 아니며, 상호 영향 속에 상호 변환되는 과정을 겪었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논의를 풀어가하고자 한다.

19) 현용준·현승환, 「濟州島 뱀神話와 信仰 研究」, 『탐라문화』 1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20) 현용준·현승환, 「濟州島 뱀神話와 信仰 研究」, 38쪽.

다음으로 정진희의 「제주도 조상본풀이 <양이목사본>의 한 해석」이 있다.²¹⁾ 이 논문은 <양이목사본>을 “한반도 국가 권력의 지배에 대한 제주도의 집단적 저항 의식이 드러나는 이야기”로 주목되어 왔다는 전제 속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또한 <양이목사본> 서사의 대립관계를 “외래 국가 권력이 제주도를 지배하게 되면서 재편된 제주도 내부의 권력 구도와 일치하는 바, … 실권을 상실한 제주 호족 탐라 양씨 집안의 역사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²²⁾

즉 기본적인 전제를 탐라국과 고려 사이의 수탈 관계와 주권 상실 문제, 그 과정 속에서 재편된 탐라국 호족집단 양씨집안과 고씨 집안 사이의 권력 관계 등이 반영된 것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설정 속에 양이목사는 영웅서사시적 인물의 전형으로 그려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뒤에서 밝히겠지만 이 본풀이의 주인공은 역사에 실재했던 인물이고, 본풀이는 상당히 후대에 와서 형성되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적 사실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기보다는 그 조상신을 모시는 신앙민인 양씨 집안의 관점으로 수정되었던 것이라 추정되는 지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서사의 내용이 전 제주도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씨 집안으로만 한정되어 전승되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이 논문은 제주도의 조상신과 혈연적 조상을 구분하고 있다. 즉 혈연 조상과 비혈연 조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조상신이 아니라, 비혈연 조상만을 조상신으로 인식하는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의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양이목사’는 탐라 양씨 명월파 집안의 ‘일월조상’이지, 부계적 혈연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조상’은 아니다. 제주도의 전통적 의례 체계에서 유교적 제사의 대상이 되는 혈연적 ‘조상’과 무속적 의례의 대상이 되는 ‘일월조상’은 원칙적으로 구분된다.²³⁾

위와 같이 조상신인 ‘일월조상’과 ‘혈연 조상’을 원칙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양이

21) 정진희, 「제주도 조상본풀이 <양이목사본>의 한 해석」, 『제주도연구』 32집, 2009.

22) 이와 연관된 논의는 조동일의 『동아시아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중 ‘제1장 제주도 5.남성영웅 서사시’를 참조할 수 있다. : 조동일, 『동아시아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23) 정진희, 「제주도 조상본풀이 <양이목사본>의 한 해석」, 211쪽.

목사는 혈연 조상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앞서 조상신 개념에 대한 선행 연구의 과정에서 밝혔듯이 수정되기 이전의 개념을 논문의 전제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양이목사는 양씨 집안의 혈연 조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개연성있는 자료들이 존재한다. 또한 탐라양씨 종친회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혈연 조상이면서 조상신으로 좌정하게 된 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영웅서사시적 인물 유형으로서의 양이목사와 그 인물이 속해야만 하는 중앙권력의 수탈구조에 대항하는 세력의 설정 등 분석의 틀을 다소 맞추어 놓고 시작한 분석작업이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강소전은 「심방 관련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에서 고대장본풀이, 예촌 양씨 아미본풀이, 원당할망본풀이, 안카름 현씨일월당본풀이, 눈미 양씨아미본풀이, 우렁이 김씨조상본풀이 등 6편의 자료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²⁴⁾

이 연구의 가장 주된 측면은 심방 관련 조상신본풀이를 남성형과 여성형으로 구분하였다는 것이다. 남성형은 심방의 특성을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여성형은 심방의 특성을 ‘문제’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남성형은 ‘현재를 유지하려는 인식’을 특성으로 하여 오히려 전승이 특정 집안으로만 유지되고 전승이 약화된 반면, 여성형은 ‘현재를 전환하려는 인식’의 결과로 전승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을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양상은 단지 심방 관련 조상신본풀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전승되는 조상신본풀이 전반을 거쳐 여성이 중심 인물로 형성된 유형은 주로 원사(冤死)의 결말을 맺고, 남성이 중심이 된 유형은 주로 성취(成就)의 결말을 얻는다. 이는 조상신본풀이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허남춘은 「칠성과 부군(府君) 신앙, 뱀 신앙」에서 북두칠성 신앙과 제주도의 뱀 신앙이 갖는 연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뱀 신앙이 제주도의 조상신, 당신, 일반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혀내었다.²⁵⁾ 또한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에 등장하는 기민창조상이 제주로 옮겨오는 현상을 통해 제주 신앙이 변화

24) 강소전, 「심방 관련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탐라문화』 36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25) 허남춘, 「칠성과 부군(府君) 신앙, 뱀 신앙」, 『비교민속학』 58집, 비교민속학회, 2015.

하는 지점을 분석하고 있다. 필자가 이 논문에서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일반신본풀이인 <칠성본풀이>가 조상신본풀이의 내력을 갖고 후대에 일반신본풀이로 전화하는 과정을 밝힌 점이다. 이와 함께 조상신본풀이의 흔적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만이본풀이>나 <칠성본풀이>가 조상신본풀이에서 어떻게 일반신본풀이로 발전해나갔는지를 구명하는 것 또한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칠성과 관련한 연구는 강소전의 「제주도 칠성의 형성과 본풀이 전승」으로 이어진다.²⁶⁾ 이 논문은 제주도의 뱀신앙 중에서 칠성신에 주목하였다. “칠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칠성과 관련한 본풀이의 전승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일반신, 당신, 조상신을 두루 살펴보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조상신의 칠성은 온전히 ‘뱀’ 자체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비인격적인 조상신이 갖는 자연물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경화는 「<양씨아미본풀이>의 장르 교섭 양상과 그 의미」에서 조상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의 교섭 양상을 정리하였다.²⁷⁾ 양씨아미의 입무 훈련 공간인 한라산, 죽음의 이유인 개고기-고기 비린내, 사후의 공간으로 등장한 서천꽃밭 등 3개의 화소를 통하여 당신본풀이와 일반신본풀이의 화소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하여 조상신본풀이에서 당신본풀이로의 확장만이 아니라 당신본풀이의 화소가 조상신본풀이에 수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그 둘의 관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라는 것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상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의 관계가 상호적인 것이라는 점을 밝힌 점이 이 연구의 주요한 의미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근거를 본풀이의 화소 분석이 아니라 신앙의 변화 체계 속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이외에 조상신과 관련하여 의례에 대한 연구가 있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하나는 윤순희의 「제주도 와산리 멩감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송정희의 「제주도 굿 제차 중 석살림 연구」이다.²⁸⁾ 조상신과 관련한 의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26) 강소전, 「제주도 칠성의 형성과 본풀이 전승」, 『실천민속학연구』 27집, 실천민속학회, 2016.

27) 이경화, 「<양씨아미본풀이>의 장르 교섭 양상과 그 의미」, 『한국무속학』 36집, 한국무속학회, 2018.

28) 윤순희, 「제주도 와산리 멩감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송정희, 「제주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라 할 수 있다. 특히 윤순희의 멩감제 연구는 와산리 지역의 주민들을 전수 조사하여 현재적 의미에서 멩감제가 어떻게 신앙되고 있는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소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송정희의 석살림에 대한 연구는 제주곳의 제차 전반이 아니라 하나의 제차에 집중하였으며, 특히 연구 성과가 거의 없는 영역인 제주곳 의례의 음악적인 측면에 집중하였다는 점에서 소중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조상신본풀이 각편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뱀신앙, 영웅서사시적 인물 분석, 심방 관련, 당신본풀이와의 장르 교섭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절대적인 연구 부족의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양적인 확장으로부터 연구의 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신 의례에 대한 연구 또한 이와 동일하다. 조상신 신앙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대목이다.

3. 연구 자료 검토

현재까지 제주곳의 무가를 수록하여 정식으로 출간된 서적은 총 10권이다. 본고에서는 정식으로 출간된 10권의 서적에 수록된 조상신본풀이를 중심 대상으로 하여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조상신본풀이가 전설이나 민담의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는 서적이나 간행물도 있으나 이러한 자료는 본고에서 배제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 자료가 조상신본풀이 형성에 대한 연구 자료로 충분하다고 하는 판단이다.

둘째, 조상신본풀이의 특성을 신앙과 연관된 차원에서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무속 의례에서 구연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삼고자 한다.

셋째, 조상신 신앙의 연관 속에서 조상신본풀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구비문학 내 다른 문학 갈래와의 교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도 곳 제차 중 석살림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연구 대상으로 삼은 10권의 서적은 다음과 같다. 자료의 순서는 초판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 1)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도서출판 각, 2007.
- 2)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 3) 김헌선·현용준·강정식,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 4) 강정식·강소전·송정희,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 5)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의 본풀이 채록 사업 자료집으로 총 4권이다.
 - ①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 ② 허남춘·한진오·강소전 외, 『양창보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 ③ 허남춘·송정희·강소전 외, 『고순안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 ④ 허남춘·정희종·강소전 외, 『서순실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5.
- 6) (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큰굿』, 제주특별자치도, 2010.
- 7) 김헌선·신연우·강정식·강소전, 『제주도 큰심방 이중춘의 삶과 제주도 큰굿』, 민속원, 2013.

1)은 1980년 신구문화사에서 최초 발간되었다. 사전의 형식으로 제주도 무속을 최초로 집대성한 의미가 있다. 2007년 도서출판 각에 의해 재발간되었다. 본 논문은 2007년도 판본을 사용하였으나, 뒤에 제시하는 본풀이 목록에 있어서는 최초 발표 시점에 주목하여 초판 발간일을 제시하였다.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는 조상신본풀이를 갈래로 하는 자료 15편을 수록하였다. 그러나 <고대장본>의 경우 하나의 제목 안에 세 가지의 다른 유형을 담고 있어 이것을 각편으로 본다면 총 17편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2)는 1991년 초판 발간된 자료이다. 다른 책들과 비교하여 가장 많은 제주 무가가 수록되었다. 대부분의 다른 책들이 제주시와 제주 북동부 지역의 것인데 반하여 이 책에는 그 외의 지역에 대한 자료가 다수 수록되어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은 2002년도 판본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뒤에 제시하는 본풀이 목록에 있어서는 초판 발간일을 제시하였다. 이 책의 제5부 기타 편에 ‘조상본’ 갈래로 총 12편이 수록되었다.

3)은 조상신본풀이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책이다. 『제주도무속자료사전』과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에 ‘조상신본풀이’, 『제주도무속자료사전』의 ‘당신(堂神)본풀이’, 『제주설화집성』의 조상신본풀이 관련 설화 등 기존 자료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그에 더해 김헌선이 채록하여 새롭게 제시한 10편 등 총 30편을 수록하였다.

4)는 2006년 조천읍 한 굿당에서 나흘간 벌어진 <시왕맞이>를 정리한 것이다. 동북리 출신 재일교포 정씨를 본주로 그 집안의 조상과, 정씨의 아버지, 아버지와 한 날 한 시에 희생된 동북리 4·3 희생자 136인의 영혼을 함께 청하여 해원굿을 벌인 것으로 제주의 역사를 반영한 의미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특기할 점은 이 굿에서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중 대표적인 유형의 하나인 <광청할망본풀이>를 서로 다른 심방들이 서로 다른 형식으로 거듭하여 구연한 것이다. 조상신 연구에 있어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광청할망본풀이> 1개 유형에 해당하는 10편의 이본이 수록되었다.

5)는 2008년도부터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의 대학원 학생들이 채록·전사한 결과를 묶은 자료집이다. ①에 6편, ②에 4편, ③에 13편, ④에 3편이 수록되었다. 이 자료집을 기획하면서 밝힌 ‘구연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연할 수 있는 본풀이 문서가 풍부한 심방이어야 한다. ... 둘째, 가능하면 제주도내 실제 어느 한 마을의 당을 매고 있는 당맨심방이어야 한다. ... 셋째, 대학원

강의임을 감안해 대학원생들이 채록·전사 과정에서 비교적 부담 없이 접촉할 수 있는 심방을 선정했다.²⁹⁾

즉 제주곳에서 구연하는 문서를 풍부하게 체득하고 있으며, 한 지역의 당맨심방이고, 조사자들과 부담없이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선정된 이용옥부터 양창보, 고순안, 서순실 등 네 명의 심방이 체득하고 있는 문서(본풀이)를 집중된 기간에 채록하고 전사하는 과정을 거쳐 생산된 자료들이다. 현재 제주도의 큰심방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심방들의 문서를 수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 서적들을 통하여 현재 전승하고 있는 일반신, 당신, 조상신 등 세 영역에 걸친 본풀이의 구전 양상을 광범위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심방에 따른 전승 비교도 가능하다.

6)은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 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회장으로 있는 김윤수 심방의 신굿을 정리한 것이다. 발행 시점에 비하여 채록 시점은 20여 년이 앞선 시기인 1986년이다. 풍족하지 못하였던 당시의 조사 여건으로 인하여 굿의 모든 내용을 촬영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정리한 자료 또한 결손된 내용이 적지 않다. 하지만 30여 년 전 신굿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심방의 문서로 7편의 조상신본풀이를 수록하였다.

7)은 이준춘 심방이 작고한 다음 해인 2011년에 이중춘 심방 하직굿을 벌이고 아울러 제주 큰심방으로서의 그의 삶을 학문적으로 조명하고자 발간된 자료이다. 이 굿은 이중춘 심방에 대한 연구자들의 일종의 추모 의례라 할 수 있다.

이 책 2부에 이중춘 심방의 유산으로 그가 1955년부터 기록한 잡기장이 수록되었다. 이 잡기장에는 이중춘 심방이 인연을 맺었던 136개의 단골 집안에 전승하는 조상신 내력이 기록되어 있다. 조상신을 많이 모신 집안은 8개 위(位) 이상의 조상신을 모시는 집안도 있었다. 대부분의 집안은 4~5개 위(位) 정도의 조상신을 모셨던 것으로 보인다. 단골 집안의 내력에 대한 기록에는 조상신의 신명(神名)만 나와 있기 때문에 조상신본풀이의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기록에 더해 이

29)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이용옥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53~54쪽.

중춘 심방은 5편의 조상신본풀이를 남겼다. <문동지본>, <양씨아미>, <고전적할오방>, <부대각본>, <원당할망본>이다. 이 중 <문동지본>은 기존 자료에 전혀 소개되지 않고 이 자료에만 유일하게 남겨진 조상신본풀이이다.

위 6번까지의 책들은 실제 곳 현장에서의 채록이든 혹은 인위적인 조건에서의 채록이든 연구자의 기획에 의해 생산된 자료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이중춘 심방의 잡기장은 실질적인 무업을 위하여 정리한 기록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10권의 기출간 서적에 수록되어 있는 조상신본풀이 중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료는 47개 각편과 그 이본으로 구성된 95편이다. 수록되어 있는 자료 중 서사 구조의 결핍이 너무 심해서 조상신본풀이로 특정하기 어려운 것, 곳 현장을 채록한 경우 결손 내용이 너무 많아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은 배제하고 목록을 구성하였다.

아래 목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로 발간일 순서이다. 두 번째로는 제일 먼저 발간된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 수록된 순서에 따르고, 그 순서별 각편의 이본은 다시 발간일 순으로 묶어서 이본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외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것은 개별 각편을 발간일 순으로 정리하고 그 각각의 이본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개별 자료의 제목은 각 발간 자료에 수록한 그대로 살렸다.

[표 1. 조상신본풀이 자료 목록]

유형	각편	제목	구연자	수록 자료	발간 연도
1	1	나주 기민창 조상본	안사인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
2	2	구실할망본	안사인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
	3	구실할망본풀이	양창보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2006
3	4	양이목사본	안사인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
4	5	고대장본 1(영천목스)	안사인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

	6	고대장본 2(안씨조상)	안사인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
	7	고대장본 3(기우제)	안사인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
5	8	고전적본	안사인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
	9	고전적따님아기본	양창보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2006
	10	고전적 하르바님	김윤수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2006
	11	고전적 하르바님	이용옥	이용옥심방 본풀이	2009
	12	고전적	이용옥 ³⁰⁾	제주큰굿	2010
	13	고전적	김윤수	제주큰굿	2010
	14	고전적따님아기 본풀이	양창보	양창보심방 본풀이	2010
	15	고전적따님아기 본풀이	고순안	고순안심방 본풀이	2013
	16	고전적할으방	이중춘	이중춘심방 정리노트	2013
6	17	광청아기본	안사인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
	18	광청아기본풀이	이중춘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2006
	19	광청아기본풀이	양창보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2006
	20	광청할망본풀이 ³¹⁾	서순실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2008
	21	광청할망본풀이 ³²⁾	서순실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2008
	22	광청할망본풀이 ³³⁾	이중춘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2008
	23	광청할망본풀이 ³⁴⁾	고순안 ³⁵⁾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2008
	24	광청할망본풀이 ³⁶⁾	이중춘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2008
	25	광청할망본풀이 ³⁷⁾	강순선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2008
	26	광청할망본풀이 ³⁸⁾	강순선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2008
	27	광청할망본풀이 ³⁹⁾	강순선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2008
	28	광청할망본풀이 ⁴⁰⁾	서순실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2008
	29	광청할망본풀이 ⁴¹⁾	서순실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2008
	30	김녕 송동지영감 본풀이 (광청할망 본풀이)	고순안	고순안심방 본풀이	2013
	31	광청할망 본풀이	서순실	서순실심방 본풀이	2015
7	32	선씨일월(玄氏日月)본	안사인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
8	33	(예촌)양씨아미(양씨일월)본	안사인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
9	34	양씨아미본풀이	이중춘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2006

	35	눈미 양씨아미본풀이	양창보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2006
	36	양씨애미	김윤수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2006
	37	양씨 애미	이용옥	이용옥심방 본풀이	2009
	38	양씨아미	이용옥	제주큰굿	2010
	39	양씨 아미	김윤수	제주큰굿	2010
	40	양씨아미	이중춘	이중춘심방 정리노트	2013
10	41	윤대장(尹大靜)본	박인주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
11	42	이만경(李萬頃)본	박인주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
	43	이칩 이만경 본풀이	고순안	고순안심방 본풀이	2013
12	44	선을리(善屹里) 안판관(安判官) 제주판관본	박인주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
	45	안판관 덕 산신부군	이용옥	이용옥심방 본풀이	2009
13	46	홍부일월(紅牌日月)본	안사인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
14	47	책불일월본	안사인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
15	48	산신일월(山神日月)본	안사인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
	49	산신일월	김윤수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2006
	50	산신일월	이용옥	이용옥심방 본풀이	2009
16	51	불도일월(佛道日月)본	안사인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
17	52	피쟁이조상본(황정싱본)	김오생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18	53	고도채비본	정씨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19	54	절터왓조상본	홍매화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20	55	괴성정지관본	홍매화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21	56	토산감목관본	홍매화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22	57	삼청동변씨조상본	홍매화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23	58	원당할망본	홍매화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59	원당할망본	이중춘	이중춘심방 정리노트	2013
24	60	솔할망본	홍매화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25	61	영아릿부씨조상본	홍매화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26	62	열룬이고정잇본	홍매화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27	63	이칫조상본	이달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28	64	이씨할망조상본	이달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29	65	이씨 할마님	김윤수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2006
	66	이씨 불도 할마님	이용옥	이용옥심방 본풀이	2009
	67	이씨불도	이용옥	제주큰굿	2010
	68	이씨 불도할망	김윤수	제주큰굿	2010
30	69	부대각본	양창보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2006
	70	부대각본풀이	양창보	양창보심방 본풀이	2010
	71	팽대 부대각하르방 본풀이	고순안	고순안심방 본풀이	2013
	72	부대각본	이중춘	이중춘심방 정리노트	2013
31	73	고군찬 심방	김윤수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2006
	74	고씨 어머니	이용옥	이용옥심방 본풀이	2009
	75	수양 어머니 고군찬	김윤수	제주큰굿	2010
	76	고씨 어머니	김윤수	제주큰굿	2010
32	77	철중장군	진부옥	제주큰굿	2010
33	78	통정대부 가선대부 김대봉	김윤수	제주큰굿	2010
34	79	송당 광산김씨 본풀이	양창보	양창보심방 본풀이	2010
	80	손당 김칩 선달 본풀이	고순안	고순안심방 본풀이	2013
35	81	우랭이 김씨조상본풀이	양창보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2006
	82	우랭이 김씨조상본풀이	양창보	양창보심방 본풀이	2010
36	83	우랭이 신씨조상본풀이	양창보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2006
37	84	하도 임칩하르바님 본풀이	고순안	고순안심방 본풀이	2013
38	85	웃기 감목관 본풀이	고순안	고순안심방 본풀이	2013
39	86	하도 고만호 본풀이	고순안	고순안심방 본풀이	2013
40	87	하도 부대각하르방 본풀이	고순안	고순안심방 본풀이	2013
41	88	윤칩 윤동지영감 본풀이	고순안	고순안심방 본풀이	2013
42	89	이칩하르바님 본풀이	고순안	고순안심방 본풀이	2013
43	90	한칩 한동지영감 본풀이 1	고순안	고순안심방 본풀이	2013
	91	한칩 한동지영감 본풀이 2	고순안	고순안심방 본풀이	2013
44	92	오설롱따님아기 본풀이	고순안	고순안심방 본풀이	2013

45	93	문동지본	이중춘	이중춘심방 정리노트	2013
46	94	고훈장떡남아기본풀이	서순실	서순실심방본풀이	2015
47	95	이씨불도세별조상본풀이	서순실	서순실심방본풀이	2015

위 각편들을 분류하여 빈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광청아기본>이 총 15편으로 가장 많은 채록본을 가지고 있다. 이는 15편의 이본 중 10편이 집중적으로 『동북 정병춘택 시왕맛이』에 수록된 결과이다. 이 10편의 이본은 총 4명의 심방-서순실, 이중춘, 고순안, 강순선(자료 중 구연 순서)-에 의해 구연되었다. 또한 초감제, 석살림, 군웅만판 등 다양한 제차에서 구연되었다.

두 번째로 많은 각편은 <고전적본>으로 총 9편이다. 안사인을 비롯하여, 이중춘, 양창보, 김윤수, 이용옥에 의해 구연되었다.

세 번째로 많은 각편은 <(와산) 양씨아미본풀이>로 총 7편이다. 그 다음으로는 <이씨 불도할마님>과 <부대각본풀이>, <고씨어머니(고군찬심방)>가 각 4편 씩이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자료는 주로 김윤수 심방 집안이나 김윤수 심방이 맺고 있는 단골 집안에서 불리는 조상신본풀이이다. 기존 출간된 자료를 보면, 『제주큰굿』은 김윤수 심방의 신굿 자료이고, 『이용옥심방본풀이』는 김윤수 심방의 부인인 이용옥 심방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 집안과 관련한 자료가 상대적으로

-
- 30) 『제주큰굿』에서는 ‘이정자’로 표기되어 있으나, 개명 후 본인이 ‘이용옥’을 쓰고 있으며, 본고의 자료 중 『이용옥심방본풀이』가 있어 이 이름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 31) 『동북 정병춘택 시왕맛이』에서 ‘광청할망본풀이’는 다양한 제차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송되었다. 각주마다 위 책에서 설명한 내용에 입각하여 각편이 구송된 제차를 기록하고자 한다. 31번부터 41번 각주 사이의 제차에 대한 소개는 이와 동일한 출처이다. 이 자료는 초감제>연유담음 제차에서 구송되었다.
 - 32) 초감제>젯드리앓혀살려움>군농일월들>석살림>서우제소리 제차에서 서우제소리 형식으로 구송되었다.
 - 33) 초상계>신청괘 제차에서 구송되었다.
 - 34) 석살림>신매음 제차에서 구송되었다.
 - 35) 『동북 정병춘택 시왕맛이』에서는 ‘고복자’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용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고의 자료 중 『고순안심방본풀이』가 있어 이 이름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 36) 석살림>덕담 제차에서 덕담 형식으로 구송되었다.
 - 37) 석살림>연유담음 제차에서 구송되었다.
 - 38) 석살림>덕담 제차에서 덕담 형식으로 구송되었다.
 - 39) 석살림>서우제소리 제차에서 ‘쫓인서우제’ 가락의 형식으로 구송되었다.
 - 40) 시왕맛이>초감제>오리정 신청괘>일월 청함> 서우제소리 제차에서 서우제소리 형식으로 구송되었다.
 - 41) 군웅만판>덕담>조상본풀이 제차에서 덕담 형식이 섞이면서 구송되었다.

많은 것이다.

그 외 3편의 이본을 갖는 것으로는 <나주기민창조상본>, <고대장>, <산신일월>, 2편의 이본을 갖는 것으로는 <구실할망본>, <이만경본>, <원당할망본>, <송당 광산김씨 본풀이>, <우렁이 김씨조상본풀이> 등이 있다. 이 외의 자료들은 대부분 한 편씩 채록되었다.

<나주기민창조상본>이나 <구실할망본>의 경우는 알려진 것에 비하여 채록 자료의 편 수가 적은 것이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조사 과정이 한정된 지역과 한정된 심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일 수 있겠다.

지금까지 정리한 빈도 수가 현재 제주도 내 조상신본풀이 전승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채록 과정에 있어서 지역의 분포를 고려한 것이 아니었으며, 또한 다양한 지역을 포괄하는 심방에게 구연 기회를 부여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밝혔듯이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에서 엮은 자료집은 ‘대학원생들이 비교적 부담 없이 접촉할 수 있는 심방’을 선정하여 조사한 것이다. 또한 실제 곳을 채록한 자료들의 경우도 모두 제주도 동쪽 지역-조천읍 신촌리, 구좌읍 동복리 등-의 경우이다. 그나마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과 『양창보 심방 본풀이』에 제주도 서쪽의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어 분포의 지역적인 한계를 상쇄하고 있는 점이 다행이다.

4. 연구 방향

조상신 신앙에 대한 기존 연구는 조상신의 개념을 밝히는 것과 조상신본풀이 각편에 대한 부분적인 연구로 정리할 수 있다. 조상신의 개념에 대해서는 현용준과 김현선의 연구를 통하여 정립되었다. 이제 정립된 개념을 바탕으로 조상신 신앙에 대한 연구 영역을 확대하는 일이 남아있다. 조상신본풀이 각편에 대한 한정적인 연구가 아니라 전반적인 분포 양상과 특성을 종합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이미 발표된 조상신본풀이에 대한 종합적 분석 작업이다. 본풀이에는 대상

신의 좌정 내력과 직능, 의례와 신앙민과의 관계가 모두 반영되어 있다. 본풀이를 분석하는 것으로 신앙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미 채록한 자료들조차 아직 제대로 연구되고 있지 못한 상황 탓에 전반적 특성을 일차 정리하고자 한다. 무속 신앙의 현재적 전승 양상을 조사하는 작업은 많은 이유로 인하여 어려운 일이다. 특히나 조상신 신앙은 조사자가 특정 집안의 사연을 함께 파악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조사 기회를 갖기가 더욱 어렵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채록된 자료들이 아직 그 가치를 드러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상신 신앙의 특성을 파악하는 첫 번째 작업으로 기존에 채록된 조상신본풀이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제주도 조상신 신앙의 전반적인 개념을 총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둘째, 개별 본풀이의 분석을 총괄하는 가운데 제주도 조상신 신앙을 형성한 요소를 구명해보고자 한다. 조상에 대한 숭배는 인류에게 있어 가장 역사가 긴 신앙 형태일 것이다. 제주도 조상신 신앙 또한 이러한 보편성을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보편성 속에 어떻게 제주도만의 특수한 신앙 양상이 형성되었으며,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조상신본풀이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조상신본풀이의 형성이 어떠한 요소로 이루어졌는지를 구명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II.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유형 분류

1. 분류 기준 개관

조상신본풀이의 유형은 제일 먼저 비인격신과 인격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조상신의 특성에 따른 분류이다. 비인격적 조상신의 대표적인 경우는 사신(蛇神)인 부군칠성(富君七星)이다. 그 외에 돌(미륵)이나 생활 도구인 솔도 여기에 포함된다.

인격적인 조상신은 비인격적인 조상신의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포함하는 유형이다. 인격적인 조상신은 다시 혈연 조상과 비혈연 조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제주도 조상신 신앙은 혈연 조상과 비혈연 조상 모두를 포괄하여 형성된 것이다.

조상신본풀이의 특성 중 하나는 각편의 본풀이를 단일한 기준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만큼 조상신의 성격이 다양한 특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인격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혈연 조상과 비혈연 조상의 기준에 더하여 좌정 동인(動因)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서만이 하나의 각편이 갖는 특성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고는 조상신본풀이의 유형을 두 단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구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두었다.

첫 번째, 조상신의 특성에 대한 구분이다. 이는 비인격신과 인격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격신은 혈연 조상과 비혈연 조상으로 다시 구분된다.

두 번째, 조상신의 좌정 동인에 대한 구분이다. 이는 실패 유형과 성취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구분은 인격신에 대한 구분이 될 것이다. 실패 유형은 혈연 조상과 비혈연 조상을 모두 포함하며 형성되지만, 비혈연 조상신의 본풀이에 경향성을 보인다. 또한 남성형보다는 여성형 유형에서 더 많이 확인된다. 성취(成就) 유형은 혈연 조상적 경향성을 가지며, 남성형의 유형에서 더 많이 확인된다.

2. 조상신 특성에 따른 분류

2.1. 비인격신

비인격신 본풀이에 해당하는 것은 11편이다. 총 84편인 인격신 본풀이에 비하면 각편의 수가 적은 편이다. 그러나 제주도 무속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인 사신(蛇神)이 이 영역에 포함된다. 그 외 돌미륵, 솔할망이 여기에 속한다.

일반신본풀이에 속하기 때문에 위 목록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사만이본풀이>의 경우, 뽕(해골) 숭배에 해당하는 비인격적 조상신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2.1.1. 부군칠성[蛇神] 유형

부군칠성 유형은 비인격적 조상신의 대표격으로 5개의 각편에 이본을 더하여 총 6편이다. 이 유형의 대상신은 사신(蛇神)이다. 제주도의 사신(蛇神)은 조상신뿐 아니라 <칠성본풀이>로 구연되는 일반신과 여러 지역의 당신(堂神)으로 모셔지는 다층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신(蛇神)인 조상신은 곡신이면서 재물신의 직능을 가진다. 이 유형에 속하는 본풀이는 <나주 기민창조상본>, <고대장본 2>, <선을리 안판관 제주판관본>, <이치조상본>, <우렁이 신씨조상본풀이>이다.

<나주 기민창 조상본>과 <선을리 안판관 제주판관본>은 모두 순흥 안씨 집안의 조상신인데, 전자는 조천읍 조천리를, 후자는 조천읍 선흘리를 신앙 발생지역으로 삼는다. <선을리 안판관 제주판관본>과 그 이본인 <안판관 덕 산신부군>은 <나주 기민창 조상본> 초반에 등장하는 안씨 선주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제주도로 처음 이주한 입도조(入島祖)의 내력에 관한 이야기이다.

안동에서 내려온 삼형제 중 막내 아들이 선흘리에 정착한다. 선흘리의 안씨 집안은 이 막내아들이 “귀는 작박이요 몸은 머들인 부군” 조상을 모시게 되면서 융성하게 번성한다. 그 융성하게 번성했던 시기의 한 중간에 <나주기민창 조상본>에 나오는 안씨 선주가 겹쳐진다.

<선을리 안판관 제주판관본>은 입신 출세의 덕을 주는 부군칠성조상이다. 부군칠성조상을 모시게 된 내력에서 시작하여 안판관 스스로의 출세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집안 구성원 대부분이 ‘안판관, 현씨 숙부인, 김동지 벼슬’을 받는 등 입신한 혈연 조상의 본풀이 유형까지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판관 덕 산신부군>은 산신부군 즉 수렵신으로서의 직능이 더욱 주요하게 풀이된다는 점에서 이와 차별성을 갖는다. 그러나 둘 다 부군조상을 모시는 내력이 중심 서사를 차지한다는 면에서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선을리 안판관 제주판관본>은 <고대장본> 두 번째 편과 연관되어 서사가 이어진다. 이 본풀이에서 확인되는 부군칠성 조상신의 직능은 재물·관직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 본풀이에서 부군칠성 조상신의 특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바로 ‘조상이 들고 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주 판관보다 더 높은 관직을 원한 안판관이 조상신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하자 이를 들은 부군칠성 조상신이 서운해하며 다른 집으로 떠난다. 자손이 조상신에게 서운해하면 조상신도 자손에게 서운하여 다른 집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고대장본>을 보면 이번에는 순흥에서 입도한 안씨 삼형제 중 막내인 선흘리 안씨 집안만 가난하여 고심방을 불러 굶을 벌인다. 굶이 끝난 후 안씨 집안의 부군조상이 고심방의 집안으로 건너가 고심방이 대정 현감까지 지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고대장본은 부군칠성 조상의 직능면에서 볼 때 논리에 맞지 않다. 부군조상이 집안에 있다는 것은 그 집안을 수호하여 번성하게 만든다는 것인데, 부군조상이 있던 선흘리의 막내 안씨 집안은 유독 가난했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는 위의 <선흘리 안판관 제주판관본>과의 연관 속에서만 이해 가능하다. 심방인 ‘고대장’ 집안으로 넘어간 것에 방점을 찍어 구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칩조상본>은 <나주기민창조상본>의 전개와 유사하지만 간략하다. <나주기민창조상본>이 나주기민창의 창고를 지켰던 부군조상이었던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과 달리 <이칩조상본>은 무곡에 따라온 조상인 것만 제시될 뿐 조상의 내력이 없다. 또한 어느 지역의 ‘이칩’[李氏宅]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조상신을 개념하는 요소 중 ‘어느 집안의 수호신’인가 하는 내용이 누락된 자료라 할 수 있다.

<우렁이 신씨조상본풀이>에서 신씨 집안에서 모시게 된 조상신은 ‘베염’[뱀]이 맞다. 그러나 이 본풀이는 부군칠성의 내력에 대한 서술 내용은 단 한 줄에 그친다. 이 유형으로도 분류할 수 있지만 성취 유형의 남성입무담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

2.1.2. 돌(미륵) 유형

돌(미륵)을 조상신으로 모시는 유형은 <선씨일월본(玄氏日月本)>과 <이칩 하르바님 본풀이>로 2편이다. 2편 모두 미륵은 바다에서 건져올려지는 존재이다.⁴²⁾ 또한

두 본풀이에서 보여지는 의례는 다른 조상신본풀이가 갖는 보편적인 의례와는 다른 양상이다. 무속 신앙 의례인 굿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 민간 신앙 의례를 택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선씨일월본(玄氏日月本)>은 ‘화북(現 제주시 화북동) 큰 안씨댁’으로 전승하는 조상신본풀이이다. 모시는 조상신은 은진미륵이 변한 섭돌이다. 주요한 직능은 그 집안의 액운(厄運)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다.

이 본풀이에서는 제일 먼저 화북 큰안씨 집안의 셋째아들과 넷째아들에 있어 혼란이 있음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미륵을 건지는 아들은 넷째이고, 그 이후 모든 서사를 끌어가는 아들은 셋째로 나오는 점에서 혼란이 있다. 중간에 주체가 바뀌었다는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건져낸 아들과 지켜낸 아들은 동일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 서사무가의 구조에서 주인공이 대부분 삼형제 중 ‘말젓아덜’(막내아들), 혹은 세자매 중 ‘말젓똥아기’(막내딸)로 설정되는 점을 보더라도 셋째가 맞으며 넷째는 잘못된 발화이거나 착각인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주요 인물인 화북 큰안씨 집안의 셋째 아들은 문맹이고 무식하여서 가족 구성원 중 부모의 눈 밖에 났던 인물이다. 그러나 가장 미천했던 인물이 은진미륵을 건지고, 그 미륵에 써있던 대로 백 일 동안 미륵을 지켜내었던 보상으로 섭돌로 변한 조상신을 맞이한다. 거기에 더하여 은진미륵을 닮은 여인과 결혼도 하게되고, 삼형제를 낳으니 모두 큰 벼슬에 올랐다.

<이칩 하르바님 본풀이> 또한 바다에서 건진 돌미륵이다. 신체(神體)에 있어서는 <선씨일월본>과 동일해 보인다.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크기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칩 하르바님이 돌미륵을 조상으로 인식하고 일반적으로 조상신을 모시는 공간인 ‘안고팡’(안창고)에 모셨으나 계속하여 집안에 재앙이 발생한다. 이에 점을 쳐보

42) 이와 관련하여 이원영은 돌미륵의 신체로 등장하는 여당신의 해신적 성격에 대하여 논하였다. 또한 조현설은 동아시아 돌 신화에 나오는 돌을 모석으로 인식한 것에 대하여 밝힌 바 있다. 이원영, 「제주 여성당신의 해신적 성격과 존재 양상」, 『한국무속학』 33집, 한국무속학회, 2016. ; 조현설, 「동아시아의 돌 신화와 여신 서사의 변형」, 『구비문학연구』 36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3.

니 곳을 해야 하며, 돌미륵 조상은 오합상자에 넣어 귀금속으로 나전하듯 꾸며 모시고, 바다에 ‘지’를 바쳐야 한다는 답을 받게 된다.⁴³⁾ 즉, 오합상자에 넣을 수 있는 정도의 돌미륵이라는 점에서 위의 유형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또한 단순히 조상신을 모시는 것만으로는 조상의 가호를 받을 수 없고, 나전을 하듯이 아름답게 꾸며야 한다는 점, 돌미륵을 건져올린 바다에 대해서도 의례를 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함을 보이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즉 돌미륵 등 신체(神體)를 모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성을 바쳐 조상을 위해야 한다는 것이다.

돌(미륵) 유형은 당신양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제주시 동광양 지역의 미력당, 조천읍 와산리 불돛당이 ‘돌’을 대상신으로 삼고 있다. 미력당의 경우는 신체에 있어서는 위 두 유형과 동일한 미륵신이다. 그러나 직능에 있어서 조상신이 아닌 당신의 직능이라 할 수 있는 포태·양육을 중심으로 한다는 면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와산리 불돛당 또한 포태·양육을 중심적인 직능으로 삼고 있다.

2.1.3. 솔 유형

표선면 하천리 강씨 집안에 전승되는 <솔할망본>이다. 식생활 도구 중 대표적인 ‘솔’을 조상신으로 모시게 된 경우이다. 이 집안의 한 조상이 바닷가에서 솔을 주워왔는데 특이한 점은 아무리 불을 지피고 물을 끓여도 전혀 물이 끓지 않는 것이다. 즉 그 도구가 갖는 원래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그냥 창고에 버려두었는데, 어느 날 솔할망이 현몽하여, 자신을 용궁에서 온 존재라고 밝히고 조상으로 모시라고 이른다. 그래서 그 솔을 솔할망이라 칭하며 조상신으로 모신 후 강씨 집안은 자손 대대로 큰 관직에 오르고 크게 번성하였다.

하천리 강씨 집안에서는 현재까지 이 조상신을 모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무속 신앙으로서가 아니라 가신제의 하나로 전승하는 양상이고, 기일 제사에 문전상을 차려놓듯이 창고에 상을 차려올리는 것으로 의례를 대신하고 있다.⁴⁴⁾

43)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772쪽. “지아림 : <지드림>이라고도 한다. 영등굿 또는 기타 바다와 관련 있는 곳에서 굿을 끝내고 용왕이나 바다에서 죽은 영혼들에게 대접하는 의미로 백지에 여러 가지 제물을 조금씩 싸서 바다에 던지는 행사를 말한다.”

44) 강○○, 男, 서귀포시 하천리 거주. 하천리에 사는 제보자 강○○씨는 현재 40대 후반인데 어렸을 때부터 집안 어른들에게 솔할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고 하였다.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도 집안의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준다고 한다. 보통은 명절 때나 기일 제사 때 창고에

2.2. 인격신

인격신 본풀이는 총 84편으로 조상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유형은 다시 하위 구분으로 비혈연 조상과 혈연 조상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인격신에 포함되는 본풀이는 조상신 좌정 동인에 따른 분류에서도 구분하여 분석할 것이다.

비혈연 조상 본풀이는 20편, 혈연 조상 본풀이는 63편이다. 위 목록 중 이중춘 심방의 잡기장에 수록된 <문동지본>의 경우 인격신이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서사구조의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전승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혈연 조상과 비혈연 조상의 구분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2.2.1. 비혈연 조상

비혈연 조상 유형에 속하는 본풀이는 총 20편으로 <광청아기본>, <절터왓조상본>, <월당할망본>, <송당 광산김씨 본풀이> 등의 각편이 여기 속한다. <송당 광산김씨 본풀이>를 제외한 다른 각편은 모두 좌정 동인에 따른 분류에서 ‘실패(失敗) 유형’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 유형들에 대한 분석은 좌정 동인에 대한 분류에서 다루고자 하며, 여기서는 원사의 결말을 맺지 않는 <송당 광산김씨 본풀이> 각편에 대해서만 정리하도록 하겠다.

이 각편은 송당의 광산 김씨댁에 전하는 ‘백정놀이’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까지 채록된 자료는 <송당 광산김씨 본풀이>와 <손당 김칩 선달 본풀이> 두 편이다.

본풀이는 송당 지역의 광산 김씨 집안에 원한을 갖게 된 광대들이 그 집안에 저주를 내린 것에서 시작한다. 광대들의 저주로 인하여 그 집안의 딸들이 대대로 정신적인 질병을 앓게 된다. 저주를 푸는 방법으로 ‘백정놀이’라는 이름의 의례가 생긴다. 이를 통하여 광대들의 신원(伸冤)을 이루고 광산 김씨 집안의 고난을 해결하였다. 이러한 내력으로 이 마을에서 굿을 할 때는 반드시 굿놀이로 ‘백정놀이’를

상을 올리는 것으로 의례를 다한다. 그런데 제보자의 형은 사업을 하는 집으로 해마다 신년에 술 할망을 위한 제를 크게 지낸다고 한다. 그러나 이 또한 무속 신앙적 의례는 아니라고 관념하고 있다. (2017년 9월 11일 하천리 강○○씨 댁에서 조사.)

행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구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백정놀이’에 대한 전승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과거 급제자를 위한 축하행사인 ‘문희연(聞喜宴)’에 대한 기록에서 ‘광대놀음’이 이뤄진 것은 확인할 수 있다.⁴⁵⁾ 뒤에 나올 <운대장본>에서도 ‘광대놀음’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고 있다. 여기서 소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서 모시는 의례의 형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백정들의 생업 수호신을 모시는 ‘거무영청굿’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정놀이’라는 명칭이 의례의 형식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또한 백정은 당시 천민의 대표격 신분이었다. 광대 등의 천민을 박해한 것에 따른 원한이며, 그 원한을 풀어주는 놀이로서 이러한 명칭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송당 지역 상단골인 제보자에게서 조사된 ‘광대굿’에 대한 전승이 있다.⁴⁶⁾ 의례의 공간이 송당 지역의 ‘찻데거리’라는 점과 광대들이 주된 인물로 등장하는 점이 위 두 편의 본풀이와 동일하다. 다만 서사 구조에 차이가 있다. ‘광대굿’에 대한 제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광대놀음을 온 광대 중 한 명과 송당 김씨 집안의 딸이 서로 연정을 품게 된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광산 김씨 집안은 그 광대를 마을에서 내쫓았는데 배가 난파되어 광대가 억울하게 죽는다. 그 억울한 광대 귀신이 송당 마을로 돌아와, 광산 김씨 집안의 딸과 아들에게 빙의하여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하였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위 본풀이 유형과 동일한 전승의 이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제보의 내용은 전승하는 본풀이와는 달리 원사의 결말을 맺는다. 또한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백정놀이’보다는 ‘광대굿’이 더 정확한 명칭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된다. 전승하는 본풀이는 양창보 심방의 구연본이다. 그러나 양창보 심방은 송당 지역의 당맨심방으로 활동한 내력이 없다. 반면에 ‘광대굿’의 제보자는 송당 지역의 상단골 집안의 구성원이다. 제보의 내용이 더욱 구체적이며, 고대중 심방이 매인심방을 그만두면서 이 전승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실제적인 내력까지 제보하고 있는 점을 보아 이것이 일차적인 전승일 수 있겠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45) [관우희], 출처: 한국민속대백과사전

46) 김승연, 「제주도 송당마을 본향당의 굿과 단골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2.2.2. 혈연 조상

혈연 조상을 다루고 있는 본풀이는 전승 목록 총 95편 중 63편으로 절반을 훨씬 넘는 수이다. 이러한 만큼 뒤에서 분류할 조상신 좌정 동인으로 구분한 실패 유형과 성취 유형을 동시에 포함한다. 앞서 밝힌 비혈연 조상이 주로 실패의 유형을 다루고 있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실패 유형과 성취 유형은 각각 48편과 35편으로 거의 동일한 비중을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비혈연 조상 분류 20편은 모두 실패유형이다. 결국 혈연 조상의 경우 성취 유형이 35편으로 혈연 조상 중 실패 유형인 28편에 비하여 더 많은 수를 확보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혈연 조상 중 실패 유형은 그 좌정 동인에 있어서 혈연이 갖는 의미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러한 반면 혈연 조상 중 성취 유형은 특정 집안의 혈연 조상 중에서 가문을 새로이 일으킨 중시조(中始祖)적인 인물이 다수 차지한다. 또한 생업 수호신의 경우는 특정 집안의 특정 직업에 대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혈연 조상을 주된 근거로 삼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혈연 조상을 다룬 조상신본풀이가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뒤에 나올 성취 유형 분류에서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3. 조상신 좌정 동인(動因)에 따른 분류

3.1. 실패(失敗) 유형

이 유형은 본풀이의 주요 인물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끝내 원사(冤死)의 결말을 맺는다. 그리고 그 인물의 원한을 해결한 후에 조상신으로 좌정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 유형이 형성되어진 배경에는 원한을 갖고 죽은 영혼이 인간사에 범접하여 흉험을 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원사에 이르는 동기는 다양하지만 그 원한의 한을 신원(伸冤)해야 한다는 한민족의 영혼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가문의 번성을 꾀하게 된다는 관념이 이 유형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 유형에는 총 48편이 속한다. <양이목사본>, <고전적본>, <광청아기본>, <(예촌)양씨아미본>, <눈미 양씨아미본풀이>, <절터왓조상본>, <원당할망본>, <이씨할망조상본>, <이씨불도할마님>, <부데각본> 등이다.

위 본풀이 중 비혈연 조상의 경우는 <광청아기본>, <절터왓조상본>, <원당할망본>이며, 혈연 조상의 경우는 <양이목사본>, <고전적본>, <(예촌)양씨아미본>, <눈미 양씨아미본풀이>, <이씨할망조상본>, <이씨불도할마님>, <부데각본> 등 20편이다. 혈연 조상의 유형이 28편으로 비혈연조상에 비하여 8편이 많지만, 전체 목록에서 혈연 조상이 비혈연 조상의 3배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유형 내에서 비혈연 조상이 갖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목록을 원사(冤死) 동기(動機)를 기준으로 나누면 애정(愛情) 실패담과 입무(入巫) 실패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유형 모두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본풀이이다. 직접적인 동기는 애정 관계와 입무 과정에 따른 점으로 내용을 달리 하지만 여성 신분에 대한 차별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3.1.1. 애정 실패담

<고전적본>, <광청아기본>, <이씨할망조상본>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본풀이들은 모두 한반도 본토로 간 제주 남성과 한반도 본토 여성과의 인연에서 시작한다.

<고전적본>의 경우는 고전적과 한양고을 기생 ‘한양일월’과의 인연, <광청아기본>은 송동지영감과 광청고을 광청아기의 인연, <이씨할망조상본>은 김씨하르방과 김씨하르방이 과거 보러 육지에 가서 유숙한 주막의 이씨할망과의 인연이 서사의 발단이다.

앞의 두 경우는 끝내 제주도에 입도하지 못하고 죽은 원혼이 고전적과 송동지영감의 딸에게 빙의하면서 비극이 극대화된다. 이와 달리 이씨할망의 경우는 성공적으로 제주도에 입도하지만 결국 병으로 죽어 그 원혼이 김씨하르방 본인에게 빙의하는 내용으로 앞의 두 편과 차이를 갖는다.

유사한 구성을 보인 <고전적본>과 <광청아기본>의 경우에도 결말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고전적본>의 고전적은 끝까지 양반 가문을 지키고자 딸을 지켜내지 못한다. 그뿐 아니라 본인을 포함하여 관계된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다. 그러나 <광청아기본>의 송동지영감은 딸에게 빙의된 원혼

을 바로 해원(解冤)하게 하여 자신의 딸을 지켜내고 집안 또한 번성하게 만든다.

애정 실패담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본이 있다. 그만큼 전승력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창보가 구연한 <광청아기본풀이>는 다른 각편들과는 달리 유숙하는 지역이 충청도 예산이다. 다른 본풀이에 나오는 ‘광청아기씨’라는 이름이 미상(未詳)의 광청고을이기 때문인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양창보 구연본에서 ‘광청’이라는 이름은 지역명에 근거하지 않고 ‘광청[廣窓]’을 달아놓은 방에 아기씨가 있었기 때문에 명명된 것으로 구연된다. 이 본풀이의 인물은 ‘예산 예동지 집안의 따님아기씨’이다. 또한 제주에서 간 남성도 ‘김녕의 송동지영감’이 아니라 ‘함덕의 손동지영감’이다. 광청아기의 원혼이 제주도에 와서 빙의하는 대상 또한 김녕 한사공의 세 딸이라는 점도 다른 <광청아기본>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본풀이 내에서 주된 인물이 변화하여 전승되는 이유를 찾아보면 두 가지 정도를 짚을 수 있다. 조상신을 모시는 특정 단골 집안의 변화와 채록본을 구연한 심방의 영향이라 할 것이다.

먼저 단골 집안의 변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특정 집안의 조상신 덕으로 그 집안이 잘되면 마을의 다른 집안에서 그 조상신을 모셔가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모셔간 집안의 사정에 맞추어 본풀이가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는 심방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위의 <광청아기본>과 유사한 경우가 뒤에 제시할 성취 유형에 속하는 <구실할망본>이다. 이 각편의 양창보 구연본은 신촌리의 나주 김씨 집안이 아니라 김해 김씨 집안으로 변이된 전승을 보여준다. 앞서 밝혔던 송당의 ‘광대굿’은 집안은 동일하지만 서사의 내용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변이 전승 양상은 구연자인 심방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당본풀이는 그 지역의 당맨심방에 의해 전승되고, 조상신본풀이는 특정 집안의 단골심방에 의해 전승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이 두 경우는 동일한 심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창보 심방은 송당리는 물론 신촌리나 동김녕리의 당맨심방도 아니었다. 그 지역의 당맨심방이 아닌 심방이 구연하는 가운데, 다른 지역의 본풀이 구조와 혼합되는 양상을 가졌던 것으로 본다.

<이씨할망조상본>은 ‘모실개 이칩조상본(모슬개 이씨 덕 조상본)’이다. 서사 구조를 보면 ① ‘김씨 하르방’이 과거를 보러 서울에 가는 길에 주막에 유숙한다. ② 과거를 보고 돌아가는 김씨 하르방을 그 주막의 이씨 할망이 제주도까지 따라온다. ③ 일 년 후에 이씨 할망이 병으로 죽는다. ④ 이씨 할망의 원혼이 김씨 하르방에 빙의되어 김씨 하르방이 아프게 된다. ⑤ 병의 원인이 이씨 할망의 빙의 때문인 것을 알고 이씨 할망을 조상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광청아기본>의 인연을 맺는 방식, <구실할망본>의 제주 이주 등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모여 형성된 예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애정 실패담 유형은 한반도와의 교류를 본풀이의 시대적 배경으로 삼는다. 또한 애정 관계의 실패가 원혼으로 쌓여 그 원혼의 위해를 막고자 하는 한반도의 영혼관이 근원적 관념으로 바탕한다. 그 신원(伸冤)의 과정을 통하여 조상신에 좌정하게 되는 공통적 특성을 갖는다.

3.1.2. 입무 실패담

<(예촌)양씨아미본>, <눈미 양씨아미본풀이>, <원당할망본>, <이씨불도할마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실패한 여성 입무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여성이 입무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하거나, 여성이 무업(巫業)을 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장애에 부딪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씨아미 본풀이>는 하례리(예촌)와 와산리 두 지역에 동일한 명칭으로 전승되는 본풀이이다. 여성의 입무담(入巫談)이며 비극적 결말을 맺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전개 양상은 상당히 다르다.

예촌에서 전승되는 <양씨아미 본풀이>는 가족의 반대에 부딪히는 일반적인 여성 입무담의 특성과 다르게 입무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인 오빠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오빠가 양씨아미를 돕는 과정에서 비극적인 죽음에 이르고, 이 때문에 양씨아미도 스스로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구성이다. 과정의 차별성은 있으나 끝내 입무에 실패한다는 점에서 이 유형의 특성을 넘어서지는 못한다.

<눈미 와산 양씨아미 본풀이>는 세 오빠 중 큰오빠의 극심한 반대로 끝내 입무에 실패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다. 이 경우 반대의 이유가 <고전적본>과 동일하다. 양씨아미의 큰오빠는 양반 가문을 지키기 위하여 동생을 살해하는 지독함을 보이고 있다.

<원당할망본>의 경우도 원당할망이 죽어간 근본적인 이유는 위와 동일하다. 강씨 대감이라는 양반이 개인의 욕구를 위하여, 장애 없이 무업을 하고 있던 원당할망을 몰래 데려와 결국 비극을 맞이하게 한다. 원당할망의 의례는 이례적으로 칠성부군을 위하듯 안고팡과 뒤꼍에 상을 모셔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경우 부군칠성의 신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본풀이 말미에 나오는 “양반광 곶이 기일제스 스명질을 받아먹을 수 엇노라.”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신분 차이가 반영된 의례의 구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⁴⁷⁾ 그리고 그 본질은 유교적 가치관의 남성과 무속적 가치관의 여성으로 대립되는 신앙 차이의 갈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상신본풀이에 등장하는 여성 입무담은 거의 동일하게 비극적 결말을 맞는다. 무업이 장애 요소로 보이지만 그 본질을 보면 그 당시 신분 사회의 문제가 반영되어 있다. 천민으로 인식되었던 무업을 하는 신분이면서 거기에 더하여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이렇듯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여성 입무담이 갖는 또 하나의 동일함은 강신(降神)에 의한 입무 과정이다. <원당할망>의 경우는 이 과정이 드러나지 않으나, 두 양씨 아미의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심방으로 타고난 것으로 그려져 있다. <이씨불도할마님>의 경우는 스스로의 치성에 의하여 강신하는 과정이 그려진다. 이는 ‘신물(神物)’의 힘으로 입무하게 되고, 비극적 결말이 아니라 크게 성취하는 결말을 맺는 남성 입무담과는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

여성 입무담이지만 다른 양상을 보이는 <고훈장뚝님아기본풀이>가 있다. 결론적

47)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694쪽. “양반과 같이 기일제사, 사명질을 받아먹을 수 없노라.” 즉, 양반택에 첩으로 들어갔으며 게다가 심방이기 때문에 신분 상 양반과 함께한 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의미에서 별도의 제의 공간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으로 이 본풀이는 성취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그 성취의 동인이 본인에게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남성인 김씨하르방의 도움으로 입무에 성공하는 경우이다.

고훈장따님아기 또한 김씨하르방을 만나기 전 가족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다. 결국 무쇠설갑에 갇혀서 바다에 버려지는 고난을 맞는다. 그러나 김씨하르방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그와 부부의 연을 맺은 후 입무에도 성공하게 된다. 본풀이 말미에 고훈장따님아기는 자신을 살려주고 결혼까지 하게 된 김씨하르방의 집안인 김해 김씨댁에는 대대로 심방 자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팔자를 그르치는 심방 자손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으로 집안의 번성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하게 본다면 이 본풀이는 입무에 성공하고 자손의 번영을 약속한 것으로 전형적인 성취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그 이면에는 무업을 부정하는 관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표면적으로 입무에 성공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결국 여성 무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후대의 변이로 볼 수도 있다. 조선 후기 무속(巫俗) 탄압 정책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심방 스스로 '팔자를 그르친다.'는 자기 비하의 사유가 형성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이 본풀이 또한 본질적인 관념에 있어서는 다른 여성 입무담과 동일한 인식의 지점을 보이고 있다.

3.1.3. 기타 실패담

실패 유형 중 남은 것은 <양이목사본>, <절터왓조상본>, <부데각본>이다. 이 세 편은 각기 다른 유형으로 하나의 갈래로 묶기 어려운 경우이다.

<양이목사본>은 조상신 좌정의 동인이 실패 유형에 속하는 본풀이이다. 양이목사는 탐라양씨(耽羅梁氏) 명월파(明月派)의 혈연조상으로 그 집안의 조상신으로 좌정하였다.

옛날 제주에서 중앙으로 일년에 한 번씩 백마 백필을 진상하는 습속과 관련하여 이를 타파하고자 하는 양이목사의 노력이 끝내 참수라는 결말을 맺는다. 양이목사의 원한과 백마 백필 진상을 면하게 한 영웅적인 이야기가 함께 전승되는 내용이다. 그런데 본풀이 초반을 보면 양이목사가 진상품으로 모여진 말을 모두 개인적으로 취하는 내용이 나온다. 초반과 후반의 양이목사의 행태가 전혀 다른 것이다. 이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에 나온 기록과 탐라양씨 명월파의 전승 내용이 상이한 것과 동일한 양상이며, 뒤에 상론하고자 한다.

이 본풀이는 원사의 동인을 가진 실패 유형과 실존 인물 유형을 동시에 특성으로 삼는 경우이다. 그런데 실존 인물로서의 양이목사본을 분석하는 것이 이 본풀이의 특성을 드러내는데 더욱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성취 유형 중 다른 실존 인물에 대한 본풀이와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절터왓조상본>은 원사에 이르는 주체가 ‘육관대사’, 즉 불교 사제자이다. 육관대사는 <구운몽>의 인물이면서 제주곳의 젓드리에서 절 차지 신으로 언급되는 존재이다. 강씨 성방과 오씨 부인이 아이를 얻기 위해 육관대사를 청하고 절을 짓는다. 육관대사는 강씨 성방 집안의 기자(祈子) 치성을 드리고 자신의 본사(本寺)로 가던 도중 수증고혼이 되었다. 그후 이 집안에서는 불도천신 일월연맞이를 할 때 반드시 육관대사를 조상신으로 모신다는 내용이다. 무속 의례를 행하면서 불교의 사제자를 조상신으로 모시는 경우로, 무속의 타종교에 대한 수렴성을 보여주는 한 예일 수 있겠다.

<부데각본>은 한반도 전국에 퍼져있는 광포설화인 ‘아기장수 설화’ 유형이다. 평대가 신앙 발생 지역이다. 양창보 구연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데각은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 삼형제 모두 힘이 장사라, 소에게 풀 먹이러 나가서는 그 소를 서로 던지면서 장난을 칠 정도였다. 큰아들이 15세쯤 부데각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 아버지는 삼형제가 자고 있는 사이 뜨거운 인두로 삼형제 겨드랑이에 있는 날개를 지져버린다. 위로 두 형은 죽고 셋째 부데각만 살아남는다. 나라에는 국마(國馬)가 있어 사람을 헤쳐서 이 말을 잡는 사람에게 천금상을 봉한다는 방이 붙는다. 부데각은 한양으로 가서 이 국마를 잡아 바치고, 군사 삼천 명과 군함 서른세 척을 받는다. 이 군사를 갖고 대국을 치기 위하여 가기 전 선조와 부모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제주에 들어온다. 이 사실을 안 부씨 집 사람들은 부데각의 장수의 기운을 막기 위하여 선산에 있는 장군모양 바위를 부순다. 바위가 부서지자 부데각은 실명을 한다. 장수가 기운을 잃자 군사들이 모두 굶어죽을 위기에 빠진다. 그러자 부데각은 자신이 죽어야 군사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무

쇠방석에 앉아 바다에 가라앉는다. 부씨 집에서는 부데각의 헛봉분을 세우고 일년에 한 번 묘제를 지내며 부데각을 기리고, 그 집안에서 굿을 할 때는 반드시 부데각을 위하는 법을 전승하고 있다.

<부데각본>은 ‘날개달린 아기 장수’ 유형으로 출생부터 비극을 안고 탄생한 경우이다. 사회적 관념에 의하여 살해당하는 전형적인 실패담이다. 현길언은 제주의 아기장수 설화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제주의 아기장수형 전설은, 아기장수가 전적으로 거부되는 경우, 아기장수의 날개만이 거부되는 경우, 아기장수를 수용하는 세 유형으로 각각 변이되었다는 사실이 특이하다. 아기장수가 전적으로 거부되는 경우는 본토와 같이 낳자마자 죽음을 당하거나 또는 그 조상의 묘를 단혈함으로 아기장수가 몰락한다. 둘째의 경우는 부모등에 의해 아기장수의 날개만 제거하고 그 인물은 수용한다. 그들은 장수(將帥)가 아닌 장사(壯士)로서 세상을 살아나간다. 셋째 유형은 부모들이 아기장수의 비밀을 숨겨버린다. 그러므로 그들은 장수로서 행세하질 못하거나 아니면 반역의 장수가 되어 난을 주도한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성공하지 못한 채 몰락한다.⁴⁸⁾

조상신본풀이로 전하는 <부데각본>은 대부분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 부모에 의해 날개가 지저진 채 살아남은 부데각이 장사의 삶을 살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 그 비극적인 삶을 위무하기 위하여 그 집안에서 조상신으로 모시게 된 경우이다. 아기장수 설화 유형의 인물이 조상신으로 모셔지는 경우는 현길언이 지적한 제주도 아기장수형 전설의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현길언은 제주의 아기장수 설화 유형이 한반도 본토와는 다르게 “특정한 시대 특정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서 인물전설로 정착하게 되었다.”고 정리하고 있다.⁴⁹⁾ 아기장수 전설과 유사한 비극적 주인공 이야기는 전설로 정착할 수도 있지만, 그 비극적 성격으로 인하여 신화적 지위를 획득하면서 이와 같이 신앙서사시로 전승하기도 한다. 양이목사도 그렇지만, 남성형이면서 실패담 유형에 속하는 경우는 개인적인 동기 보다는 사회적 경향의 동기를 특성으로 삼는다.

48)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흥성사, 1981, 124쪽.

49)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135쪽.

<부데각본> 외에도 전설 유형의 본풀이가 몇 편 존재한다. <우렁이신씨본풀이>와 <오설룡 따님아기 본풀이>가 그렇다. 전자는 부군칠성을 조상신으로 모시는 비인격신 유형이면서, 그 조상을 모시게 된 신첩 하르바님은 심방이 되는 남성 입무담 유형에 속한다. 동시에 여성장사 설화 전승과 유사한 서사를 갖는 각편이다. 후자의 경우는 여성형 실패 유형이면서 초반 서사는 ‘여우 누이’ 설화를 닮았다. 오설룡 집안에 자식이 없다가 귀하게 얻은 딸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그 딸이 아주 어릴 적부터 밤마다 집안의 말을 잡아먹는 것을 알고 손발을 잘라서 대정 지역에 버렸다. 죽을 줄 알았던 딸은 그 마을 어느 집 첩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결국 외로이 죽게 되고 죽은 영혼이 친정으로 돌아온다. 다시 딸이 죽어나가자 오설룡따님아기의 원혼을 산신일월로 모시라는 점복을 받고 조상신으로 모신 후부터 이 집안을 부자로 만들어주었다는 본풀이이다.

두 각편 모두 특별한 전승을 갖는 유형이다. 그러나 <우렁이신씨본풀이>는 남성형의 성취 유형이고, <오설룡 따님아기 본풀이>는 여성형의 실패 유형인 점에서는 다른 본풀이의 특성과 동일한 범주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성취(成就) 유형

이 유형은 생업의 영역에서 걸출한 성취를 이루어내어 조상신으로 좌정한 경우이다. 조상신을 신앙하는 신앙민들에게 그들이 기원하는 모범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관직과 재물을 동시에 얻어 집안을 번성하게 한 조상이다. 그런데 이 유형에 속하는 본풀이는 전승하는 집안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본풀이의 내용 또한 간략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면에서 실패 유형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실패 유형과 같이 조상신이 고난을 당하고 원사의 결말을 맺는 과정을 풍부한 서사구조로 표현한 것과는 다르며, 관직명이나 직업의 성격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유형에는 총 32편의 본풀이가 포함되어 있다. <구실할망본>, <고대장본>, <운대장본>, <이만경본>, <홍부일월본>, <책불일월본>, <산신일월본>, <불도일월본>, <피쟁이조상본>, <괴성정지관본>, <토산감목관본>, <삼청동변씨조상본>, <열룬이고정잇본>, <고군찬심방>, <철중장군>, <통정대부 가선대부 김대봉>, <우렁이 김씨조

상본풀이>, <웃기 감목관 본풀이>, <하도 고만호 본풀이>, <하도 부데각하르방본풀이>, <윤칩 운동지영감 본풀이> <이칩 하르바님 본풀이> <고훈장떡님아기본풀이> <이씨불도세별조상본풀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위 본풀이 중 비혈연 조상은 한 편도 포함되지 않는다. 모두 혈연 조상의 경우이다. 또한 24개의 각편이 이본을 포함하여 총 32편으로 전승된다. 즉 대부분 개별의 각편이 이본 없이 거의 독립적으로 전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유형은 관직 성취담, 무업 성취담, 직업 성취담으로 구분할 수 있다.

3.2.1. 관직 성취담

관직을 성취하여 집안의 번성을 이룬 혈연 조상이 그 집안의 조상신이 된 경우이다. 이 경우 대부분 그에 따르는 부(富)를 함께 이루었다. 좌정의 주된 동기가 관직인 경우를 이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구실할망본풀이>, <윤대장본>, <이만경본>, <토산감목관본>, <삼청동변씨조상본>, <열룬이고정잇본>, <철중장군>, <통정대부 가선대부 김대봉>, <웃기 감목관본풀이>, <하도 고만호 본풀이>, <윤칩 운동지 영감본풀이> 등이 여기에 속한다.

<구실할망본>은 ‘서울 서대문 밖 허정승의 딸’에 대한 본풀이이다. 허정승 딸은 집안에서 내쫓김을 당한 경우이다. 우연히 김씨 사공과 만나 제주도 입도에 성공한다. 구실할망은 한반도 본토에서 건너 온 이주민이지만 제주에 들어와 나주 김씨 집안의 김씨 사공과 혼인하여 집안을 일으킨 인물이기에 혈연조상 유형의 조상신으로 분류할 수 있다. 김씨 사공 집에 들어와 본인의 수고로운 노동으로 인해 신분 상승과 재산을 동시에 이루어낸 경우이다. 가문의 번성을 지킨다는 점에서 조상신의 직능을 보여준다.

<구실할망본>은 한반도 본토에서 이주한 여성 중 원사의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조상신으로 좌정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원사(冤死)의 고난을 당하여 스스로가 신으로 좌정한다. 혹은 이와 다르게 그 원사(冤死)의 동기가 되는 남성 집안의 딸이나 며느리에게 빙의하여 그 여성들이 신으로 좌정하는 서사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구실할망본>의 경우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성취 유형의 전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 본토에서 이주한 여성이면서 성취 유형인 조상신은 구실할망이 거

의 유일하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이는 ‘내쫓김(기아)-고난-고난극복’이라는 전형적인 고대 여성영웅서사시의 구조와 닮아있다. 이에 대하여 허남춘은 제주신화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원시와 고대의 신화가 고대 남성 중심의 신화체계로 재편된 우리나라 대부분의 신화에는 여성 신화가 빈약한 편이다. 그런데 만 년 전부터 오천 년 전까지 모계중심 사회가 전개될 당시의 신화체계를 지니고 있는 제주도에는 여성신화가 풍부하다. … 여성 중심 사회가 남성 중심 사회로 바뀌면서, 여성영웅은 사라지거나 죽고 남성영웅이 등장하는 현상을 찾았다.⁵⁰⁾

이러한 양상의 흔적은 조상신본풀이 중 여성형 본풀이의 변화 양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 중 <구실할망본>의 경우, 실패 유형에서 보이는 육지 여성의 제주 이주가 실패담으로 끝나는 중세적 신화 구조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이본풀이가 철저히 모계(母系) 중심의 전승을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형적 신화체계를 간직하고 있는 흔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지영감과 구슬할망이 혼인을 하여 집안을 이루었으나 제사를 지내줄 아들이 한 명도 낳지 못하였다. 오직 딸만 아홉을 낳았고, 구실할망 스스로가 그 딸들에 의해 모셔지기를 원하였다. 즉, 나주 김씨 집안의 딸로 한정하여 전승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전승 양상을 통하여 조상신 신앙의 전승이 부계(父系) 뿐 아니라 모계(母系)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제주도 조상신은 특정 집안을 경계로 하여 전승되는 그 집안의 수호신이다. 특정 집안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씨(姓氏)를 바탕으로 한 부계적인 전승을 의미한다. 위에서 목록으로 제시한 조상신본풀이의 대부분은 이러한 부계(父系) 전승을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모계로 전승되는 본풀이는 특별하며 <구실할망본> 외에 <이씨불도세별조상본풀이>가 있다. <토산감목관본>의 경우 부계(父系)와 모계(母系) 양쪽 모두 전승되는 경우이다.

서순실 심방이 구연한 <이씨불도세별조상본풀이>는 책불일월 중 한의(韓醫)에 속

50) 허남춘, 『설문대할망과 제주신화』, 민속원, 2017, 29쪽.

하는 경우로 김녕 이씨 댁에 전해오는 조상신이다. 이 조상신은 이씨 댁 딸들로 인하여 전승하고 있다는 것을 본풀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전(御殿)에 가 벼슬을 살고 내려오던 이씨 댁 하르바님이 제주도에 오던 중 파선 지경에 이른다. 용왕에게 빌어 청룡과 황룡의 수호를 받으며 겨우 제주에 안착한다. 그런데 용의 머리에 꽂힌 한의(韓醫)의 침(鍼)을 뽑지 않고 그냥 보내어 이씨 댁 하르바님은 병에 걸린다. 자신에게 ‘태운조상’을 알아보지 못한 죄과(罪過)이다. 굶으로 흉험을 풀어낸 후 이 집안에는 명의(名醫)가 나오게 된다.

심방이 구연한 이 집안의 의례도 특별하다. 삼승할망의 신력을 보이는 ‘이씨불도할망’의 의례와 유사한 양상이다.

이칩인 가민, 아침이 일어남, 찬물 한 직 올리곡, 촛불 한 데 싸고 삼선향[三上香] 피왕, “세별 일월조상님아 오닐은 환자(患者)덜 받으쿠덴.” 해영, 은침 서침을 올렸당, 절 해영 네류왕 그날 손님 받곡 손님 받곡 영 해영수다~.⁵¹⁾

민간 신앙의 전형적인 의례 양상이다. 이씨 댁 딸들이 시집을 가서도 모시는 이 조상신은 다른 조상신과 달리 기일제사 등은 언급하지 않는다. 오직 바다에 가서 ‘마른 지’를 올린다는 것만 제시하고 있다.⁵²⁾ 이는 직업적인 수호신으로서보다는 집안의 번성을 보장하는 역할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또한 모계전승이기 때문에 기일제사가 아니라 ‘마른 지’ 등으로 의례의 방식을 변형하여 전승한 경우일 수 있다.

홍매화 심방이 구연한 신평리 오씨 집안의 <토산감목관본>은 부계(父系)와 모계(母系)로 함께 전승하는 경우이다. 이 집안이 토산감목관에 오르는 번성을 하게 된 이유가 오씨 집안에 시집 온 김씨할머님이 친정 집안의 조상신을 모셔왔기 때문이다. 이는 오씨 집안에서 전승하는 토산감목관 신앙이 모계(母系)로 시작되었다는

51) 허남춘·정희종·강소전 외, 『서순실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5, 279쪽. 아침에 찬물 한 그릇과 촛불, 향을 피우고 의술 도구인 침을 올려서 그 침에 신의 영력이 가해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보인다.

52) ‘마른 지’에 대하여 서순실 심방은 “바당으로 강 지 바질 적엔, 무른 바디더레, 물 한 점 엇인더레 무른 지 올리는 법입네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바다에 가서 지를 바질 때에도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마른 땅에 던지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것을 확인하게 하는 대목이다. 즉 모계(母系)에서 시작하여 부계(父系)로 확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연관있는 모든 권위를 빌려와 가문을 내세우려는 ‘가문주의’가 개입되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구실할망본>이나 <이씨 불도세별조상본풀이>가 모계(母系)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지만 <토산감목관본>의 경우도 모계(母系) 전승 즉 외손 전승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특별하다.

이 유형 중 무관(武官)의 형색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본풀이가 있다. <삼청동변씨조상본>과 <윤칩 운동지 영감 본풀이>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다른 본풀이 대부분이 문관(文官)으로 드러나는 것과 비교하면 색다른 경우이다.

<삼청동변씨조상본>의 경우 무장(武將)으로서의 행색과 삼천군병을 거느리며 진군하는 모습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그에 반해 <윤칩 운동지 영감 본풀이>는 오직 두 줄로 구성된 본풀이이다. 내용 중에 “노비와 군사를 거느리던 조상”이라는 면에서 무관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철중장군>과 <통정대부 가선대부 김대봉>은 김윤수 심방의 혈연조상 중 높은 관직을 한 조상으로서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철중장군’과 ‘가선대부’ 등의 관직은 조선시대에 전형적인 명예직이라 할 수 있다.⁵³⁾ 이러한 의미에서 <철중장군>과 <통정대부 가선대부 김대봉>을 동일인으로 추정할 수 있겠으나 각각 구연을 맡은 진부옥 심방과 김윤수 심방의 구연 내용에 혈연 조상이라는 내용 외에는 겹치는 내용이 없어서 동일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다.

<윤대장본>, <이만경본>, <웃기 감목관 본풀이> 등은 역사적 실존인물에 대한 본풀이이다. 현용준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에서 <윤대장본>, <이만경본>의 조

53) 이 조상신과 관련이 없지만 판소리 여섯 마당을 정리한 신재효(1812~1884, 조선 후기의 판소리 이론가·개작자·후원자)의 생애 중 벼슬과 관련한 부분을 보면 흥미롭게도 이 조상신과 유사한 과정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신재효는 35세 이후에 이방이 되었다가 나중에 호장(戶長)에 올랐다. 1876년(고종 13)에 기전삼남(畿甸三南)의 한재민(旱災民)을 구제한 공으로 정3품 통정대부가 되고, 이어 철중장군을 거쳐 가선대부에 승품(陞品)되고, 호조참판으로 동지중추부사를 겸하였다. 신재효의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당시 중인이 오를 수 있는 관직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상신이 윤정식(1837~1902)과 이광빈(1734~1801)이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⁵⁴⁾

동일한 지역인 북촌리를 신앙 발생 지역으로 삼는 <윤대장본>과 <이만경본>은 구조가 거의 동일하나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 <이만경본>이 훨씬 완성도를 가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윤씨, 이씨 집성촌으로 알려진 북촌리에서 <이만경본>이 먼저 생기고 그것과 유사한 구조와 내용으로 <윤대장본>이 형성되었다고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현재 확인할 수는 없다.

<이만경본>에는 제숫말[語]에서 불리는 말[馬]의 명칭이 제시된다. 말을 키워온 역사가 오래된 만큼 제숫말[語]의 말[馬]에 대한 명칭은 다채롭다. 본풀이 상으로 그 다채로운 말[馬]의 명칭을 ‘이만경’이 지었다고 전하지만 확인하기 어렵다.

또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조선시대 벼슬을 얻은 사람들의 화려한 환향(還鄉) 행사가 자세하게 묘사되는 것이다. 과거 급제자의 축하 잔치인 ‘문희연(聞喜宴)’이 행해지는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 내용은 앞에서 언급하였던 <송당 광산김씨 본풀이>에 등장하는 ‘백정놀이’의 기원이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본풀이에 구연되는 “수왜로 북촌(北村)에 오라서 쉼[牛]를 잡아 만민(萬民)께 원천후원덕이더라.”라는 대목을 보면 광대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지 않은 이유로 광산 김씨 조상이 그 광대들에 의해 저주를 받은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전승되는 의례의 내용이 소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 굶을 했다는 것에서 위 구연 내용과 동일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웃기 감목관 본풀이>의 경우 ‘의귀리 헌마공신’으로 전해지는 김만일(1550~1632)에 대한 본풀이이다.⁵⁵⁾ 김만일 집안의 헌마 내력은 1594년(선조27)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록에 남아있다. 광해군은 1620년에 직접 김만일을 서울로 불러 오위도총부 부총관이라는 높은 관직과 포상을 내렸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는

54)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231~232쪽.

55) 김만일은 조선조 선조 때의 헌마공신. 본관은 경주이며 현 남원읍 의귀리 사람이다. 광해군일기[중초본] 129권, 광해 10년 6월 20일 정축 1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제주의 김만일이 개인적으로 기르고 있는 말 수천 필을 전마로 쓰도록 전교하다> “제주(濟州)의 김만일(金萬鎰)이 개인적으로 말을 기르고 있는데 무려 1만여 필(匹)이나 된다고 한다. 수천 필을 잡아내 전마(戰馬)로 쓰고 만일에게는 넉넉히 상을 주도록 하는 <일을 해조로 하여금 의논해 조처케 하라.>”

戊午六月二十日丁丑傳曰: “濟州 金萬鎰私養馬, 多至萬餘匹云。 數千匹捉出, 用於戰馬, 而萬鎰優賞事, 令該曹議處.”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id/koa_11006020_001]

당시 관료들 사이에 반대 여론이 심했을만큼 파격적인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김만일의 자손들까지 관직을 제수받는 등 김만일 집안이 중앙정부에 의해 직접적인 관리를 받는 위치가 되었다. 이후 김만일은 종일품 승정대부에까지 이른다. 이는 명예직에 해당한다. 김만일 집안은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 관리들의 수탈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목장 경영을 통하여 제주도 최고의 부를 획득하였다. 이 집안에 내려진 ‘종문 세습직’으로서의 ‘감목관’은 종5품직으로 현감과 동일한 지위를 차지한다. 현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를 중심으로 한 매우 넓은 지역의 산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218년 동안 총 83명의 감목관을 배출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⁵⁶⁾ 제주사에서 비중있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인물인 것에 비하면 전승하고 있는 본풀이가 빈약한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이는 앞에서도 밝혔지만 본고의 대상 자료가 갖는 지역적 한계성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양이목사본> 역시 광해군 11년 제주목사를 지낸 ‘양호(梁護)’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앞에서도 밝혔지만 실패 유형에 속하는 이 본풀이를 다른 역사적 실존인물과 함께 다루고자 하였다.

역대 제주 목사 중 양씨 성(姓)을 가진 목사는 세 명이 조사된다. 양찬(성종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20일 기유 4번째 기사),⁵⁷⁾ 양즙(선조실록 108권, 선조 32년 1월 3일 갑신 2번째 기사),⁵⁸⁾ 양호(광해군일기[중초본] 142권, 광해11년 7월 5일 병술 3번째 기사)⁵⁹⁾가 그 셋이다. 실록을 살펴보면 광해군 때의 ‘양호 목사’의 행적이 <양이목사본>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양호 목사’ 부임 이후 행적에 대하여 광해군 일기는 여러 개의 기사를 남기고 있다. 광해 11년 7월 8일,⁶⁰⁾ 광해 12년 6월 12일,⁶¹⁾ 광해 14년 2월 9일⁶²⁾ 등의 기

56) ‘감목관’은 조선시대 지방의 목장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종6품 외관직이다. 김만일 집안이 부를 축적한 역사적 과정과 산마감목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성윤의 「조선후기 제주도 부자 이야기: 김만일 집안과 산마감목관」을 참고하였다.
조성윤, 「조선후기 제주도 부자 이야기: 김만일 집안과 산마감목관」, 『제주도사연구』 제10집, 2001.

57) “... 양찬(梁瓚)을 통정 대부 행 제주 목사(行濟州牧使)로 삼았다.”

58) “... 양즙(梁諱)을 제주 목사로 삼았다.”

59) “... 양호(梁護)를 제주 목사로 삼았다. 이때 무인들이 제주를 이곳의 소굴로 여겨서 추천하고 낙점을 받을 때 그 값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제주도에 들어간 후에는 군사와 백성들을 수탈하고 밤낮으로 장인을 모아 온갖 일용품을 만들었으므로 장인들은 풀을 엮어 몸을 가리웠고 심지어는 스스로 손가락을 자르기도 하였다...”

60) 광해군일기[중초본] 142권, 광해 11년 7월 8일 기축 3번째기사, 1619년 명 만력(萬曆) 47년, <사

사를 보면 전승되고 있는 <양이목사본>의 초반 구성과 거의 동일하다. 또한 이 내용은 제주 양씨 종친회에서 전승하고 있는 내용과도 유사하다. 단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양호 목사’를 제주민에게 학정을 일삼는 인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제주 양씨 종친회의 전승 내용은 이 실록의 내용이 무고였다는 것이며 그의 죽음을 억울한 희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⁶³⁾

간원이 제주 목사 양호 등을 탄핵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제주 목사 양호(梁護)는 본래 미천하고 <어리석고 용렬한> 사람으로 평소 경력도 없는데다가 <하나도 일궈볼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더구나> 제주 지역은 바다에 둘러싸인 고을이라 왕화(王化)가 쉽게 통하지 않고 백성의 실정이 쉽게 진달되지 않기 <때문에> 탐학하는 관리들이 백성의 고혈을 쥐어짜내 <골수에 사무치는데,> 온 고을의 백성들이 마치 우리 속에 갇혀있는 돼지와 같습니다. <장인들은 손가락을 잘라 노역을 도피하고 좋은 말은 모조리 선수(善手)에게 들어가고 있으니,> 고려말과 같은 반란의 변이 조석에 임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에게는 결코 중임을 맡길 수 없으니 개차를 명하소서.

司諫院啓曰: "濟州牧使梁護, 本以卑微(愚劣)之人, 素無履歷, (一無可稱之能。 況) 耽羅一域, 環海而州, 王化未易通, 民情未易達, (以此) 貪虐之吏, 浚剝膏血, (入於骨髓。) 一州之民, 有同圈中之豚。(工匠斫指而逃役, 良馬盡輸於善手,) 麗末弄兵之變, 迫在朝夕。 如此之人, 決不可委以重任, 請命改差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id/koa_11107008_003]

- 61) 광해군일기[중초본] 153권, 광해 12년 6월 12일 무오 2번째기사, 1620년 명 만력(萬曆) 48년, <사간원에서 지방관들의 실정과 학정을 고발하다>

제주(濟州)(목(牧)은 아득히 먼 곳의 궁벽된 지역에 있는 섬입니다. 서울과의 거리가 가장 멀어 백성들이 성상의 교화를 입지 못하였습니다. 근래에 수령이 된 자들은 모두 무인들이어서 단 가혹하게 수탈하여 자신의 밑천으로 삼고 뒷사람을 잘 섬겨 물러난 뒤의 계책으로 삼는 것만을 알고 있습니다. 준마(駿馬)와 일마(駟馬)는 우리 나라의 이름난 산물인데도 거의 멸종될 지경이고, 이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같은 동포인데도 홀로 명을 건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과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저도 모르게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목사 양호(梁護)는 <그 중에서도 더욱 심한 자입니다. 일찍이 이력(履歷)이 없는데도> 외람되이 본직에 제수되어 거듭 대간의 탄핵을 받았으나 <요행히 면할 수 있었습니까.> 부임한 뒤에도 조금도 자신을 징계함이 없이 멋대로 욕심을 부리기를 끝없이 하였습니다. 그 갖가지로 <탐욕을 부리고> 백성을 침해하고 학대하여 <자신을 살찌우고 뒷사람을 섬기는 정상은 말할 수 있지만> 말을 하자면 입을 더럽히게 됩니다. 빨리 사판에서 삭거하도록 명하소서. 지금 이후로는 목사와 판관 한 사람은 일찍이 대간(臺諫)이나 시종신(侍從臣)을 지낸 명망있고 청렴하고 강명한 사람으로서 각별히 골라보내어, 먼 지방의 거의 죽어가는 백성의 목숨을 구하는 <일을 승전을 받들어 시행하소서.>

濟州 (爲收, 邈在海島窮荒之地。 距王都最遠, 民不霑聖化。 近日爲字牧者, 舉皆武夫, 徒知剝割而爲己資、善事而作後計。 駿、駟, 我國之名產, 而殆將絕種, 居民同胞之赤子, 而獨不堪命。 言念及此, 不覺膽寒。) 牧使梁護, (其中尤甚者也。 曾無履歷,) 濫受本職, 重被臺評, (幸而得免)。 赴任之後, 略不懲艾, 恣意逞慾, 罔有紀極。 其種種(貪婪)侵虐, (肥己事人之狀, 所可道也,) 言之汚口。 請亟命削去仕版。 自今以後, 牧使、判官中一員, 以曾經臺侍, 有名望清謹剛明人, 各別擇送, 以救遐民垂死之命(事, 捧承傳施行)。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id/koa_11206012_002]

- 62) 광해군일기[중초본] 174권, 광해 14년 2월 9일 을해 1번째기사, 1622년 명 천계(天啓) 2년, <제주 목사 양호를 체직하다>

제주 목사 양호(梁護)를 체직하였다. 양호는 재물을 탐하고 잔학하여 명주(明珠)와 양마(良馬)를 남김없이 거두어가고, 심지어 읍기(邑妓)의 머리카락을 잘라다 궁궐에 바쳐 수식하는 데 쓰도록 하는 등 다른 일들도 이와 비슷하였다. 백성을 원수처럼 봄에 백성들이 그를 호랑이처럼 여겼는데, 비국의 계사로 인하여 체차시킨 것이다.

壬戌二月初九日乙亥(濟州牧使梁護遞。 護貪贓殘虐, 明珠、良馬, 括取無餘, 至擢取邑妓頭髮獻, 遺宮禁以爲首飾之用, 他事類是。 視民如讎, 民視之如虎, 因備局啓辭遞差。)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id/koa_11402009_001]

즉 실록의 내용이 <양이목사본>의 초반과 유사한 내용이고, 제주 양씨 종친회 내에서 전승하고 있는 내용은 그 후반과 유사한 내용이다. 이 본풀이와 연관된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에 대한 사실성 여부를 현재 필자의 역량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양이목사본>의 초반부 내용이 조선왕조실록과 동일한 맥락인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겠다.

즉 양호목사는 실제 큰 관직에 오른 공은 있으나 학정으로 집안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또한 본인도 학정에 대한 죄과(罪科)로 원사의 생을 마쳤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손들은 원한이 맺혀 죽어간 조상의 죽음도 위무(慰撫)하고 조상의 죽음을 억울한 죽음으로 전환시켜 무속 의례 속에 남긴 것이라고 추측해 본다. 조심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양이목사’라는 이름도 ‘양호목사’의 와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본풀이를 총괄하면 구실할망본의 경우 초반부는 앞의 실패 유형과 유사한 구성을 보인다. 그러나 입도 이후의 행적이 성취 유형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후의 양상들은 실존 인물의 구체적인 사료가 반영되어 구성된 본풀이들로 추정할 수 있다. 점점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실재의 사건들이 반영되는 경향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3.2.2. 무업 성취담

이 유형은 심방으로서의 신이한 능력을 보여준 것과 남성형 심방 입무담을 묶은 것이다. 즉 조상신의 신이 무속 신앙의 사제격인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앞서 여성형 심방 입무담의 경우는 모두 실패 유형에 속하는 것을 밝힌 바 있다. 그와 달리 남성형 심방 입무담은 모두 성취 유형에 속한다. 또한 심방으로서의 신이한 능력을 보여준 본풀이 또한 대개 남성 심방에 해당된다. <고대장본>, <우렁이 김씨조상본풀이>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고군찬심방>의 경우 여성 심방이면서 성취형에 속하는 특별한 경우이다.

63) 제주양씨종친회의 인식 내용은 필자가 <양이목사본>에 대한 전승을 조사하면서 직접 ‘제주양씨 명월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제주 양씨 종친회 내에서는 이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무속 의례와의 상관성, 본풀이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

<고대장본 1>은 서사 배경을 ‘당 오백 절 오백을 파괴한 이목사 시절’이라고 밝힌 것을 보아 이형상 목사 시절을 반영한 본풀이로 볼 수 있다.⁶⁴⁾ 즉 민중의 습속을 탄압한 중앙관리에 저항하는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⁶⁵⁾ 그를 위하여 무속신과 무속 신앙의 사제자인 고대장의 영력(靈力)을 내세우고 있다. <고대장본 3>은 기우제에 관한 내용이다. 이 또한 고대장의 영력(靈力)을 내세우는 신이담(神異譚)에 속한다. 이 본풀이의 마지막은 심방 무업과 관련한 이야기로 정리하고 있다.

<우렁이 김씨조상본풀이>는 여성 입무담과 정반대되는 남성 입무담의 전형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연히 길에서 무구(巫具)인 ‘맹두’를 주워 입무한 경우이다. 우렁이 김씨 조상은 스스로 맹두를 거부하고 신병을 얻었으나 그 문제를 인식하여 해결하고 성공적인 무업활동을 이루어 벼슬을 얻는 데에 이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 입무담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입무와 성공적인 무업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여성 입무담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 성공적인 무업 활동을 통하여 관직을 얻고 집안을 번성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남성 입무담은 성취 유형에 속한다.

<고씨 어머니>의 경우 여성 심방형 본풀이 중에서 유일하게 성취 유형으로 구분되는 내용이다. 원사(冤死)의 결말보다는 신력(神力) 있는 심방의 모습으로 그려진 내용이 주를 이룬다. 김윤수 심방의 양어머니인 고군찬 심방에 대한 내력을 풀어낸 것이다. 이는 실존한 인물에 대한 것으로 조상신본풀이의 신생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본풀이 또한 여성 입무담이 갖는 고난을 피해가지는

64) 이형상(1653~1733)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숙종 때 제주목사를 지냈다. 1703년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제주의 누속(陋俗)을 일체 개혁한다며 모두 유속(儒俗)으로 바꾸게 하였다. 제주도 남부에 있었던 한라호국신사인 광정당에서 지방민들이 기도하던 풍습이 있었는데 이를 금지시켰고, 이 밖에도 129개를 모두 불태워 제주 토착 신앙을 음사로 규정하고 철저히 단속하였다. 또한 불교에 대해서도 미신적으로 흘렸다고 비판하며 두 사찰을 불태우고 유교를 권장하였던 것으로 기록이 남아있다. [출처 : 제주문화원>제주사 인명사전]

65) 허남춘, 『설문대할망과 제주신화』, 180쪽. : 이에 대하여 허남춘은 “제주에서 무속과 불교가 시련을 겪었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되, 있었던 사실보다는 있어야 할 당위를 내세운 설화의 유형이다. 불교는 그 영험함을 증명하지 못한 반면 무속은 영험함을 보여 제주 성안의 당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다고 한 이야기 속에는 무속 집단의 소망이 담겨 있고, 파괴되었던 현실에 대한 정신적 승리담이다.”라고 정리하고 있다.

못하였다. 그러나 그 고난을 스스로 극복하고 무업을 당당히 이어간 심방으로서 결국에는 조상신으로 좌정한 내력을 담아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 본풀이는 여성 심방형 중 특별한 경우로 무업 성취담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3.2.3. 직업 성취담

이 유형은 직업 조상의 정립담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이 유형의 대상신은 각 집안에서 모시는 그 집안의 특정 생업을 수호하는 신 또는 그 생업에서 이름을 날린 혈연 조상이다. 특히나 집안에서 대대로 전승하는 특정 생업이 있을 경우는 집안에서 모시는 다른 조상신의 본풀이를 구연한 후 그 특정 생업 수호신에 대한 내용을 구연해야 한다.

① 흥부일월본[紅牌日月本]

이 본풀이는 집안에 관직을 하였던 혈연 조상이 있는 경우 구연한다. 위에서 구분했던 관직 성취담 유형에 속하는 조상신을 모시는 집안에서는 이 내용을 구연해야 한다. 내용을 보면 관직의 명칭과 관직자의 행차 등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② 책불일월본

이 본풀이는 집안에 택일사(擇日師), 지관(地官), 한의원(韓醫院) 등을 하였던 조상이 있는 경우 구연한다. 위 목록 중 풍수·지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고대장본 2>나 <괴성 정지관본>의 조상신을 모시는 집안에서 구연된다. 한의(韓醫)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이씨불도세별조상본풀이> 등도 이 경우이다.

③ 산신일월본(山神日月本)

이 본풀이는 집안에 수렵(狩獵)이나 도살업(屠殺業)을 하였던 조상이 있는 경우 구연한다. 위에서 정리한 목록 중에 <산신일월>이라 이름 붙은 본풀이가 수렵을 하던 조상에 대한 내용이다. <하도 부데각 하르방 본풀이>의 경우 벼슬을 한 내용도 있고 산신 책불이라 일컫기도 하지만, 본풀이의 주된 내용이 수렵에 대한 것이기에 이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도살업에 대한 본풀이로는 <피쟁이

조상본>이 유일하다. 본풀이의 내용을 보면 ‘산신’으로 대접받았던 ‘황정싱’과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본풀이 마지막에 “피쟁이집이 굿헿쟁 헿민 이 본초를 거느려야 됩네다.”라는 말명으로 백정 집의 생업 수호신으로 구연되던 본풀이인 것이 확인된다.

④ 불도일월본(佛道日月本)

이 본풀이는 집안에 삼승할망(助産·祈兒巫)질 하던 조상이 있는 경우 구연한다. 이용옥이 구연한 <이씨불도할망>의 경우는 삼승할망이 되는 내력을 자세하게 구연하고 있다.

⑤ 선왕일월

이 본풀이는 집안에 배와 관련한 생업을 하고 있는 경우 특정 조상신본풀이를 구연한 후 서우젯소리와 선왕참봉본풀이(영감본풀이)를 이어서 구연한다. <하도 임침 하르바님 본풀이>, <한칩 한동지 영감 본풀이 1>, <한칩 한동지 영감 본풀이 2> 등의 본풀이 내용은 관직 성취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본풀이 말미에 ‘선왕으로 풀어달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 이 유형으로 구분한다.

직업 성취담 목록 중 위와 같이 보편적인 생업 수호신에 대한 흥부일월본, 책불일월본, 산신일월본, 불도일월본 등은 『제주도무속자료사전』과 『제주도조상신본풀이 연구』, 『이용옥 심방 본풀이』에서 조상신본풀이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을 조상신본풀이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정 집안이나 특정한 조상신에 대한 것이 아니고 동일한 직업군일 경우 보편적으로 구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가(巫歌) 갈래 중 새로운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대하여 이전의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현용준이 정리한 본풀이의 개념이 있다. 현용준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에서 본풀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무속신화는 완전한 설화의 구조를 갖춘 신의 이야기를 말한다. 따라서 무속신화는

① 일정한 성격을 가진 인물 곧 신이 있을 것, ② 그 신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사건의 서술일 것, ③ 그 이야기가 무속의례에서 무격에 의하여 노래로 불리거나 이야기 될 것, 이 3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하리라 본다.⁶⁶⁾

정리하면, ‘대상신, 서사구조, 무속 의례에서 구연’되고 있는 것을 본풀이가 갖춰야 할 기준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보았을 때 위의 유형은 특정한 대상신은 없고 보편적인 대상신만 존재한다는 점, 서사구조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본풀이’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다.

좀더 세부적으로 구분하고자 한다면, 서대석의 무가 갈래 구분을 참고할 수 있다. 서대석은 무가를 서정무가, 교술무가, 서사무가, 희곡무가 등으로 구분하였다.

서사무가는 무속신화이면서 무속서사시로서 주인공이 신으로 좌정되어 제향을 받게 되는 과정을 서술한다. 따라서 개성적인 주인공이 등장해야 하고 그 주인공의 행적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며, 결말에 가서 주인공은 신으로 정립한다는 공통된 서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⁶⁷⁾

서대석 또한 현용준이 정의한 개념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다. 본고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조상신본풀이의 대부분은 서사무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조상신본풀이 구연 후 담불 등의 제차와 동일하게 구연되는 내용은 일정한 서사성을 담보하는 특정한 주인공의 좌정담이라 할 수 없다. 단지 보편적인 직업 수호신에 대한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조상신본풀이의 목록 중 위 유형의 자료들은 ‘서사무가’보다는 ‘교술무가’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혹은 집안의 특별한 직업이 더 이상 전승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급격히 서사성이 상당히 약화되거나 거세되는 변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러한 유형으로 새로이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66)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22쪽.

67) 서대석, 『무가문학의 세계』, 73~74쪽.

Ⅲ.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제주도 조상신본풀이는 업신-구렁이 숭배, 돌-미륵-숭배, 뼈-해골 숭배 등의 자연 신앙적 관념에서부터 실재하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 형성 구조의 다양함이 핵심적인 특성이다. 이러한 다양한 관념이 조상신본풀이라는 하나의 갈래 속에 포함되어진 이유는 조상신의 직능을 가문 번성의 수호신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생업의 역사, 즉 인간 생존의 역사, 문명 변천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가문의 수호를 기원해야 하는 특성이 조상신의 본질이다.

위에서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자료 총 95개 전편에 대한 분류와 유형화, 그리고 분석의 과정을 거쳤다. 이 분류 과정을 통하여 조상신 신앙 형성에 대한 일정한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경향성을 살펴보면 제주도 조상신본풀이는 대략 세 가지의 관념이 합쳐져서 발전해온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자연 신앙적 관념이다. 신앙의 대상이나 의례의 성격을 볼 때 비인격신의 유형이 자연 신앙적인 관념을 특성으로 삼는다.

두 번째는 무속 신앙적 관념이다. 인격신적 유형이 주를 이룬다. 한반도와의 다양한 교류를 반영하며 본풀이의 서사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것이다. 서사의 완성은 주로 비극적 결말을 맺는 실패 유형의 경향을 보이며, 혈연 조상보다는 비혈연 조상의 신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세 번째는 제주도의 역사적인 사실을 반영한 관념이다. 조상신 좌정 동인에 따른 분류에서 성취 유형이 주를 이루며 제주도의 역사적 사실이 반영되는 경향을 보인다. 대부분 혈연 조상 중심이며 특정 집안의 중시조(中始祖)의 위상을 갖는다.

조상신본풀이는 제주도 토착적인 신앙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면서 한반도와의 교류를 통하여 유입된 무속 신앙적 요소와 설화적 요소가 혼합되는 과정을 겪어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에 제주도의 사실적(史實的) 요소가 더해져 현재와 같은 형태로 완성되어 왔다고 정리할 수 있다.

현용준은 『巫俗神話와 文獻神話』에서 일반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를 대상으로 하여 본풀이의 형성을 다루었다. 그 논의의 전제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짚었다.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은 첫째 현존하는 모든 文化事象은 본원적인 그대로가 아니라 부단히 진화 발달하여 온 결과라는 것이다. 그 진화가 齊一的 漸進的 發達的이라는 進化論의 원리에 의한 역사의 一系的 진화는 시인 못 한다 하여도 단순에서 복잡으로, 미분화에서 분화로, 同質에서 異質로 변천한다는 사실은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거기엔 외부의 전파에 의한 혼합 내지 접촉이 따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 공간적, 평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文化事象은 적어도 동질적인 것이면 그것들에게 時間的 新古關係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헌적, 역사적 증거가 없는 이상 구체적 시간을 매길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결정규준을 가치의 고저로 보든, 혼합형태 내지 접촉형태가 새로운 것이라 보든 공간적 분포관계에 시간적 전후관계를 계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⁶⁸⁾

즉 모든 문화적 양상이 일관된 원리를 가지고 단일하게 진화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차에서 고차로, 기본적인 것에서 혼합적인 것으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미분화된 것에서 분화된 것으로 전화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그러한 양상은 특정 시간을 확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시간적인 선후의 관계는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전제 속에 본풀이의 형성을 대략 6개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태동형, 기원형, 기본형, 성장형, 완성형, 설화형이 그것이다. 이러한 구분을 통하여 당신본풀이에서 성장하여 일반신본풀이로 발전해나갔다고 보았다. 본풀이의 구조를 분석하여 신격, 좌정경위, 직능, 단골, 제일, 기도사의 내용을 모두 갖춘 것을 기본형으로 설정하였다. 이 구조를 모두 갖추지 못한 것을 태동형과 기원형으로 하여 앞선 단계로 보았다. 기본형의 구조에서 서사적인 내용이 더 강화되어진 것을 성장형, 완성형, 설화형이라 하여 후대의 단계로 설정한 것이 현용준의 본풀이 형성에 대한 기본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당신본풀이가 더욱 토착적이며 선대적이고, 일반신본풀이가 혼합적이며 더욱 후대

68)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28쪽.

적이라는 점은 대개의 맥락에서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신본풀이의 발전 양상은 지역적인 신앙 전승의 양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대략적인 흐름만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점이 있다.

현용준은 위 글에서 본풀이의 형성연대에 대해서도 거론하였다. 구체적인 연대를 말할 수는 없다는 점이며, 단지 관계 상으로 시간의 선후를 말하는 것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본풀이 서사의 모티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형태로 성장한 것은 근세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함께 밝히고 있다.

조상신본풀이의 경우, 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 기본형 이후의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완성형의 틀을 갖추었다고 해서 더욱 후대의 것이며, 기본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반드시 시대적으로 앞선 것인가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한 조상신본풀이의 특성에 따른 분류에서 비인격신이 주를 이룬 본풀이가 반드시 앞선 것인가 하는 데도 의문이 제기된다.

생업적인 수호신의 내용을 다룬 성취 유형의 많은 본풀이들이 현용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본형의 구성을 이루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런 반면 칠성부군이나 미륵 등 토착적인 신앙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비인격신을 다룬 본풀이에 있어서 완성형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즉, 자연 신앙적인 요소를 반영한 본풀이라고 하여 앞선 시기이거나, 역사적인 사실을 반영한 본풀이라고 하여 후대적인 것이라고 정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자연 신앙적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돌신앙을 보여주는 <선씨일월본>의 경우, 이 조상신을 모시는 집안은 화북의 안씨 집안이지만, 모시는 조상신은 선씨, 즉 현씨(玄氏)로 제시되고 있다. 역사적인 사실만 따진다면 안씨 집안은 1610년대, 현씨 집안은 1680년대에 제주도에 입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본풀이의 성격은 토착적이며 역사가 오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조상신을 모시는 집안의 내력이 그러한 역사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한 경우이다. 그러므로 본풀이의 일부의 내용만을 가지고 그 형성 시기를 추정하기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실패 유형 본풀이의 주된 배경이 되는 제주도민 출륙 금지령은 1629년에 시작된다. 앞서 역사적 실존 인물에 대한 본풀이라고 밝혔던 <이만경본>, <윤대장본>, <양이목사본> 등의 경우도 1600년대에서 1700년대 사이에 생존했던 인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각편의 본풀이가 담고 있는 신앙 관념만으로 따져서 시간적 선후대를 따질 수 있다 하더라도, 전승되고 있는 형태의 본풀이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시기적 선후를 따져 특정하는 데는 많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위에 인용한 현용준의 글에서 본풀이 서사의 모티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당신본풀이와 일반신본풀이가 현재의 형태로 성장한 것은 근세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추정 은 조상신본풀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자연 신앙적 요소를 주된 신앙으로 삼고 있는 본풀이의 경우는 토착적인 자연 신앙적 관념이 오랜 시간 이어지다가 현재와 같은 형태의 본풀이로 흡수되어 완성되는 결과에 이른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신앙 관념을 주된 특성으로 하는 본풀이에 있어서도 동일한 과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제주도 조상신본풀이가 고정적(固形的)인 전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개별 신앙민의 신앙 환경을 바탕으로 각각의 본풀이가 변형되고 신생되는 과정을 겪었을 것이다. 모든 서사는 끊임없이 변모하는 속성을 지니며 이러한 보편성이 조상신본풀이의 전승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1. 자연 신앙적 관념

자연 신앙적 관념은 조상신 특성에 따른 분류 중 비인격신을 주요한 대상신으로 삼는다. 자연 신앙은 산이나 나무, 암석 등 자연 무생물과 구렁이, 호랑이 등 동물을 신성시하여 신앙하는 것을 뜻한다. 위 분류 중 비인격신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신앙이 발생하게 되는 근원은 인간 보편의 비밀상성과 영원성에 대한 숭배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비인격적 조상신은 부군[蛇神]신앙을 대표로 하여 돌, 생활도구 등 인간이 직면하는 다양한 자연물과 무생물이다. 이 신의 특성은 토착적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류 보편의 원시 신앙적인 관념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먼저 부군신앙에 대해 살펴보면 이는 재물신의 성격으로 존재하는 업신(業神)과

유사한 관념이다. 제주도만의 신앙 양상이 아니며 한반도 전역에 존재하는 업 신앙의 맥락으로 파악해야 한다.

업왕이란 재물의 신을 말한다. 세속에서는 업양(業樣)이라고도 하는데, 양은 곧 왕이 변한 것이다. … 세속에서 업왕으로 받드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인업(人業, 속칭 인업은 그 모습이 작은 갓난아기와 같다.)·사업(蛇業)·유업(魃業, 유魃는 속칭 족제비이다.)이다.⁶⁹⁾

이와 같이 재물신의 개념인 ‘업신’은 사람, 뱀, 족제비 등 일정한 층위를 고정적으로 가지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업신에 대한 관념은 아주 오래된 것으로 그 기원은 고조선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능화가 『조선무속고』에서 『신단실기(神壇實記)』를 인용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⁷⁰⁾

집안 내에 땅을 가려 단을 쌓고, 토기에 벼를 담아 단 위에 둔 다음, 짚을 엮어 지붕처럼 덮은 것을 부루단지(夫婁壇地), 혹은 업주가리(業主嘉利)라 한다[우리 풍속에 쌀을 쌓아둔 것을 노적가리라 한다.]. 이것은 곧 재산을 관장하는 신이다. 단군의 아들 부루(夫婁)가 현명하고 복이 많았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재물의 신으로 받들었다 한다.⁷¹⁾

위 글은 ‘업신’을 모시는 제의 양상에 대한 설명이다. 제주도 밧칠성의 제의 양상과 유사하다. 업신앙의 관념은 한반도 전역에 존재하며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신앙된다. 민간 신앙 내에서 업신앙은 가신(家神)의 핵심적인 신으로 존재하며, 이 신의 특성 중 하나는 ‘들고 남’이다. 이러한 특성은 다른 비인격신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업신이 드는 것을 흔히 ‘업 들어온다’고 한다. 집안에 부정한 일이 생기면 업이 나

69) 이능화, 『조선무속고』, 창비, 2013, 339쪽.

70) 김교헌, 『신단실기(神壇實記)』, 1914. : 김교헌이 쓴 한국고대사에 관한 책이다. 신인(神人) 단군(檀君)의 실기라는 뜻으로, 단군에 관한 사적과 고신도사상(古神道思想)의 자취를 내외 문헌에서 뽑아, 민족의 뿌리사상과 대종교(大倥敎)의 역사적 연원을 밝힌 대종교 역사의 기본경전이다.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1) 이능화, 『조선무속고』, 339쪽, 각주 75 재인용.

가고, 업이 나가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여 조심한다. 간혹 업구렁이가 눈에 보이면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먹을 것을 주어 보호하기도 한다. 업에 대한 관련 설화 역시 복 들어오기에 집중되어 있다. 업의 인식에는 선대에서부터 내려온 대물림의 전통이 있다.⁷²⁾

‘들고 남’이라는 특성은 앞서 부군칠성의 특성 중 하나로 설명한 바 있다. <선을 리 안판관 제주판관본>과 <고대장본>에서 부군칠성 조상이 자신을 서운하게 한 자손을 떠나 다른 집안으로 가는 내용을 구연하였다. 조상신이 떠난 집안은 운이 끊기고 조상신이 새로이 좌정한 집안은 출세와 번영을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의 본질에서 제주도에 존재하는 ‘테운 조상’이라는 관념을 발견할 수 있다. ‘테우다’라는 말의 어의는 “어떤 특별한 복(福)이나 기능 또는 재주를 타고 나다.”이다.⁷³⁾ 이러한 개념이 확장되어 ‘테운 조상’은 ‘특정한 관계로 자신에게 내린 수호신’이라고 관념한다. 그 대상은 단지 ‘부군칠성’만이 아니라 돌이나 해골, 또는 솔 같은 생활도구에까지 특정한 영역의 한계를 갖지 않는다. 이는 제주도의 토착적인 신앙을 형성하는 근원적 관념으로 자리잡고, 이후 ‘전상’이라는 개념과 연관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비인격적 조상신을 모시는 의례 공간은 주로 ‘상고팡’이라 불리는 가옥 내 ‘안창고’이다. 혹은 뒷마당의 노적거리와 같은 공간이기도 하다. 위에서 분석한 본풀이 들에서 이와 유사한 구연은 계속 반복된다. 부군칠성을 모시는 공간, 미륵을 모시는 공간, 솔할망을 모시는 공간 모두 동일하다. 또한 이는 계절의례로서 행하는 철갈이와 동일한 의례 공간으로 가신 신앙 의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인격신이 좌정하는 방식은 대부분 ‘현몽’을 통해서이다. 이는 동물이거나 무생물인 비인격신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며, 현몽을 통한 발화로 자신의 내력과 좌정 방향을 제시한다. 그런데 비인격신이 현몽하는 양태는 인격화된 대상이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 인격신의 요소와 겹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72) 이창식, 「가정신앙의 여성성과 전통성」, 『한국의 가정신앙 상』, 민속원, 2005, 162쪽.

73)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2009.

제주도의 토착적인 사신 신앙은 ‘뱀’을 인격화하기 전의 상태인 ‘뱀’ 그 자체로 설명하고 있다. <선을리 안판관 제주판관본>에서 순흥 안씨 막내아들에게 테운조상은 “귀는 작박이요 몸은 머들인 부군”으로 묘사된다. 이원진의 『탐라록』에도 “제주 땅에는 뱀·독사·지네가 많은데, 만약 회색(灰色)뱀을 보면 자귀[遮歸]의 신이라 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서술이 있다.⁷⁴⁾ 이는 당시 제주도민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보여진다. 즉 ‘회색뱀’에 대한 숭배 관념이다. 뱀에 대한 숭배 관념은 조상신과 당신의 여러 양상으로 혼재되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생태적 의미의 비인격적 특성이 인격화하면서 <칠성본풀이>라는 일반신본풀이로 발전하였을 것이다.

이외에도 조상신본풀이에서 일반신본풀이로 전화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에는 <사만이본>, <영감본> 등이 있다. <사만이본>은 자연 신앙의 대상일 수 있는 뱀-해골이 인격화하면서 일반신으로 전화한 경우로 보인다. 이은봉은 통구스나 아이누족의 웅제(熊祭)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죽은 동물의 뼈를 신성시하는 사상은 구석기 시대부터 내려온 것이라 밝히고 있다. 구석기인들이 죽은 동물의 뼈, 특히 두개골을 동물의 영(soul)과 생명(life)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⁷⁵⁾

해골을 숭배하는 신앙 양상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간 보편이 계승해온 조상신 신앙의 관념이었을 것이다. 소사만이는 백골을 조상으로 모셔서 갑자기 거부가 되고, 수명 연장까지 이룬다. 백골을 조상으로 모시는 것은 전형적인 조상신본풀이의 서사 구조이다. 다만 이 본풀이에 조상신본풀이가 가져야 할 특정 집안의 내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일반신의 층위로 발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감본>은 ‘도깨비신’에 대한 본풀이이다. 이 또한 부군칠성과 유사하게 조상신, 당신, 일반신 모든 층위에서 모셔지는 신이다. 그러나 도깨비신의 근원을 ‘도깨비불’에서 찾는 인식이 있다.⁷⁶⁾ 즉 이 또한 무생물적 특성을 갖는 비인격신이 인격화 과정을 거쳐 일반신으로 전화한 것이다.

74) 이원진, 김찬흠 외 옮김,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25쪽.

75) 이은봉, 『증보 한국고대종교사상』, 집문당, 1999, 30쪽.

76) 현용준, 『제주도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98~99쪽. 현용준은 영감놀이의 유래를 살피면서 도깨비신인 영감신의 다양한 성격 분석을 통하여 이 신이 도깨비불을 인격화한 것이라 정리하고 있다.

위의 세 본풀이 모두 조상신과 직능은 동일하나 조상신 신앙으로 가져야 할 특정 집안과의 관계가 보편적인 내용으로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조상신본풀이가 아닌 일반신본풀이의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앞의 유형 분석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비인격신적 조상신본풀이는 각편의 수가 아주 적다. 이는 토착적인 신앙 형태가 오랜 시간 동안 변화를 거치며 점차 축소되거나 다른 신앙 관념에 수렴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2. 무속 신앙적 관념

무속 신앙적 관념은 조상신 특성에 따른 분류 중 인격신이 주를 이룬다. 특히나 좌정 동인에 따른 분류로 보았을 때 주로 실패 유형의 본풀이 중심이다. 이 유형의 본풀이들은 대개 한반도와의 교류가 주된 배경이다. 다양한 문물이 오고가는 가운데 본풀이의 서사 구조는 풍부해지고, 가신신앙과 무속 신앙이 습합되어 다양한 의례 방식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인격신이면서 실패 유형인 조상신의 경우 한반도 전역에 존재하는 조상 숭배 관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1. 조상 숭배 관념으로서의 인격신

인격신의 기원은 혈연 조상에 대한 숭배에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혈연 조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인간이 종교를 형성해가는 원초적 현상이었을 것이다. 구석기시대부터 범인류적으로 존재해왔던 조상 숭배 의식은 세계 곳곳에서 보고된다.

구석기인들도 일정한 장례풍습이나 사자(死者)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한 보고에 의하면, 이미 기원전 7만 년 내지 5만 년부터 일정한 매장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 ... 그보다 훨씬 전에, 기원전 40만 년부터 30만 년에 이미 두개골과 하악(下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뼈들이 그냥 버려진 상태가 아니라 일

정한 무덤형태로 간주되는 곳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 구석기인들도 죽은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는 경험을 했고, 사자가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자가 현실적인 삶으로 귀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종교적 의례들도 고안해 냈다.⁷⁷⁾

구석기시대부터 발견된 장례 풍습이나 사자(死者)에 대한 태도에서 인류 보편의 원초적 조상 숭배 관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념은 그 시기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고도의 의례와 관념을 가진 종교 양상의 하나로 현재에 이른다. 유교 뿐 아니라 불교나 기독교 등의 종교에서도 조상을 섬기는 의례양식을 가지고 있다. 한국 무속 신앙에서도 제의적인 차원에서 그 명칭을 달리하고, 대상신의 성격이 다소 상이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한반도 전역을 포괄하여 조상 숭배 의례가 존재한다. 이러한 의례를 형성하는 근원적인 관념은 다음의 설명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것은 죽은 후의 일이다. 사람이 죽으면 그 생명은 세 가지로 분열된다. 즉 혼·귀·백이다.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돌아가고, 귀는 공중에 존재한다. 이 귀는 일반적으로 신주(神主)에 의탁해서 영접되어 인가에서 제사지내게 된다. … 그리고 이들 삼자 중의 귀와 백은 인간과 교섭을 유지하게 되는데(백은 풍수지리상 자손과 직접 중대한 교섭을 가진다) 만약 사자를 이은 자손이나 연고자에 의해서 정성껏 조의를 받았을 때 이러한 귀나 백은 만족해서 흩어진다. 즉 백은 묘 속에서 3년의 제사를 받고, 귀는 사당(집 안에 있다)에서 자손 4대의 제사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눈을 감는다. … 그런데 백과 귀가 정당한 조의를 받지 못하고, 제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이 백과 귀의 기가 응결해서 귀신이 된다. … 즉 죽은 후에도 남아있는 것은 제사를 받지 못했거나 비명횡사·요절·질병으로 죽거나 전쟁터의 이슬로 사라진 자, 또는 익사자(溺死者)·추락사자(墜落死者)·마마로 죽은 자·중독사자(中毒死者)·살해된 자·모함을 당해 사형을 받은 자 등등으로 정당한 방법의 죽음을 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보다 원한이 깊기 때문에 쉽사리 위로해 줄 수 없는 자이다. 따라서 모두가 귀신이 되어서 공중에 떠돌아다닌다.⁷⁸⁾

77) 이은봉, 『증보 한국고대종교사상』, 32~33쪽. 이 글에서 인용한 내용을 보면, J. Maringer가 보고한 글로서 이미 구석기인이 두개골의 숭배(skull cult), 가족원의 경외심, 수호신으로서의 역할, 죽음은 영생으로의 관문이라는 관념을 가졌다고 한다.

78) 무라야마 지준, 김희경 옮김, 『조선의 귀신』, 동문선, 1990, 103쪽.

즉 정상적인 죽음을 거쳐 조상에 의해 충분히 제사를 받은 귀(鬼)는 소멸해버리지 만, 그렇지 못한 귀(鬼)는 원혼이 되어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는 내용이다. 이는 우리 민족 고래(古來)의 영혼관 혹은 귀신관(鬼神觀)으로 한국 조상 숭배의 기본 관념이라 할 수 있다. 조상 제사의 '사대봉사(四代奉祀)'가 유교적 관념이 아니라 우리 민족 고유의 귀신관(鬼神觀)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⁷⁹⁾ 한국의 무속 신앙은 이 관념을 바탕으로 하여 조상의 위해를 막고자 하는 데서 근원한다. 거기에 더하여 그 원한(怨恨)을 해원(解冤)하여 집안을 수호하는 신으로서 조상신을 무속 신앙의 체계 속에 위치시켰다. 제주도의 조상신 신앙 또한 이와 동일한 관념 속에 형성된 것으로 본다.

어디서나 마찬가지로이지만, 제주도에서도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육체에서 영혼의 일부가 유리되면 그것은 '넉났다'라는 질병이 되고, 영혼의 전부가 유리되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은 죽음이다. 시체를 남기고 떠난 영혼은 저승에 가서 생시의 功罪에 따라 극락이나 지옥으로 가서 머무는데, 만일 그 영혼이 생시에 어떤 원한이 있거나 횡액으로 죽었을 경우에는 저승엘 못 간다. 이 저승에도 못 가고 이승에도 못 와 중간에서 헤매는 영혼은 소위 척귀나 잡귀가 된다. 척귀는 생시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형제나 친족에게 범접하여 질병을 주고, 잡귀는 떠돌아 다니다가 누구에게나 범접하여 대접을 받으려 하니 이것도 병이 된다.⁸⁰⁾

현용준의 이 글을 보면 제주도에도 앞서 인용한 내용과 같은 관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의 조상신 신앙은 한반도와 동일한 바탕을 가지고 형성된 신앙이다.

79) 조성윤, 「정치와 종교: 조선시대의 유교 의례」, 『사회와역사』 53집, 1998. 참고 : 유교적인 개념의 4대봉사는 17세기 이후 정착하게 되었다. 조선 초기 가례는 신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정되었다. 당상관 이상은 4대 봉사, 하급 관원들은 3대 봉사, 일반 평민들은 2대 봉사를 지키도록 하였다. 이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사회적인 배려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부를 축적한 부농(富農)과 부상(富商)들이 경제력을 기반으로 신분 상승을 꾀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4대 봉사를 추진하면서 신분간 차등 규정이 없어지고 이를 일반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80) 현용준, 『제주도무속과 그 주변』, 206쪽.

<광청아기본풀이>는 이러한 원혼의 관념을 가장 잘 드러내는 조상신본풀이로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끌어가고자 한다. 이는 인격신 중 실패 유형으로 원사(冤死)형의 대표적인 본풀이이다. 서사구조에 있어서 원혼형 설화의 구조를 그대로 담고 있다. 만남-애정-임신-이별-찾아나섬-살해-원혼-드러냄(빙의)-해원-좌정의 구조이며 이는 원혼의 좌정담으로서 가장 전형적이다. ‘새각시놀이’를 제안하는 광청아기는 전설 유형 중 ‘바스라짐’의 신부와 유사하다. 밤 늦게까지 누군가를 기다리고, 마치 올 것을 알고 있었던 듯 술상을 준비해놓고 있으며, 새각시놀이라는 이름으로 밤새 성적 유희를 할 것을 먼저 제안하는 등의 행동은 범상하지만은 않은 구조이며, 설화적 요소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광청아기본풀이>나 <이씨불도할마님> 등의 본풀이를 살펴보면 제주도 조상신 신앙의 관념이 한반도 본토의 조상 숭배 신앙과의 교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본풀이 안에서 현재 제주 무속 신앙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한반도 무속 신앙의 자취가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말명신앙’이다. 광청아기씨의 제의 공간이 한반도 본토의 말명신앙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말명신앙은 무조신의 의미로서 쓰여지기도 하지만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조상신’으로서의 말명신앙이다.

본풀이 말미에서 광청아기씨는 상고판에 ‘열두 물색이 담겨진 서대상지’를 모시는 것으로 자신을 위하라고 하였다. 이는 한반도 본토에 존재하는 말명상자와 유사한 형태이다. 제주 무속 의례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몇 편의 조상신본풀이에서 말명상자와 유사한 내용이 거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말명은 대개 조상의 혼령을 모시는 것으로 관념되며, 그 안에 조상이 입던 의복을 주로 넣어둔다. 이용범은 말명을 ‘위호’의 풍습에서 찾기도 하였다. ‘위호’는 무당의 집에 조상의 혼령을 모시는 것으로 조선시대에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던 풍습이다. 세종실록에는 이를 음사라 하여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⁸¹⁾ 말명과 위호에 대하여 이용범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81) 이능화, 『조선무속고』, 195쪽. : [음가를 금하는 조례(條例)] 세종 25년(1443) 계해(癸亥) 가을 8월 정미(25일), 의정부에서 음사를 금지하는 법을 조목별로 진술하였다. “1. 조부모나 부모의 혼(魂)을 무당의 집으로 맞아들여 위호(衛護)라 한다거나, 혹은 형상을 그려서, 혹은 신노비(神奴婢)라 칭하면서 이것들을 무당의 집에 바친다든지, 비록 노비는 바치지 아니하여도 속은 위호를 설치하거나 혹은 조부모와 부모의 신(神)을 무당집에서 제사지내는 자가 펍 많습니다. …”

… 말명은 조상 가운데서도 한(恨)이 있어 가족의 꿈에 자주 나타나는 혼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 경우 조상의 옷을 만들어 동고리에 넣어 집안 혹은 무당집이나 절에 모셔 두어야만 살아 있는 가족들이 안전하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죽은 조상에 대해서는 상자 속에 의복을 넣어서 말명, 즉 말명상자를 모든 조상에 대해 모셔야 하나 죽은 조상이 굿과 같은 경우를 통해 꼭 말명으로 좌정하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굳이 말명상자를 모시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도 있다. 한편 말명상자를 모실 경우 상자 안에 조상의 의복뿐 아니라 돈도 조금 넣어 둔다고 한다. 또한 집안에서 굿을 할 경우 말명상자 안에 모셔둔 조상 옷을 돌려 주고, 그 상자 속에 있는 돈에 다른 돈을 더하여 조상의 의복을 새로 마련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이가 어려서 죽었다든가 결혼을 못하고 죽는 등의 비정상적인 죽음을 당한 조상의 경우 살아 있는 가족들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명으로 모셔야 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위험한 조상을 모신 말명상자는 방으로는 못 들어가고 문 입구, 신발장 위 같은 곳에 올려놓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말명상자는 대부분 굿당이나 무당의 신당에 모셔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말명을 굿당이나 신당에 모시는 것은 조선시대에 조부모나 부모의 혼을 무당 집에다 모셔 놓았던 위호(衛護)를 연상시킨다.⁸²⁾

이 내용을 보면 유교적 제사 예법이 유입되기 전 우리 민족 고유의 조상 숭배 의식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의복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관념과 죽은 조상의 혼을 집안에 모시는 의례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정상적인 죽음을 당한 조상의 경우에는 그 조상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굿당이나 무당의 신당에 모셔 원한을 풀어내고자 했던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말명상자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다른 본풀이는 <이씨불도할마님>이다. ‘이씨불도할마님’이 불타는 집을 나오면서 끝까지 지키려고 한 ‘안고팡에 모셔놓은 오합상지(烏合箱子)’가 있다. 그러나 아들에 의해 그 상자가 불태워지자 결국 ‘이씨불도할마님’은 병을 얻어 죽게 된다. 이 상자를 한반도 본토에서 보여지는 ‘말명’의 신체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말명은 위와 다른 말명상자로

82) [출처 :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 신앙>무신>말명. 이용범.]

보인다.

이능화는 『조선무속고』에서 ‘만명(萬明)’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의 ‘만명(萬明)’을 말명이라고도 하는데 ‘무조신(巫祖神)’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명이란 신라 김유신의 어머니 만명부인을 신으로 삼아 만명이라 말하는 것이다. 소운거사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이르기를 “『동국여지승람』에서 ‘영남의 군 위현(軍威縣) 서악(西岳)에는 신라 김유신의 사당이 있다.’ 했고, 그의 어머니 만명 역시 신이 되었으니, 지금 무녀들이 주문에서 만명을 부르면서 제사한다. 만명신을 모시는 곳에는 반드시 구리로 만든 둥근 거울을 걸어놓고 이를 이름하여 명도라 한다.”는 것이 곧 그것이다.⁸³⁾

‘이씨불도할마님’은 무업을 하는 삼승할망으로 여기서 말하는 ‘만명’을 의미하는 오합상자를 모셨을 가능성이 높다. 즉 본인이 모신 ‘몸주’로서의 말명상자가 불태워졌기 때문에 병을 얻어 죽게 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한반도의 조상 숭배 의례와 관계있는 대목이 또 하나 있다. <광청아기본풀이>는 ‘손각씨(孫閣氏) 귀신’과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 혼인하기 전 선대 조상에게 이를 알리고 제액과 복운을 빌었던 ‘혼인여탐굿’의 하나로 다음은 이에 대한 설명이다.

세속에 전하기를 손씨 집안에 규수가 있었는데 출가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를 일컬어 손각씨 귀신이라고 했다 한다. 이 귀신을 섬기는 집에서는 처녀가 있어 출가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여자 무당에게 부탁하여 예탐신사(豫探神祀, 여탐굿)를 행하였다. 이는 대개 신의 뜻을 미리 알아본 뒤에 출가시킨다는 것이다. 혼인 예복을 만들 때에는 옷감의 한쪽 끝을, 마치 양복점의 옷감 견본처럼 조금 잘라서 신을 모시는 상자 속에 넣어두며, 무릇 음식과 새로운 물건이 생기면 반드시 먼저 진상하였다. 대개 각시란 규수에 대한 명칭이며, 손은 곧 손님이라는 뜻으로 외부로부터 침해를 말하는 것이다. 손각씨를 모시는 방법은 여자 인형을, 마치 여자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자고(紫姑)처럼 만들고, 연두색 저고리에 다홍치마를 입히고, 화장도구를 모두 생시에 쓰는 것과 똑같이 만들어 종이상자에 넣어 대나무 그릇에 간직하고, 수시로 무

83) 이능화, 『조선무속고』, 268쪽.

너를 불러 신사(神祀)를 행하여 이를 달랜다.⁸⁴⁾

이 설명에서 필자는 세 가지 정도에 주목하였다. 위의 밑줄 친 대목이 그것이다.

첫 번째는 ‘이 귀신을 섬기는 집’이다. 즉 손씨 집안이 아니더라도 이 귀신을 섬기는 집안이 있다는 것이며, 제주도의 비혈연 조상을 모시는 조상신 신앙 양상과 유사하다.

두 번째는 ‘신을 모시는 상자’에 ‘옷감’을 넣어둔다는 것이다. 이는 말명상자와 동일한 의례의 양상을 보여준다.

세 번째는 ‘손각씨 귀신’의 신체에 대한 설명인데, 광청아기씨가 송동지영감을 대상으로 한 ‘새색시놀이’를 연상하게 한다. 서로 옷을 바꿔 입는 놀이를 제안한 광청아기씨는 결국 자신의 옷인 연분홍저고리에 연분홍치마를 인형놀이 하듯 송동지영감에게 차례차례 입혀갔던 것으로 구연된다. 아직은 연관성에 대한 해명이 분명하지 않으나 더욱 연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 조상신 신앙은 한반도의 조상 숭배에 대한 무속 관념을 교류하며 형성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조상신을 위한 단독의 무속 의례가 없다. 한반도 본토에 조상신 의례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제주곳에서 석살림이 조상신을 모시는 주요 제차이긴 하지만 맞이곳의 다양한 신을 모시는 기능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조상신을 위한 단독 제차는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조상신본풀이는 다양한 제차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연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특정한 제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기도 하다. 제주도의 조상 숭배 의례는 특정한 의례는 없으나, 독자적인 조상신본풀이의 형태를 전승하고 있다는 면에서 특수함을 갖는다.

2.2. 한반도와의 교류

무속 신앙 관념에 속하는 본풀이들은 그 내용 속에 한반도와의 교류를 직접적으

84) 이능화, 『조선무속고』, 328쪽. 밑줄은 본고의 필자가 표시하였다.

로 드러낸다. 한반도와의 교류 속에 변화·발전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조상신 신앙의 확장을 가져온 것이다.

<나주기민창본풀이>는 조상신의 성격으로 보았을 때 비인격신에 속하는 본풀이이다. 그러나 한반도와의 교류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분류의 성격을 대표하는 본풀이 중 하나로도 삼을 수 있다. 조상신 신앙과 당신앙의 교섭을 통해 무속 신앙이 확장된 양상을 보여준다.

<토산 여드렛당 본풀이>에서 나주 산의 신이었던 존재가 서울을 거쳐 제주도에 내려오고, <나주기민창본풀이>에서 나주 곡식 창고의 신이 제주로 옮겨오는 현상은 제주 신앙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부군신앙이든지 뱀 신앙이든지 간에 제주와 육지와 교류 속에 놓여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⁸⁵⁾

허남춘은 한반도와의 교류 속에 제주도 신앙이 변화되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위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또한 본풀이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는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첫째는 조상신과 업신앙(부군칠성)의 관계를, 둘째는 조상신과 당신의 관계를 살필 수 있다. … 이 본풀이 자료에서 나주 기민창고를 지키던 무곡섬의 조상, 즉 무곡을 지키던 구렁이가 기민창고가 비어 갈 곳이 없어 제주도로 따라 들어왔다는 설정은 결국, 나주 고을 기민창의 업이 제주도로 옮겨 간 것을 의미한다. 제주도와 육지의 활발한 교류가 있게 되면서 나주 곡식 창고의 신앙이 이동한 증거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육지에서 온 신이 토착신의 제지를 받지 않고 제주에 들어와 조상신으로 숭배되었다.⁸⁶⁾

한반도와의 교류가 제주도 조상신 신앙에 끼친 하나의 의미있는 서술이라 할 수 있다. <나주기민창 조상본>은 조천 포구 새콧당의 새콧당 고망할망과 안씨 집안의 조상신에 대한 의례가 혼재되어 구연된 경우이다. 나주 기민창에 있던 부군칠성이 창고에 쌓여있던 무곡과 함께 제주에 입도한다. 무곡을 실어온 안씨 집안으로 좌정

85) 허남춘, 「칠성과 부군(府君) 신앙, 뱀 신앙」, 27쪽.

86) 허남춘, 「칠성과 부군(府君) 신앙, 뱀 신앙」, 39쪽.

하러 하였으나, 그 가옥 내에서는 좌정할 만한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였다. 결국 순흥 안씨 집안을 상단골로, 함께 곡식을 구하러 다녔던 한씨와 박씨는 각각 중단골과 제민단골로 인연을 맺어 처음 배가 닿았던 조천 포구 새룻알 아래 좌정하고 새룻알로 가는 모든 배와 삼천잠수, 일만어부를 호위하는 개당[浦堂]의 당신(堂神)으로 자리잡는다.

이 본풀이에서 부군칠성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구연하고 있다. ‘뱀’이 갖고 있는 생태적 속성을 표현하는 대목이다.

궁기(구멍)마다 구월 구일(九月九日) 들어가 삼월삼진(三月三辰) 당허여가민 산천초목(山川草木)이 살아올 때 즙손(子孫)의 눈에 펜식(變識)도 하게 맞서. 울성장안 감돌지 맙고 녀 나고 혼(魂)날 일덜 막아줍서.⁸⁷⁾

즉 부군칠성으로서 꼭 필요한 ‘마땅한 궁기(구멍)’를 선주들의 집안에서는 찾지 못하여 좌정처를 변경하였고, 좌정처에 맞는 직능으로 확장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좌정처를 기준으로 볼 때 새룻당의 당신으로 갖는 역할이 더 주요하게 여겨진다. 본풀이의 흐름을 보면 결국 당신으로 먼저 좌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본풀이가 안씨 집안의 조상신으로 전승되는 것을 보면, 결국 새룻당의 당신을 상단골의 자손들이 집안에서도 모시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대체로 한 지역에서 번성한 집안의 조상신이 그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당신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더욱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의 수호신을 집안의 수호신으로 모셔오는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본풀이에서 구연되는 의례 방식을 보면 당신앙과 조상신 신앙의 혼재가 드러난다. 당에서 당신을 모시는 방식인 정월 신과세와 한 집안에서 조상신을 모시는 방식인 ‘삼뎡일 기일 제사와 철같이’가 동시에 제시되는 것이다.

기민창 조상은 제주시 외도동의 ‘두리빌렛당’과도 연관이 있다. 무곡을 가득 실은 배가 제주로 오다 배창이 터져 가라앉을 뻔한 것을 기민창의 조상이 막아주어 그 배의 선주인 김동지 부인이 모셨다가 갯가 두리빌렛당으로 모셔갔다는 본풀이이다.⁸⁸⁾ 이 본풀이 역시 외도동 김씨 집안의 조상신으로 모시려 하였으나 결국은 그

87)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681~682쪽.

지역의 당신으로 좌정하게 되었다는 구성으로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김윤수 심방이 구연한 <고전적 하르바님>에서도 당신양과 조상신 신앙의 의례의 혼재를 볼 수 있다. 즉 “먼디 간 즈손은 일월로도 모시곡, 즈끗디 즈손은 본향으로도 위협허곡 허는.”이라는 구연을 보아, 이 또한 본향신과 집안의 조상신으로 함께 모시는 신으로 관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⁸⁹⁾

와산과는 달리 예촌의 <양씨아미본풀이>는 당신(堂神)과 연관되어 전승되는 본풀이이다. 와산의 <양씨아미본풀이>는 양씨아미가 죽은 후 오빠들과 그 자손에 의해 양씨아미가 조상신으로 모셔진 경우이다. 그런데 예촌의 경우는 양씨아미와 오빠 모두 자손이 없는 상황으로 그 집안의 조상신으로 모셔지는데 한계가 있었으리라 본다. 그 결과 조상신이 아닌 당신으로 좌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오누이의 원한을 아는 마을의 신앙민들이 오빠인 양씨열이는 본향당으로, 양씨아미는 개당[浦堂]으로 모셔 오누이의 원한을 풀고 그 의례에 대한 보답으로 마을의 수호를 보상받은 것이다. 양씨열이가 좌정한 본향당의 당굿을 하기 위해서는 양씨아미를 위해 ‘용왕 몸기를 세우는 당’이라는 특별한 전승이 있다. 하지만 이 본풀이가 전승되는 하례리 지역의 현재 본향당인 예촌본향당에는 하로영산백관님, 강남 천즈도원님, 칠오름 도병서를 본향당신으로 모시고 있다. 남원을 어디에서도 양씨열이신당이라는 본향당은 찾아볼 수가 없다. 단지 성산을 신천리 본향당인 현씨일월당에서 이와 유사한 서사를 가진 본풀이가 전승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위와 달리 오빠에 대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심방이 된 누이동생이 본향신으로 좌정한 내용만 전해지고 있다.

<영아릿부씨조상본>은 구좌읍 상도리 부씨집안의 조상으로 전형적인 수렵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조상신으로 모셔지고 있지만 본풀이 내용에는 “하로영산(한라산)에서 솟아나고 … 상동(구좌면 상동리) 팔백리를 비추난 조상의 은덕을 아니 입은 백성이 었어지난” 등의 구연이 있다. 한라산에서 용출한 신은 제주도 당신(堂

88)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349~350쪽.

89) 김현선 외 2인, 『제주도조상신본풀이연구』, 372쪽. : “멀리 가 있는 자손은 일월(조상신)으로 모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손은 본향신으로 위하고 하는.”

神) 중 뚜렷한 하나의 계보를 형성하는 신이다. 또한 구연된 것과 같이 그 지역의 전체를 굽어 살피는 직능을 볼 때에도 조상신이 당신(堂神)으로 확대된 경우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당신의 성격을 띠는 조상신뿐 아니라 조상신의 성격을 띠는 당신의 본풀이도 다수 전승되고 있다.⁹⁰⁾ 이러한 양상을 볼 때 당신앙과 조상신 신앙의 교류는 적지 않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두 층위의 신이 갖는 직능의 유사성이나 신앙민의 동일함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⁹¹⁾

한반도와의 교류를 통하여 무속 신앙적인 관념이 확장되고 다층적인 측면에서 발전하였다. 이는 조상신본풀이의 변화와 발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한다.

2.3. 의례의 다양화

한반도와의 교류 확대를 통해 무속 신앙적 관념이 강화되면서 의례는 더욱 다양화되었다. 자연 신앙적 의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선씨일월본>에 남아있다. 다른 본풀이에서 보이는 보편적인 의례의 양상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새해 과세문안’만을 받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는 선씨일월 조상신의 직능과도 관

90) 참고로 조상신과 관련한 당신본풀이는 목록만 정리하여 수록한다.

[표 2. 조상신 관련 당신본풀이 자료 목록]

	제 목	구연자	자료명	발간년도
1	토산 여드렛당	한원평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
2	호근이마루으드렛당본풀이	고창학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
3	월당할망당(신평리)	홍매화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4	명두암당	김만택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5	두리빌렛당①(외도동)	문창옥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6	신천본향①(신천리)	고옥순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7	신천본향②(신천리)	신명근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8	신천본향③(신천리)	정두삼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9	금덕본향(금덕리)	고정화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91)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현용준은 ‘濟州島 巫神의 形成」Ⅲ. 부락수호신’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계가 있어 보인다. 이 조상신의 주된 직능은 그 집안 자손의 한 해 액운을 예고하는 것이다.

일년(一年) 한번 새해(新年) 금년(今年) 당후민 과세문안(過歲問安) 가며, 그 헛금년(其年今年) 그 주당(主堂)의 송엄(凶險)이 뒤고 좋지 못후민 은진미력(恩津彌勒) 섭돌이 아니 굶은 그릇이 나고 몸천(肉身)이 어얄 어얄 벌러져 벌러진 그릇으로 물숨이 나고 보면, 그 집안에 그 해우년은 눈물이 나고 몸천으로 뚝이 날 일이 당후고 맙네다.⁹²⁾

이렇게 한 해의 액운을 점치는 역할을 주된 직능으로 하다 보니 그 의례 또한 '새해 과세문안'으로 한정하여 전승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주요하게는 토착적 자연 신앙이 중심이 된 조상신 의례 양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자연 신앙이 무속 신앙으로 수렴되면서 정리된 조상신 의례 양상은 다양한 방식을 동시에 포함한다. 여기에 속한 본풀이 대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구연되고 있다.

삼명질[三名日] 기일 제스(忌日祭祀) 때에도 연양상고팡(靈筵上庫房)으로 상(床) 훈 상을 바짜꼭 큰굿엔 열두석시 족은 굶엔 ㄹ궫석시 앳인제 삼석, 헤 넘는 철갈이로 풍악(風樂)으로 나 간장(肝腸)을 풀러도라⁹³⁾

삼대 명절과 기일 제사는 조상 숭배 의례에 해당한다. 그리고 굶이 있다. 그 집안에서 무속 신앙 의례인 굶을 행하면 그 각 규모에 맞게 조상신을 거듭 모시도록 조상신 스스로 원하고 있는 것이다.

<광청아기본풀이>에서 광청아기에 대한 해원의 방식을 보면 무속과 유교적 방식

92)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716쪽. : '일년에 한 번 새해가 되면 과세문안을 가고, 그 해에 그 집안에 좋지 않은 운이 있으면 은진미력 섭돌에 원래 없던 금이 생겨서 돌 사이가 벌어져 거기서 물기가 솟아납니다. 그러면 그 해 그 집안에는 눈물 날 일이나 급한 일이 생겨서 몸에 땀날 일이 생기는 법입니다.'

93)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687쪽.

이 결합되어 있다. 광청아기는 송동지영감 막내딸에게 빙의하여 스스로를 드러낸다. 막내딸의 입을 빌어 구체적인 해원의 내용을 발화하게 한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송동지영감은 그 원한의 해결 방법으로 먼저 심방을 불러 바다에서 삼혼을 건져내고 ‘원성귀제맞이’ 즉 굿이라고 하는 무속적 방식을 제시한다. 동시에 자신의 셋째 아들을 광청아기에게 입양시켜 그 아들을 통해 ‘축지방을 고하게’ 하는 유교적 방식을 동시에 제시한다. 조상에 대한 제사는 물론 고유한 민족적 조상 숭배 의례의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축지방’이라는 것을 통해 유교적 방식을 함께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원혼’이라는 토착적인 영혼관이 무속과 유교라는 종교적 방식과의 합일을 통해 해결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전승이 변모되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통하여 제주도 조상신 신앙이 토착적 조상 숭배, 민간 신앙, 그리고 무속 신앙 의례를 모두 포괄하여 전승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상신 의례의 특성은 비정형성과 반복성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전형성을 벗어나는 조상신이 있다. 앞서서도 제시한 <원당할망본>의 경우, “양반광 곶이 기일제스 스명질을 받아먹을 수 엇노라.”라고 하면서 안찰성, 밧칠성과 유사한 방식의 의례만을 해줄 것을 원하였다. 위의 보편적인 의례 전승을 거부한 것이다. 그 이유는 원당할망을 원사(冤死)에 이르게 한 당시 신분제도에 대한 거부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전형적인 경우는 <선을리 안판관 제주판관본>에서도 보인다. 이 경우는 의례를 언급하는 데 있어 오직 무속 의례인 굿만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신앙의 주체가 순흥 안씨 집안에서 고씨 심방의 집안으로 넘어가면서 변화되어진 양상으로 해석된다. 즉 의례의 주체가 심방 집안이다 보니 ‘굿’으로만 의례를 단순화한 것이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조상신본풀이에는 입무담(入巫談)의 본풀이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 그런데 앞에서도 밝혔듯이 여성형 입무담의 경우 전형적인 실패 유형의 성격을 갖는다. 그 중 조상신본풀이 형성과 관련한 단서를 주는 내용이 있어 짚어보고자 한다.

눈미 와산 지역에서 전승되는 <양씨아미본풀이>의 경우, ‘양씨아미’의 입무(入巫)를 막고자 하는 큰오빠가 ‘개장국’으로 결국 ‘양씨아미’를 죽게 하는 화소를 모든 이본이 가지고 있다. 이는 무속 집단이 갖는 개고기 금기 관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입무의 뜻을 가진 양씨아미에게 금기 음식을 강요하면서 실패의 결말을 맺게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이본이 하나 있다.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에 소개된 양창보 구연본이다.

큰오라방은 어디 갔단(갔다가) 오란(와서),

“저 년 놔두민 아이(아니) 뉘다, 저 귀신(鬼神) 미친 거난(것이니) 귀신을 떼젠(떼려고) 허민(하면), 개 혼 머리 때려 잡으라.”

개를 잡아놓고, 그거를 짚은 물에다 그 문을 올라 누이동싱 머리 끄덩일(머리끄덩이를) 잡아놓고, 딱 마당에 꽃어다(끌어다) 난, 그 개고기 삶은 물에다 막 몸 모욕(沐浴)을 시기곡(시키고) 말 헤어가난(하여가니),⁹⁴⁾

위에서 큰오빠는 ‘양씨아미’의 입무를 위한 신병(神病)을 부정하고 정신질환으로 본다(“귀신 미친 거난”). 그리고 정신질환의 원인이 귀신으로 인한 것이라 판단한다(“귀신을 떼젠 허민”). 결국 ‘개장국’은 귀신을 구축(驅逐)하기 위한 민간의례나 민간의학 전승을 적용한 경우로 보여진다. 무속적 세계관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는 큰오빠가 정신질환의 원인을 ‘귀신의 빙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흥미롭다. 이러한 질병관은 오래전부터 민간에 널리 퍼진 우리 민족의 관념이었으며 무속적 관념으로 이어져온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용옥이 구연한 <이씨 불도 할마님>은 기자(祈子) 치성을 드리다 강신(降神)하여 삼승할망이 된 조상에 대한 본풀이이다. 이 조상은 말 한마디로 흥함을 줄 정도로 높은 신력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 본풀이에 전형적인 민간 신앙의 제의 형식이 등장한다. “장항 뒤에 강 물 떠다 놓앙 아침 저녁으로 생꼬 피와 놓고 물 떠 놓앙 벌곡”이 그것이다.⁹⁵⁾ 그뿐 아니다. 제주 무속의 토착적인 산육신(產育神)이라 할

94) 김현선·현용준·강정식, 『제주도조상신본풀이연구』, 338~339쪽. 밑줄은 본고의 필자가 표시하였다.

95)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이용옥심방 본풀이』, 441쪽. : ‘장항아리 뒤에 가 물 떠다 놓아 아침 저녁으로 향 피워놓고 물 떠놓아 벌고.’

수 있는 삼승 할망의 제의 형식도 자세히 보여진다.

… 애기 못 낳 허는 디 강 상가메 술술 씨러가민, 애기 못 낳 허단 애기 어명도 그 애기도 나고, 애기가 춤막춤막 놀래멍 그 애기 즈드는 디가 잇어도 할마님 강 ‘어마 녀들라 어마 녀들라’ 아이고 할망 즈순이엿 행 연식번, 술술 썰민 애기도 편안혜영 잘 크고 …(96)

위의 두 경우에서 보듯 민간 신앙과 무속 신앙이 그간 어떻게 습합되어 왔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두 신앙은 의례의 주재자나 규모를 달리할 뿐 함께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를 통하여 조상신 신앙과 그를 드러내는 조상신본풀이가 이러한 두 영역을 아우르며 성장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입무담 본풀이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다. 이용옥 심방이 구연한 <양씨애미>의 경우 ‘양씨애미’의 실제 사망일을 21세 되던 해의 5월 24일이라 관념하고 있는 것이다. 양씨애미가 5월 24일 죽었다는 내용은 이중춘이 구연한 <양씨애미>에도 동일하게 제시된다. 즉 제주 무속사회에서 ‘양씨애미’를 실존했던 인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진술이다.

필자는 이와 동일한 양상을 <원당할망본>의 현재 전승 상황에 대한 조사 중 확인할 수 있었다. 서귀포시 신평리에서 ‘원당할망’에 대해 조사하던 중, 시어머니에 이어 원당할망을 모셔왔던 ‘현○○’ 제보자가 ‘원당할망’의 실제 기일과 실제 묘지의 존재를 믿는 경우였다.⁹⁷⁾ 이러한 양상은 여성 입무담이 갖는 특성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토착적 민간 신앙과 무속 신앙이 습합되며 조상신본풀이에 끼친 영향과

96)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이용옥심방 본풀이』, 441쪽. : “아기 못낳고 있는 데 가서 상가마를 살살 쓸어주면, 아기 못 낳던 산모도 아기를 낳게 되고, 아이가 깜짝깜짝 놀라 떼를 써도 할머님이 가서 ‘어마 녀들라 어마 녀들라.’하며 ‘할머님 자손입니다.’ 하면서 연세번 살살 쓸어주면 아이도 편안하게 되어 잘 자라고.”

97) 현○○, 1945년 생, 女, 서귀포시 신평리 거주, 온평리에서 신평리로 시집왔으며, 시집오기 전부터 ‘원당할망’이라는 이름은 들어봤고, 시집온 후 시어머니에게서 ‘원당할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의례 방법을 배워서 평생을 모시고 있다. 의례의 방법은 그 집안의 주부인 여성이 명절에 ‘원당할망상’을 부엌에 따로 차리고 몰래 모시는 것이다. 남성들이 의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 척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제보자의 설명이었다. 제보자는 신평리 내 다른 집안에서도 원당할망의 신력을 느껴서 드러내지 않고 몰래 모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7년 9월 12일 신평리 현○○씨 댁 자택에서 조사.)

그로 인하여 조상신본풀이에서 구연되는 조상신 의례 양상의 다양성을 확인하였다. 민간 신앙의 관념과 의례가 단절되지 않고 조상신본풀이에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어진 의례가 무속 의례와 합쳐져서 조상신 의례 양상의 다양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무속 신앙의 영향이 강화되면서 입무담의 성격을 갖는 조상신본풀이가 주된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역사적 사실 관념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본풀이는 인격신 중 혈연 조상을 중심으로 하며 성취 유형이 주를 이룬다. 성취 유형 중 관직 성취담이 주를 이루는 <윤대장본>, <이만경본>, <웃기 감목관 본풀이>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며, 실패 유형에 속하는 <양이목사본> 또한 역사적 실존 인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조상신이 갖는 특성은 대부분 제주도 토착민이 아니라 한반도 본토에서 이주해온 집안이라는 사실이다. 즉 어떠한 이유에서든 한반도 본토에 있는 각 집안의 본향을 버리고 제주도로 이주하여 정착한 경우이다. 이주의 이유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본향에 계속 거주하지 못하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크던 작던 쇠퇴의 기운이었을 것이라는 내용은 짐작할 수 있다. 쇠퇴의 기운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특정 집안이 제주도 정착에 성공하고, 그 성공을 이끌었던 집안의 혈연 조상이 조상신으로 좌정하는 경우이다. 결국 이 유형의 조상신은 쇠퇴한 가문을 다시 일으킨 중시조(中始祖)의 성격을 갖는다. 거기에 더하여 특정 집안의 제주도 입도조(入島祖)의 위상을 갖기도 한다.

<나주기민창조상본> 초반에 안씨 선주의 조상이 등장한다. 즉 순흥에서 제주도로 입도한 입도조의 내력에 대한 이야기이다.⁹⁸⁾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대략 1400년대

98) '순흥안씨 대종회 연원'에 따르면 순흥 안씨는 순흥의 토족 성씨이다. 시조 안자미(安子美)는 고려 신종 때 흥위위보승별장(興威衛保勝別將)을 지내고 흥령현(興寧縣)순흥의 별칭에 정착하였

즈음이다. 본풀이의 내용은 3개의 파로 갈라져 입도한 순흥 안씨 집안을 삼형제로 형상화하였으며, 정착 지역에 있어서는 사실성을 유지하고 있다. 대개의 서사 구조가 삼 형제를 취하기도 하지만, 역사적 사실의 반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이기도 하다.

이 시기의 본풀이가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그 주된 인물이 역사적 사료에 등장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더하여 본풀이에 제시되는 지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주기민창조상본>에는 ‘나주 기민창’과 ‘영암 덕진다리’, ‘베진고달또’라는 지명이 등장한다. 이 지명은 제주도에서 한반도 본토와 왕래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부분의 조상신본풀이에 나온다.

전남 영암군의 덕진면에 있는 ‘덕진다리’에는 통일신라 시대의 ‘덕진’이라는 여인에 대한 설화가 전해진다.⁹⁹⁾ 중요한 것은 이 다리가 제주도에서 영암을 거쳐 나주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하는 다리라는 것이다.

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순흥 안씨는 한림공파(翰林公派)·감찰공파(監察公派)·참찬공파(參贊公派) 등 3파로 갈라진다. 제일 먼저 입도한 순흥 안씨는 한림공파(翰林公派)의 파조인 안득경(安得敬) [시조 안자미의 10세손]이다. 두 번째 입도한 감찰공파의 파조인 예조 참의 안수도(安秀道) [시조 안자미의 13세손]는 애월읍 납읍리에 입도했다. 다음 참찬공파 파조는 안수억(安壽億) [안자미의 17세손]으로 1610년(광해군 2)에 제주에 입도했다. 이 중 순흥 안씨 감찰공파는 제주 애월에 정착한 후 그의 아들 안보상(安甫尙)은 조천면 선흥리로 옮겨가 살게 되었으나 그의 아들 순손(順孫) 대에 이르러 다시 애월읍 납읍에 정착하여 살았다. 그의 손자 의인(義仁)에게 아들 3형제가 있어 맏이 안흥국은 납읍에 머물러 살고, 둘째 안흥남은 다시 선조가 살던 땅 조천면 선흥리에 살았다. 막내 안흥대는 표선면 가시리로 이주하여 각각 정착 생활의 토대를 닦았다. 현황을 보면, 제주의 순흥 안씨 중 감찰공파는 3파 중 가장 후손이 번창한 가문이며, 한림공파는 한경면 일대를 근거지로 후손들이 번창해 왔고, 오늘날에는 제주도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인구 면에서 감찰공파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 무속의 큰심방 중 하나인 안사인도 순흥 안씨 집안으로 알려져있다.

[출처 : 순흥안씨 대종회 <http://www.shahn.co.kr/history/index.asp>,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ko/Contents?dataType=01&contents_id=GC00710815]

99) <덕진교의 덕진 여인 설화> 통일 신라 때 덕진이라는 여인이 지금의 영암천변에서 주막집을 운영하였다. 당시 이 지역은 강진 등 남해안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교통로 중 하나로 사람의 왕래가 많았다. 그런데 손님들은 강에 다리가 없어 건너는 데 불편을 겪었다. 특히 장마철에는 하천의 강물이 불어나 목숨마저 위협했다. 덕진은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리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한 푼 두 푼 땅속 항아리에 묻기 시작하여 300냥이라는 거금이 모였다. 그러나 덕진 여인은 원인 모르는 병에 걸리어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되면서 소원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영암 원님이 부임해 왔다. 첫날 밤, 원님의 꿈에 소복을 입은 부인이 나타났다. 다음 아님 죽은 덕진 여인이었다. 덕진 여인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묻어놓은 돈 삼백 냥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날이 밝자 원님은 덕진 여인이 일러준 곳을 파보았다. 과연 삼백 냥이 발견되었다. 원님은 이 돈으로 큰 다리를 놓은 다음 덕진 여인의 이름을 따서 덕진교라 이름하였다.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베진고달또’ 역시 역사적으로 실제적 중요성을 띠는 곳이다. 전라남도 영암군에 속하였던 해남군 북일면 남창리에 있는 조선 시대의 선소를 칭한다. 선소(船所)는 배를 정박하거나 수리하는 포구를 말한다. 고달도 선소(古達島 船所)가 있었던 고달도는 현재는 전라남도 해남군 남창 마을에 속하나 조선 시대에는 영암군에 속하였다. 또한 고달도는 달량, 이진, 남창 등으로 불리었다.¹⁰⁰⁾ 15세기 중반부터 제주도로 가는 관리들이 고달도 선소에서 배를 탔다고 전해진다. 즉 고달도의 선소는 조선시대에 육지에서 제주도를 뚫단배로 왕래하며 이용하였던 제일의 포구이자 선박의 수리처였던 것이다.¹⁰¹⁾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시기에 속하는 조상신본풀이의 대개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역사적 실제 인물에 대한 본풀이로 추정되는 <양이목사본>은 신앙의 주체가 제주 양씨 집안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본풀이의 내용은 상당히 범제주적이다. 중앙권력의 제주도민에 대한 가혹한 수탈이 주된 내용이다. 양이목사는 본인을 희생하여 제주도민의 원한을 풀고 그 원인이 되었던 ‘백마 백필 진상 제도’를 폐지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앞서 유형 분석에서 밝혔듯이 역사적 사실과 전승되는 내용의 상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전승 주체에 의한 의도적 변형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조상신 본풀이가 역사적 시기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변형되고 재생산되었다는 것이다. 그 변형의 이면에는 신앙민의 이해가 있었을 것이며, 그에 맞추어 재생산되는 과정을 거쳐왔을 것이다. 이는 현재적으로도 의미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조상신 신앙과 조상신본풀이의 현실적인 변모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이 중춘 심방의 <잡기장>이 있다. 앞서도 밝혔듯이 여기에는 136개 단골 집안에 전승하는 조상신 내력이 기록되어 있다. 8개 위(位) 이상의 조상신을 모시는 집안에서부터 4~5개 위(位) 정도의 조상신을 모시는 집안까지 있다. 이 중 두 집안의 조상신을 살펴보고자 한다.

100) 김익(金燧)의 『죽하집(竹下集)』에 “고도[달도]의 서쪽에 해월루가 있으며, 이진은 즉, 고달도이다 [古島之西海月樓 梨津即古達島也].”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영암의 남쪽에 있는 남창(南倉)이 고달도에 설치되어 남창이라고도 불리었다. 그런데 남창은 인근 이진(梨鎭) 만호가 관리하여 이진창이라고도 하고, 중앙 정부에서는 그냥 이진이라고도 불렀다.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101)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 홍○○ 1. 운동지 석석미력
 2. 고동지 양이목서
 3. 오씨불미 세명주
 4. 할망 큰여알서 눈에 편식한 서낭(왕대, 죽대, 자죽대)
 母5. 광청할망
 6. 책불¹⁰²⁾

한○○ 딸 (선조는 김녕)

1. 한동지영감 두지 9말 9대 9딸 9형제 부제팔명하던 조상 한동지 몸바든 서낭
2. 책불. 산신
3. 광청할망
4. 성진할망 부대각할으방. 서낭(책참조)
5. 외진 이씨 할으방 파산배 서낭
6. 고씨 신산. 책불. 불도. 서낭
 씨아방 칠성 옆에서 개 잡아먹어 3년 울다 죽고
7. 독계동산 앞에서 물질할 때 머구리옷 보와 놀에도 중청도 물질 갈 적에 이탁한 서낭 고씨 영가 닷줄에 가마지여 죽어 월액
8. 고씨 아덜 낳서 20日만에 씨집의 가난 예기가 울어 천장들에 내려여보난 배음의 기여댕김 그 후에 앞파서 주사 마저 다리 절고 2003年 음2月 9日 대을굿당으로 간 3日간 굿 추고¹⁰³⁾

위 두 집안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집안에서 모시는 조상신이 아주 다양하다. 본고에서 구분한 분류에 따르면 비인격신부터 인격신의 실패 유형, 성취 유형을 모두 한 집안에서 모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채록되어 전승되는 보편적인 조상신본풀이 뿐 아니라 새로이 형성되는 조상신의 흔적이 보이기도 한다. 즉 조상신 신앙은 제주 무속 신앙 중 끊임없이 살아서 재생되는 것으로 현재까지도 전승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신앙 양상이라 할 수 있다.

102) 김현선·신연우·강정식·강소전, 『제주도 큰심방 이중춘의 삶과 제주도 큰굿』, 민속원, 2013, 183쪽.

103) 김현선 외 3인, 『제주도 큰심방 이중춘의 삶과 제주도 큰굿』, 195~196쪽.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제주도 조상신본풀이는 세 가지의 관념을 가지고 형성되어왔다. 자연 신앙적 관념, 무속 신앙적 관념, 제주도의 역사적인 사실이 반영된 관념이 그것이다. 토착적인 성격을 갖는 자연 신앙적인 관념이 단절되지 않고 현재 전승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들면서 활발해진 한반도와의 교류는 신앙적인 측면에서나 본풀이의 서사 내용의 측면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 결과로 제주도 무속 신앙이 강화되는 과정을 낳았다. 강화된 무속 신앙은 조상신 신앙에도 영향을 끼쳐 조상신을 모시는 집안의 확산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제주도에 이주한 집안의 경우, 성공적인 입도를 이룬 혈연 조상을 집안의 조상신으로 모시게 되었다. 이와 유사한 양상으로 특정 집안의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 큰 업적을 이루고 조상신으로 좌정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제주도 조상신의 가장 큰 특징은 다층적이고 다양하다는 점이다. 본풀이에서 보여주는 조상신의 내력은 하나의 갈래로 묶을 수 없다. 대상신의 특성도 다양하고 포괄적인 층위와 연결되어 있고, 좌정하는 이유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이는 조상신이 특정 집안의 수호신이라는 직능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이유가 다시 조상신 본풀이의 형성에 영향을 끼쳐 다양한 관념을 수렴하는 과정을 낳았다고 생각한다.

IV. 결론

본고는 제주도 무속 신앙 중 조상신의 내력을 풀어낸 ‘조상신본풀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제주도 조상신을 ‘혈연 조상과 비혈연 조상을 모두 포괄하는 한 집안의 수호신’이라는 개념으로 전제하고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것을 전제로 조상신본풀이가 어떠한 신앙적 관념을 갖고 형성된 것인지를 밝히는 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 전승되는 ‘조상신본풀이’ 중 95편을 선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의 조상신 신앙에 대한 연구는 조상신의 개념을 밝히는 것과 조상신본풀이 각편

에 대한 부분적인 연구로 정리할 수 있다. 본고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조상신 본풀이의 전승 분포 양상과 특성을 종합하는 일을 일차적인 과제로 삼았으며, 이 분석을 바탕으로 조상신 본풀이의 형성 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연구 자료로 선정한 95편의 조상신본풀이를 두 가지의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조상신의 특성과 조상신 좌정 동인이 두 가지 기준이다.

첫째, 조상신의 특성을 기준으로 한 구분이다. 이는 비인격신과 인격신으로 나눌 수 있다.

비인격적 조상신의 대표적인 경우는 사신(蛇神)인 부군칠성(富君七星)이며, 그 외에 돌(미륵)이나 생활 도구인 솔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비인격적 조상신의 경우 토착적 신앙 관념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또한 이 유형의 경우 동일한 신격이 일반신과 당신에 혼재되어 상호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다른 유형에 비하여 가신제 의례 형식이나 민간 신앙 의례 형식으로 전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격적인 조상신은 다시 비혈연 조상과 혈연 조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혈연 조상은 특정 집안의 혈연 조상과 원한으로 인연을 맺은 인물로, 그 원한을 풀고 조상신으로 좌정한다. 이 경우 모두 실패 유형에 속한다. 혈연 조상의 경우 총 95편의 연구 자료 중 63편으로 절반을 훨씬 넘는 수를 차지한다. 혈연 조상은 유형 구분 중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다. 이러한 만큼 실패 유형과 성취 유형을 동시에 포함한다. 그런데 혈연 조상 중 실패 유형은 혈연이 갖는 의미가 없으며 성취 유형에서 혈연적 특성을 드러낸다.

둘째, 조상신의 좌정 동인에 따른 구분이다. 이는 실패 유형과 성취 유형으로 나뉜다. 실패 유형은 혈연 조상과 비혈연 조상을 모두 포함하지만, 비혈연 조상적 경향성을 보인다. 또한 남성형보다는 여성형 유형이 중심이 된다. 반면 성취(成就) 유형은 혈연 조상적 경향성을 가지며, 남성형 유형이 중심이 된다.

실패 유형의 배경에는 한민족 고유의 영혼관이 자리잡고 있다. 원혼의 한을 신원(伸冤)해야 하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가문의 번성을 이루게 된다는 관념이다. 실패 유형은 다시 애정 실패담과 입무 실패담으로 나뉜다. 실패 유형은 여성이 주된 인물로 등장하며, 애정 실패담과 입무 실패담 공히 당시 신분 사회의 문제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나 입무 실패담의 경우 천민으로 인식되었던 무업을 하는 신분과

여성이라는 이중적 신분 차별의 장애가 극한의 비극을 이룬 것이라 볼 수 있다.

성취 유형은 생업의 영역에서 걸출한 성취를 이루어낸 동인으로 조상신에 좌정한다. 그러므로 혈연 조상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유형은 다시 관직 성취담, 무업 성취담, 직업 성취담으로 구분한다. 관직 성취담의 경우 역사적 실존 인물로 구성되는 경우를 확인하였다. 무업 성취담의 경우 실패 유형과 달리 남성형 입무담이 주를 이루며 무업의 성취 뿐 아니라 심방으로서의 신이한 능력을 보여준다. 직업 성취담의 경우 직업 수호신의 직능을 설명하는 본풀이가 중심이며 특정 직업의 조상을 가진 집안에서 공통적으로 구연한다.

위와 같이 조상신본풀이의 유형화를 근거로 조상신본풀이가 형성된 신앙 관념을 찾을 수 있다. 정리하면 조상신본풀이는 크게 세 가지의 요소로 형성되었다.

첫째, 자연 신앙적 관념이다. 이는 비인격신 유형을 특성으로 삼는다. 이 유형에서 대표적인 사신(蛇神) 신앙의 경우 한반도의 업신과 동일한 맥락인 것을 확인하였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토착적인 신앙 형태가 중심을 이룬다. 이러한 신앙 관념이 오랜 시간 동안 변화를 거치며 점차 축소되거나 다른 신앙 관념과 혼합되면서 수렴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무속 신앙적 관념이다. 이는 인격신적 유형이 주를 이루며 그 중에서도 실패 유형을 특성으로 삼는다. 한반도와의 다양한 교류를 반영하며 본풀이의 서사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것이다. 서사의 완성은 주로 비극적 결말을 맺는 실패 유형의 경향을 보이며, 혈연 조상 보다는 비혈연 조상의 신이 중심을 이룬다.

셋째, 제주도의 역사적인 사실을 반영한 관념이다. 이는 인격신적 유형 중 성취 유형이 주를 이루며 제주도의 역사적 사실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혈연 조상 중심이며 특정 집안의 중시조(中始祖)의 위상을 갖는다.

제주도 조상신본풀이는 위의 세 가지 관념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왔다. 즉 제주도 토착적인 신앙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면서 한반도와의 교류를 통하여 유입된 무속 신앙 관념과 설화적 요소가 혼합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양상에 제주도의 사실적(史實的) 요소가 더해져 현재와 같은 조상신본풀이 각편들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위에 정리한 각각의 관념에 대하여 시기적인 기준으로 선후를 특정짓기는 어렵다.

다만 개별 요소를 대표하는 본풀이 서사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화소를 통하여 현재 전승되는 조상신본풀이 대부분이 근세적 시기에 완성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각편들이 제주도민 출륙 금지령을 서사의 발단으로 삼고 있는 점, 나주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하는 점, 또한 조상신본풀이에 등장하는 집안의 입도 시기가 대체적으로 조선 중기인 점 등도 이러한 추정의 근거가 된다.

조상 숭배는 인류 보편이 형성해온 가장 장구한 신앙의 역사이다. 본고는 제주도에 현재까지 전승하고 있는 조상신본풀이를 통하여 이러한 보편적인 양상이 제주도 조상신 신앙 속에 어떻게 공유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그 보편성을 함유한 가운데 제주도만의 특수한 신앙 양상을 어떻게 형성해 왔는지 밝혀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제주도의 조상신 신앙은 인류가 함께 보유한 자연 신앙적 관념으로부터 한반도의 민간 신앙, 무속 신앙을 수렴하고 제주도만의 특정한 역사적 사실을 보태어 형성한 신앙 양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는 척박한 자연 환경에 맞서 생존의 역사를 쟁취하기 위하여 필요했던 영속적인 신의 가호를 의미할 것이다. 제주도 조상신의 직능은 여기서 시작하며, 조상신본풀이의 현재적 전승은 고정적(固形的)인 것이 아니라 변천하는 역사를 반영하며 끊임없이 변형되고 신생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지를 정리하는 가운데 이 연구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도 조상신 신앙과 관련하여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으며, 본고의 경우는 조상신본풀이에 한정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러한 아쉬움 속에서도 미흡하나마 앞으로의 조상신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점을 정리해 본다.

첫째, 현재까지 채록된 제주도 조상신본풀이를 새로운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각편의 본풀이가 갖는 특성을 좀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둘째, 조상신본풀이 유형 분석을 통하여 일종의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

석을 근거로 조상신본풀이를 형성한 신앙 관념의 요소를 정리하였다.

셋째, 조상신 신앙이 현재까지도 새로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신앙 양상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제주도 무속 신앙의 다른 갈래에 비하여 고정적(固形的)인 측면을 갖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신앙민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이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을 보여준 것으로 유의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미흡하고 한정적이지만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조상신 신앙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확장되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번 연구에서 밝히지 못했지만 앞으로 풀어가야 할 논제를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먼저 조상신본풀이와 제주굿 의례의 상관성 연구가 제기된다. 특히 의례상 조상신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군웅신’에 대한 개념과 ‘군웅본풀이’에 대한 연관성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한반도 본토의 무속 신앙 의례에 존재하는 조상신 관련 제차와 비교하는 연구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서도 밝혔지만 제주굿 내에서는 조상신의 독자적인 제차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한반도 무속 의례와 차별성을 갖는다. 좀더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조상신과 관련한 현재의 신앙 전승 양상에 대한 전도적(全道的)인 조사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것이 가장 시급하며 동시에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 작업의 결과가 위의 연구들을 ‘살아있는 연구’로 만들어줄 것이라 믿는다.

참고 문헌

[연구 대상 자료]

- 강정식·강소전·송정희,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 김현선·현용준·강정식, 『제주도조상신본풀이연구』, 보고서, 2006.
- 김현선·신연우·강정식·강소전, 『제주도 큰심방 이중춘의 삶과 제주도 큰굿』, 민속원, 2013.
- (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큰굿』, 제주특별자치도, 2010.
-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이용옥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 허남춘·한진오·강소전 외, 『양창보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 허남춘·송정희·강소전 외, 『고순안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 허남춘·정희종·강소전 외, 『서순실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5.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도서출판 각, 2007.

[단행본]

- 강정식, 『제주굿 이해의 길잡이』, 민속원, 2015.
- 김찬흡, 『제주사인명사전』, 제주문화원, 2002.
- 金泰坤, 『韓國巫歌集1』, 원광대학교민속학연구소·집문당, 1971.
- _____, 『韓國巫俗研究』, 집문당, 1981.
- _____, 『韓國民間信仰研究』, 집문당, 1987.

- 柳東植, 『韓國巫敎의 歷史와 構造』,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7.
- 로저 자넬리·임돈희 공저, 『조상의례와 한국사회』, 일조각, 2000.
- 무라야마 지준, 김희경 옮김, 『조선의 귀신』, 동문선, 1990.
- 서대석, 『무가문학의 세계』, 집문당, 2011.
- 이능화, 『조선무속고』, 창비, 2013.
- 이수자,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 이언적, 『조선시대 최초의 제사 지침서: 풀어쓴 봉선잡의』, 민속원, 2016.
- 이원진, 김찬흡 외 옮김,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 이은봉, 『증보 한국고대종교사상』, 집문당, 1999.
- 조동일, 『동아시아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 조성운·이상철·하순애, 『제주지역 민간 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 趙興胤, 『韓民族의 起源과 샤머니즘』, 한국학술정보(주), 2003.
- 崔吉城, 『韓國의 祖上崇拜』, 예전사, 1990.
- 허남춘, 『설문대할망과 제주신화』, 민속원, 2017.
-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흥성사, 1981.
- 현용준, 『濟州島 巫俗 研究』, 집문당, 1986.
- _____,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집문당, 1992.
- _____, 『濟州島 巫俗과 그 周邊』, 집문당, 2002.
- _____,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 赤松智城·秋葉 隆 共著, 沈雨晟 옮김, 『朝鮮巫俗의 研究(下)』, 1991.
- 미르치아 엘리아데Mircea Eliade 이은봉 옮김, 『종교형태론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한길사, 2012.
-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2009.

[논문]

- 강소전, 「심방 관련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탐라문화』 36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 _____, 「제주도 칠성의 형성과 본풀이 전승」, 『실천민속학연구』 27집, 실천민속학회, 2016.
- 강진옥, 「월혼설화의 담론적 성격 연구」, 『古典文學研究』 22집, 2002.
- 김명자, 「경기 지역의 터주신앙」, 『역사민속학』 9집, 한국역사민속학회, 1999.
- _____, 「경기지역 업신 신앙의 지속과 변화」, 『실천민속학연구』 3집, 실천민속학회, 2001.
- _____, 「업신의 성격과 다른 가택신과의 친연성」, 『민간 신앙1』, 한국민속학회 엮음, 민속원, 2008.
- 김승연, 「제주도 송당마을 본향당의 굿과 단골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변남주, 「전근대 영산강 유역 포구의 역사지리적 고찰」,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 서정화, 「공간분화에 따른 가정신앙 의례」, 『한국의 가정신앙 상』, 민속원, 2005.
- 송정희, 「제주도 굿 제차 중 석살림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 윤순희, 「제주도 와산리 멩감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이경화, 「<양씨아미본풀이>의 장르 교섭 양상과 그 의미」, 『한국무속학』 36집, 한국무속학회, 2018.
- 이 옥, 「조상제사, 왜 지내는가?」, 『조상제사 어떻게 지낼 것인가』, 민속원, 2012.
- 이월영, 「제주 여성당신의 해신적 성격과 존재 양상」, 『한국무속학』 33집, 한국무속학회, 2016.
- 이창식, 「가정신앙의 여성성과 전통성」, 『한국의 가정신앙 상』, 민속원, 2005.
- 정진희, 「제주도 조상본풀이 <양이목사본>의 한 해석」, 『제주도연구』 32집, 2009.
- 조성윤, 「정치와 종교: 조선시대의 유교 의례」, 『사회와역사』 53집, 1998.
- _____, 「조선후기 제주도 부자 이야기: 김만일 집안과 산마감목관」, 『제주도사연구』 10집, 2001.
- 조현설, 「동아시아의 돌 신화와 여신 서사의 변형」, 『구비문학연구』 36집, 한국구비문학회, 2013.

허남춘, 「칠성과 부군(府君) 신앙, 뱀 신앙」, 『비교민속학』 58집, 비교민속학회, 2015.

현용준, 「濟州島 巫神의 形成」, 『탐라문화』 창간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2.

현용준·현승환, 「濟州島 뱀神話와 信仰 研究」, 『탐라문화』 1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전자 자료]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국립박물관>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folkency.nfm.go.kr>

국사편찬위원회>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순흥안씨 대종회 <http://www.shahn.co.kr/history/index.asp>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the Transmission of
Josangsin Bonpuri (Ancestral God Faith Mythology) in Jeju Island**

The focus of the research is solely on understanding *Josangsin Bonpuri* which refers to myths about individual ancestral gods were recited in Jeju Island Shamanism. *Josangsin* in Jeju Island is regarded as a guardian of a family that includes both blood relative and non-blood relative ancestors.

Josang (ancestor god) worship of humanity has a long history. This study aims to explore whether *Josangsin* in Jeju Island and universal religion of the mankind that is '*Josang* (ancestor god) worship' have in common and to investigate how unique faith such as *Josangsin Bonpuri* in Jeju Island have evolved.

This study selected a total of 95 *Josangsin Bonpuris* and analyzed contents with two dimensions such as *Josangsin's* characteristics and motives for the deification of *Josangsin*.

First, *Josangsin's* characteristics is categorized into nature deities and human gods. Nature deities reside in various parts of the home and the nature like *Bugun-Chilseong*(Snake faith), *Dol-Mireuk*(Stone faith), *Sot-halmang*(the pot of kitchen tool). Indigenous faith affected the formation of nature deities. Human gods can again be divided into non-blood relative ancestors and blood relative ancestors. Non-blood relative ancestors who are deified by solving the grudge after being regrettable ghost because of the relationship with blood relative ancestors of a certain family. Blood relative ancestors who are related to both success and failure and also are the most widespread.

Second, the deification of *Josangsin* is categorized into failure-originated

type and success-originated type according to motives for the deification of *Josangsin*. In failure-originated type, non-blood relative ancestors and female deities are observed more frequently than others. However, in success-originated type, more blood relative ancestors and male deities are observed than others.

Drawing upon the results of analysis, the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e that *Josangsin Bonpuri* was formed by encompassing three perspectives including nature-centered religious idea, Korean shamanism-centered religious idea, religious idea reflecting the history of Jeju Island. The main feature of nature-centered religious idea is nature deities. The main distinction of Korean shamanism-centered religious idea is failure-originated human gods. The key feature of religious idea reflecting the history of Jeju Island is success-originated human gods. However, it is hard to clarify the order of development of these concepts.

Josangsin Bonpuri in Jeju Island was developed by integrating indigenous faith of Jeju Island with faith imported from main land of Korea. And then contemporary *Josangsin Bonpuri* has been completed by encompassing the realistic factors of Jeju Island.

Josangsin Bonpuri in Jeju Island imply God's eternal blessing to people in Jeju. This myth from Jeju Island serves as a necessary means to win the battle of life against barren circumstances. *Josangsin Bonpuri* is not a solid tradition. This means that *Josangsin bonpuri* has been developed by transmission which involves the processes to reflect the changing history not by simple transmission. *Josangsin Bonpuri* is still in the process of being new born.

Key Words : Shamanism, Indigenous faith, Jeju, *Josangsin Bonpuri*, Ancestral God Faith, Nature deities, non-blood relative ancestors, blood relative ancestors.